# 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7년 12월 18일 월요일 제1792호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BanK!S®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유의


# 방향 잡힌 '韓·美 FTA 개정'… 이르면 이달 말 '링' 오른다

**한·미 FTA 추진부터 개정 합의까지 주요 일지**

| | | |
|---|---|---|
| 2006년 | 2월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발표 |
| 2009년 | 12월 | 한·미FTA 추가 협상 타결 |
| 2011년 | 10월 12일 | 미국 상·하원 본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
| | 10월 21일 | 미국 오바마 대통령,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 |
| | 11월 22일 |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2012년 | 3월 15일 | 한·미 FTA 공식 발효 |
| 2017년 | 8월 22일 | 한·미 FTA 1차 특별공동위 서울에서 개최 |
| | 9월 2일 | 트럼프 미 대통령, '폐기' 지시 |
| | 9월 6일 | 미 백악관, 한·미 FTA 폐기 논의 중단 번복 |
| | 10월 4일 | 2차 특별공동위 미국에서 개최 및 개정 협상 합의 |
| | 11월 10일 | 1차 공청회 |
| | 12월 1일 | 2차 공청회 |
| | 12월 18일 | 산업부, 국회에 한·미 FTA 개정 추진 계획 보고 미국과 협의 거쳐 협상 개시 선언 |

## 산업부, 국내 절차 마무리… 자동차·농산물 시장 보호 방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1차 협상 시기의 손이 미국으로 넘어갔다. 미국이 한·미 FTA 전면 개정이 아닌 부분 개정에 나설 땐 이르면 이달 중에도 1차 협상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의 이날 국회 보고는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마지막 국내 절차다. 이후 정부는 미국과 협상 일정을 협의한다.

미국이 전면 개정이 아닌 부분 개정으로 갈 땐 무역촉진권한법(TPA)에서 규정한 의회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미 FTA 이행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권한만으로 개정 협상 진행이 바로 가능하다.

산업부는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에 제출한 추진 계획에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4주 간격의 후속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진행될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자동차를 포함해 상품과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익 균형의 원칙에 따라 미 측의 요구에 상응하는 우리 요구를 관철하고 농축산물 등 민감한 시장은 보호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미국이 무역 적자를 기록한 상품 분야에서는 시장 개방 요구가 자동차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의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기존 62.5%에서 85%로 상향하고 미국산 부품 50% 의무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금융, 전자상거래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NAFTA 재협상에서 논의된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산업부는 내다봤다.

산업부는 협상 목표에 대해 "상호 호혜성 증진과 이익의 균형 달성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겠다"며 "이익의 균형 원칙에 따라 미국의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와 비관세 장벽 해소 등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며 "농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엘리 기자 ellee@

## 문재인표 新산업정책 살펴보니 '한 방' 없는 '재탕·삼탕 종합판'

**산업부 '5대 프로젝트' 우선 추진**
**기존정책 답습… 혁신성 떨어져**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 제조업 강점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한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를 골자로 하는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 2022년까지 매출 1조 원이 넘는 중견기업 80개를 육성하고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4차 산업혁명, 업종별 구조조정 등 산적한 현안에도 산업 정책은 실종됐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발표됐던 내용이 많은 데다 피상적 대책 또한 상당수 포함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한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미래형 모빌리티)을 제조업에 접목하고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을 5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해 우선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9대 핵심부품 기술 개발을 위해 2021년까지 1445억 원, IoT 가전에는 2022년까지 120억 원을 투입한다는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내년 자율자동차, IoT 가전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민·관 공동 펀드를 조성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혁신적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미 제시된 정책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재탕·삼탕식 내용이 많은 데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나와 있지 않아 획기적 정책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주력산업의 정체 속에 신산업 창출은 지연되는 등 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WEF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에서 2013년 25위, 올해 26위로 고꾸라졌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중심 정책에서 중견기업을 내세운 것은 좋지만, 전체적으로 과거 정책을 모양새만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라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엘리 기자 ellee@

## "100兆 시장 잡아라!" 유통 '온라인' 각축전

소비패턴의 변화로 온라인·모바일 시장의 성장세가 가속화하면서 유통업계는 생존을 위한 돌파구로 이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커머스 기업들이 기존 온라인 시장을 주도해온 가운데 각종 규제에 부딪힌 유통 대기업, 플랫폼을 무기로 시장을 넘보는 포털까지 가세해 치열한 3파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국내 약 990개 온라인쇼핑 운영업체의 거래액은 63조416억 원에 달한다. 2014년 45조3025억 원(17.7%), 2015년 53조8883억 원(19%), 2016년 64조9134억 원(20.5%)에 이어 올해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8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개최한 '2018 유통산업 전망 세미나'에서 이미아 서울대생활과학연구소 박사는 "신세계, 현대백화점그룹 등이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받게 되면 온라인 쇼핑몰 투자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온라인쇼핑 시장이 1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 비중이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45.4%, 2016년 52.7%에 이어 올해는 60%을 넘어서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시공간 제약이 적은 데다 편리한 결제 시스템 등에 힘입어 향후 2~3년 내 온라인 소비의 70% 이상이 모바일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규 출점 규제, 휴일 의무휴업 등 각종 규제에 가로막힌 대형 마트는 오프라인의 저성장을 탈피할 채널로 온라인·모바일시장에 주목해 물류배송 시스템을 확대한다. 이마트는 당일 배송 시스템인 '쓱(SSG)배송'을 강화하고자 물류센터를 늘릴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신선제품 배송 서비스 강화로 차별화에 나선다.

11번가를 운영하는 SK플래닛은 외부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11번가에서만 구매 가능한 단독 상품을 개발, 차별화 전략으로 삼을 계획이다. 쿠팡은 '로켓배송'을 한층 더 강화한다. 네이버도 내년부터 쇼핑 플랫폼 '스토어팜'의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등급을 세분화 모객 규모를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김민정 기자 mj@

**'눈 폭탄' 출근길**

중부지방 곳곳에 함박눈이 내린 18일 오전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기상청은 밤부터 다시 기온이 떨어져 빙판길과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새해 경영계획 온도差… 대기업 '유지' 中企 '긴축'

**내년 최고경영자 경제전망 조사**
**경기회복세에도 체감경기 '냉랭'**

2018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더 심화할 전망이다. 300인 이상 기업의 경영계획은 '현상 유지', 300인 미만 기업은 '긴축경영'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3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73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최고경영자 경제전망 조사' 결과를 18일 밝혔다.

이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경영계획 기조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현상 유지'(52.1%), 300인 미만은 '긴축경영'(45.7%)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017년 60.5%였던 '긴축경영' 전망이 내년에는 28.2%로 감소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긴축경영' 기조라고 응답한 기업이 2017년 42.9%에서 2018년 45.7%로 증가했다. 전체 기업의 경우 국내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대해 35.3%가 '2020년 이후', 31.3%는 '2018년 하반기'라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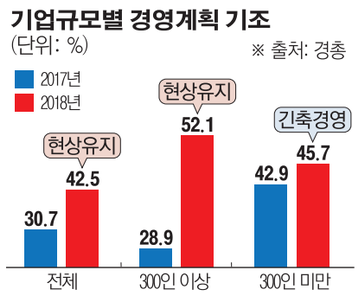
현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장기형 불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전년 조사 결과(81.5%)보다는 대폭 감소했다. 반면 '현 경기가 저점이나 향후 경기회복을 예상'이라는 응답과 '경기저점 통과 후 회복국면으로 진입'이라는 응답은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 특히 '경기저점 통과 후 회복국면으로 진입'이라는 응답은 300인 미만 기업(17.2%)보다 300인 이상 기업(31.0%)에서 높게 나타났다.

내년도 투자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300인 이상 기업에선 '금년 수준'(38.8%), 300인 미만 기업은 '소폭 축소'(36.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300인 이상 기업은 '금년 수준' 응답을 제외하고, '축소'('소폭 축소' + '대폭 축소')라는 응답(28.3%)보다 '확대'('소폭 확대' + '대폭 확대') 응답이 32.9%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축소' 응답이 54.6%로 '확대'(20.5%)보다 높게 조사됐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기업규모별 경영계획 기조**
(단위: %) ※ 출처: 경총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현황**(단위: %, 변동금리형 대출)

| | KB국민 | 신한 | KEB하나 | 우리 | NH농협 |
|---|---|---|---|---|---|
| 12월 15일 | 3.11~4.31 | 2.97~4.28 | 3.22~4.502 | 3.02~4.02 | 2.83~4.42 |
| 12월 18일 | 3.26~4.46 | 3.12~4.43 | 3.37~4.504 | 3.17~4.17 | 2.98~4.57 |

※ 출처: 각 은행, 코픽스 신규취급액 기준

## 5% 턱밑… 주담대 금리 또 오른다

**최대 4.57%… 은행, 오늘부터 코픽스 연동상품 인상**

변동금리형 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상승하면서 시중은행들이 18일부터 일제히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올린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코픽스가 상승 추세인 만큼 앞으로 대출금리는 더욱 오를 전망이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은 15일 코픽스 인상 분을 반영해 이날부터 코픽스 연동 주담대(6개월 변동) 금리를 신규 취급액 기준은 최대 0.15%포인트, 잔액 기준은 최대 0.04%포인트 각각 올린다. 은행 고객이 2억 원을 빌리면 이날부터 최대 30만 원의 이자가 더 불어나는 셈이다.

농협은행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를 15일 2.83~4.42%에서 18일 2.98~4.57%로 0.15%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잔액 기준 금리는 2.83~4.42%에서 2.87~4.46%로 0.04%포인트 올린다.

하나은행은 18일부터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3.370~4.504%, 잔액 기준 금리는 3.504~4.504%로 각각 인상한다. 국민은행도 각각 3.26~4.46%(신규 취급액 기준), 3.30~4.50%(잔액 기준)로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를 인상한다. 신한은행은 3.12~4.43%(신규 취급액 기준), 2.91~4.22%(잔액 기준)로, 우리은행도 3.17~4.17%(신규 취급액 기준), 3.06~4.06%(잔액 기준)로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각각 끌어올린다.

은행들이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인상한 것은 해당 금리의 기준금리인 코픽스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달 기준 코픽스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1.77%로 10월보다 0.15%포인트 올랐다. 이 인상폭은 2011년 2월(0.16%포인트) 이후 6년 9개월 만의 최대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내년 1월에도 코픽스(1월 15일 발표)와 이에 연동하는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오를 전망이다. 박규준 기자 abc84@

'포스트 유커' 찾아라! 롯데면세점, 동남아로… ▶9

"SOC보다 사람 투자 먼저" 김성식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 ▶10

조용하고, 날렵하게… 戊戌年 대세는 'SUV' ▶19



모바일로 보는 이투데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 시카고상품거래소, 비트코인 선물거래 시작

# CBOE서 주춤했던 投資 열기 되살리나

〈시카고옵션거래소〉

### 시카고옵션거래소 출시 일주일 만에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 등판
### 변동성에 기관투자자 꺼리며 CBOE 거래량 60%↓ '초라한 성적'
### 헤지펀드·대형 금융기관 타깃…CME 기대에 2만 달러 線 바짝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경쟁사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비트코인 선물거래 개시 일주일 만에 싸늘히 식은 시장의 열기를 되살릴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13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CME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17일 오후 6시(한국시간 18일 오전 8시)부터 선물거래를 시작했다. CME의 최대 경쟁자인 CBOE가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한 지 일주일 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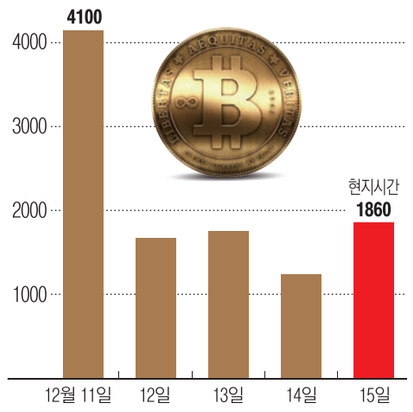
비트코인 가격은 올 들어 1700% 이상 치솟았다. CME 선물시장 출범에 대한 기대로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시간으로 18일 현재 2만 달러 선에 근접하고 있다.

선물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은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것에 대비해 베팅할 수 있어 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 또 월가 금융기관들이 잘 규제된 CBOE와 CME에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 비트코인 투자를 꺼렸던 기관들이 뛰어들 기회가 마련됐다.

CBOE의 첫 일주일간 투자 열기는 미지근했다는 평가다. 10일 거래 개시 후 24시간 비트코인 선물 계약 건수는 4100건 이상이었다. 그러나 이후 4거래일간 평균은 약 1640건으로, 첫날보다 약 60% 축소됐다. 가상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의 첫 일주일간 선물거래 치고는 초라한 성적이 아닐 수 없다. CBOE는 새로운 상품에 대해 이런 거래량은 건전한 것이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CBOE가 거래 최소 단위를 1비트코인으로 설정한 데 비해 CME는 5비트코인에 달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보다 헤지펀드와 대형 금융기관 수요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1만7500달러라고 가정하면 CBOE는 딱 이 금액만큼을 1거래로 치지만 CME에서는 1거래를 하려면 비트코인 5개 값인 8만7500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다. 증거금 규정도 CME가 더 엄격하다. CBOE는 첫 계약 시 전체 금액의 44%를 증거금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CME는 그 비율이 47%로 더 높다.

**시카고옵션거래소 비트코인 계약건수 추이**
(단위: 건) ※출처: WSJ




다만 CME와 CBOE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높은 탓에 많은 은행과 선물 중개업체들이 진입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세계 어느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는 순수한 디지털 통화로 간주, 처음에는 자유주의자나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의 호기심을 받다가 이후 가파른 상승세에 월가 투자은행의 관심도 얻게 됐다. 회의론자들은 비트코인은 버블에 불과하며 돈세탁 등 다른 불법행위를 돕는 수단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JP모건체이스와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 소시에테제네랄, UBS 등은 고객들에게 CBOE와 CME의 비트코인 선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은행은 당분간 상황을 관망하다가 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골드만삭스와 ABN암로그룹은 CME와 CBOE 비트코인 선물 청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일부 고객만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찰스슈왑&컴퍼니와 TD아메리트레이드홀딩 등 인기 중개업체들은 고객들이 비트코인 거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나서 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TD아메리트레이드는 CBOE 선물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선물시장이 승자 독식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비트코인에서도 CBOE와 CME, 양사 중 한 곳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공공기관 경영평가 原點 재검토"…사회적 가치 지표 담는다

### 기획재정부, 20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서 '경영평가 제도 개편안' 공개
### 34년 만에 첫 전면개편…평가단 재편하고 文정부 국정과제 반영키로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지표를 반영한 평가항목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전면 개편에 나선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시작된 1984년 이후로는 34년 만이고 지금과 같은 방식의 경영평가가 제도화된 2008년 이후로는 10년 만의 전면 개편이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안을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워크숍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지난 30여 년간 이어온 공공기관 평가제도가 혁신의 시점에 와 있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공공기관 평가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을 재편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교수 71명, 회계사·변호사·노무사 등 전문직 30명, 학회와 연구원 등의 전문가 7명, 지원 간사 1명을 포함해 총 109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학계 출신이 73명으로 전체 평가위원의 67%나 차지, 공공기관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이들에게 연구용역을 몰아주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따라 평가단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평가단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조·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를 반영한 평가단 구성은 현재도 일부 적용되고 있으나 확대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3차 공개토론회에서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평가연구팀장은 "평가단 분리,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여부 등 평가단 구성 및 운영방식의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평가단을 학습과 혁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축소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평가지표를 새로 담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실제로 기존의 평가는 공적 역할보다는 주로 경영 실적으로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수익성·상업성만을 추구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들이는가를 중요시해왔다. 경영평가단 구성에서도 학계 출신 중 경영학 전공자가 많은 게 현실이다.

토론회에서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를 우선 별도의 범주로 신설하고 향후 본평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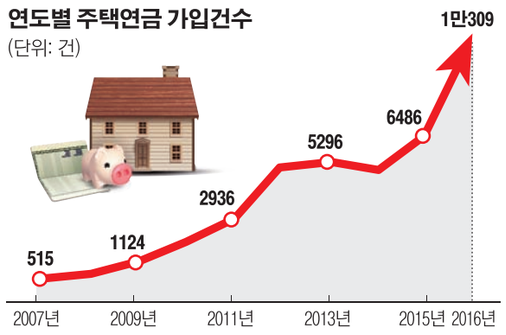
또 현재의 과도하게 세분화된 평가지표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지표의 대표성 확보와 기관 유형별 차별화를 추진한다. 이에 기관 유형별(공기업·준정부기관)로 평가지표를 차별화·간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채용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해 책임윤리경영이 평가지표로 반영되고 경영평가를 한 뒤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이 두루 담긴다"며 "현 정부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경영평가 제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곽도흔 기자 sogood@

**연도별 주택연금 가입건수**
(단위: 건)




# "주택연금으로 노후 대비 자녀에 집 상속 안 한다"

### 4명 중 1명 "상속계획 無"…부모 봉양 비율 감소세
### 주택연금 가입 2016년 1만건 돌파 '10년 새 20배'

자식에게 주택을 물려주지 않고 스스로 소유하며 주택연금을 통해 소득을 확보하는 부모 세대의 비율이 지난 몇 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2007년의 515건에서 2016년 1만309건으로 10년 새 20배가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녀와 동거하는 부모의 비율은 감소하고,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증가했다. 부모와 자녀의 동거 비율은 2008년 38%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인 2016년에는 29.2%를 기록했다. 반면 보유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이들은 2008년 12.7%에서 2016년 25.2%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문화가 이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생활비를 주택연금을 통해 마련하고자 하는 부모 세대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생활비를 자녀에게 의지하는 부모 비율은 2008년 52.9%에서 2016년 47.4%로 감소한 반면,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는 부모의 비율은 46.6%에서 52.6%로 증가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노년층 빈곤율도 주택을 상속하기보다는 직접 소유하며 연금 형태로 전환하기를 선호하는 추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조사된 한국의 66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였는데,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12.6%보다 4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기준으로 청년가구인 30세 미만의 실물자산 비율은 37.4%인 반면, 노인가구인 60세 이상의 실물자산 비율은 82.0%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는 부모 세대 보유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을 연금소득으로 전환하고자 하려는 심리가 자연히 확산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시사한다.

한편 2015년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35.2%는 경기도에, 32.7%는 서울에 각각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돼 가입자의 73.8%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웅 기자 cogito@

대한민국 농수산식품의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농업,
국민 모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농수산식품!
aT가 농업인의 터전에서 농업인과 함께 그 희망을 만들어갑니다.

aT 50년 새로운 100년을 약속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민국 농식품산업의 힘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 대표전화 061-931-1114

# 文, 사드피해 기업 구하기… 현대車 '글로벌 탈환' 再시동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16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충칭시 현대자동차 제5공장을 방문해 직원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 文대통령, 충칭 공장 격려 방문 "사드 리스크 해소 적극 나서겠다"

### 더민주 방러 대표단도 현지 생산시설 찾아 '新북방정책' 재차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최대 수혜기업으로 현대차가 꼽히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같은 시간 현대차 러시아 공장을 방문하면서 '신북방정책'을 내세우기도 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동시에 해외 생산시설을 방문하는 이례적인 일정이었다. 현대차의 대외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르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와 현대차 등에 따르면 자동차 업계는 문 대통령의 중국 충칭(重慶) 현대차 공장 방문(16일)에 적지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현대차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도 어려움을 만드는 대외적 요인이 있다면 정부가 앞장서서 해소하겠다"며 "현대차가 더 힘차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중국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대폭 높여서 중국 최대 자동차 회사로 성장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시장에서도 우뚝 서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현대차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며 "대한민국을 자동차 강국으로 만들고, 또 제조 강국으로 만든 일등 공신"이라고 평가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차 충칭 공장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찾은 첫 번째 산업시설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나아가 대외 리스크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대통령 발언이 정치적 문제로 답보상태에 접어든 해외사업 회복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국내 시설보다 해외 시설을 먼저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대중국 해빙 무드에 대한 견해가 많았지만 실질적인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 방문이 적지않은 의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시기에 추미애 더민주 대표도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차 공장을 찾았다.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공교롭게 현대차 공장을 나란히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추 대표 역시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님과 유사한 일정이 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더민주 방러 대표단에 따르면 추 대표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에 있는 현대차 공장을 방문해 공장 경영진과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물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곳 현대차 공장은 2010년 9월 완공돼 이듬해 1월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간 연 생산능력 23만대의 공장이다. 현지에서 '쏠라리스'(국내명 엑센트)와 '뉴 리오'(국내명 프라이드) 등 2개 차종을 생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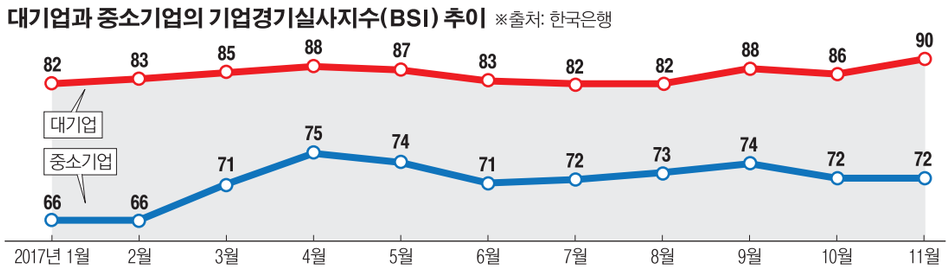
추 대표는 "경제협력 사례에 (현대차가) 기억에 남는 성취를 이룬 것은 한-러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신동방정책과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에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이 같은 날 중국 충칭에 있는 현대차 공장을 방문한 점을 언급, "의미 있는 일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잇따라 현대차 해외 생산시설을 직접 방문한 것과 관련해 내년 해외시장 리스크 해소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중국 시장는 내년 한 해 약 1.3%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 가운데 대통령의 방문이 반전의 기회가 됐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하고 "러시아 시장 역시 올해 13%대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대표의 현지 공장 방문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추이** ※출처: 한국은행




## 수출 대기업 위주 회복세… 中企는 여전히 苦戰

### 中企, 환율 변동에 취약…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률 지난해보다 1.6%P 하락

올해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년 내내 부정적으로 이어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체감 경기 격차도 올해 중 11월이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계획 기조의 차이도 올해 말 체감 경기 격차가 벌어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기에 대해 느끼는 온도차이는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기업 업황 BSI는 전달보다 4포인트 상승한 90으로, 2012년 4월(9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중소기업 업황 BSI는 72로 10월과 같은 수준이었다. 특히 중소기업은 지난달 전망했던 11월 전망치(78)에도 크게 미치지 못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10월 14포인트에서 11월에는 18포인트를 기록,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2월 전망치에서도 대기업(89)과 중소기업(72)은 17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최덕재 한국은행 기업통계팀장은 "최근 수출 대기업 위주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데 반해, 중소기업은 환율 변동에 취약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이달 발표한 '2017년 3분기 기업경영분석'에서도 수익성 측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매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3분기에 14.8% 성장했다.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8.1%, 8.5%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6%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반면 중소기업은 개선세에 있지만 매출 증가율이 대기업만큼 가파르지 않다.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 3분기 9.5%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6.7%)와 2분기(5.5%)에 비해서는 개선됐지만 대기업보다는 성장이 더뎠다.

수익성에서는 온도차가 더 컸다. 3분기 대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7.9%를 기록해 전년 동기 5.4%에 비해 2.5%포인트 개선됐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지난해 3분기 8.2%였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올 3분기에는 6.6%를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수익성이 높은 1차금속, 기계·전기전자, 석유·화학 등이 주로 대기업이 많이 몰린 업종"이라며 "중소기업이 많이 분포한 목재·종이, 자동차부품 등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 美 '망 중립성' 폐지에 인터넷업계 '坐不安席'

### "스타트업 악영향 우려"… 이통사는 '수익성 증대 기대감' 내심 환영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網)중립성' 정책 폐기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찮다. 정부는 기존의 망중립성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애써 축소하는 입장이지만 국내 인터넷 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18일 IT(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 발표 이후 국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불붙고 있는 모습이다. 우선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앞으로 과도한 인터넷 트래픽 발생에 따른 비용을 망 사업자에 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당장 네이버, 카카오 등 170여개 업체를 회원사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미국 FCC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이 인터넷기업들의 혁신과 향후 산업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의지를 꺾어 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특히 "망중립성 원칙은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들의 탄생과 성장을 이끌 기반"이라며 정책당국에 인터넷 산업의 육성과 한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정책당국이 망중립성을 더욱 공고하게 유지하고 강화해 줄것을 강력 촉구했다.

반면 망 사용자,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업체들은 내심 망중립성 규제 완화로 인한 수익 증대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5세대(5G) 통신망 고도화를 선도하겠다는 한국에서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시장원칙의 도입을 마냥 미룰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자율주행, 빅데이터 서비스 등의 활성화로 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합리적인 트래픽 처리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미국도 망중립성 원칙이 통신사의 투자유인을 저해하고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정책 폐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 정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課稅 TF 가동

# 부가세 대신 '양도세·거래세' 무게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블록체인 분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과세 방식을 마련할 방침이다.

18일 관련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는 과세 방식은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개별 거래에 대한 거래세가 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사업자가 물건을 판 대금을 가상화폐로 받아, 이를 법정통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부가세가 두 번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정부는 가상화폐가 부가세 비과세 대상인 화폐나 금융상품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이중과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양도세나 거래세 과세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중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자산으로 거래되는 재화의 성격이 강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는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다. TF는 어떤 세목으로 과세할 수 있을지 검토해 관련 법적 근거와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과 영국, 일본, 호주 등에서는 가상화폐의 자산적 성격과 지급수단 기능을 동시에 인정해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가 검토 중인 대안으로는 가상화폐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물리거나, 주식처럼 매도 대금의 일정 비율을 거래세로 매기는 방식 등이 있다. 양도세는 정부가 가상화폐를 부동산과 같은 자산으로 규정해 시세 차익에 대해 부과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가상화폐의 자산적 성격을 인정해 매매 차익의 최대 20%를 양도세로 걷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 정보가 블록체인 방식으로 분산 저장되기 때문에, 소유주 개인정보 파악이 어려워 징수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 경우 업계는 가상화폐 거래가 몰리는 거래소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조세 회피를 차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제한하는 규제가 돼 거래를 위축시키고, 비과세인 다른 양도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세는 상대적으로 과세하기가 쉬워 먼저 도입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가상화폐 거래대금의 일정비율(증권 0.3%)을 거래세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세를 떼 정부에 내기 때문에 징수가 확실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로 올리는 막대한 시세 차익에 비해 세금이 너무 적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정부 TF는 각각의 세목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들을 따져 국내 환경에 적절한 방식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 '한식 쿠킹클래스' 참석한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한국 관광안내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를 방문해 한식 쿠킹클래스에 참석한 외국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66만명…전체 13.6%

### 사글세 비중 높아져 주거안정성 악화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중 13% 이상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배 넘게 차이를 보였다. 여기에 저소득층의 전세 비중은 하락하고 보증부월세·월세 및 사글세 비중은 높아져 소득계층 간 주거안정성 격차도 심화했다.

18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13.6%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1962만7000명 중 266만4000명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임금근로자 비율을 말한다. 2002년 9월~2003년 8월 4.9%에서 2007년 이후 10~12%로 올라간 뒤 지난해 13.6%까지 높아졌다. 특히 20세 미만과 60세 이상, 여성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7.1%인 데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26.9%로 3배 넘는 비중을 보였다. 시간제 근로자(41.2%)와 가내 근로자(62.2%)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은 2002년 9월~2003년 8월 2275원에서 올해 6470원으로 약 2.8배 인상됐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55.9%, 평균임금 대비 44.8%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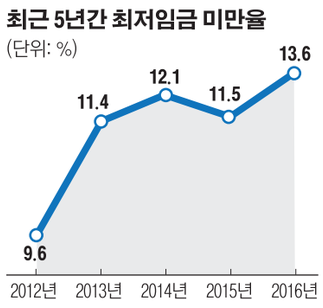
이 가운데 최근 10년간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은 더 악화했다. 2006~2016년 저소득층의 전세 비중은 18.8%에서 12.9%로 5.9%포인트(p) 떨어졌다. 반면 보증부월세·월세 및 사글세 비중은 27.5%에서 35.3%로 7.8%p 상승했다.

보증부월세·월세 및 사글세 비중은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지난해 각각 19.2%와 8.3%로 나타나 소득계층 간 주거안정성의 차이를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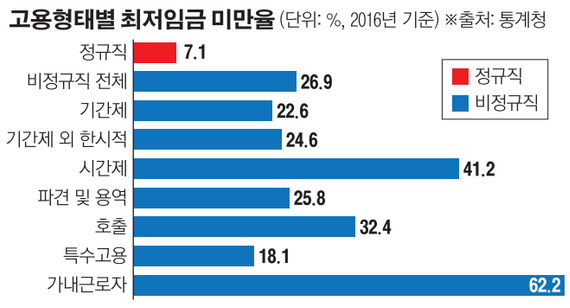
전국의 매매가격 지수는 2000년 52에서 올해 101로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전세가격 지수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5년 공공임대주택은 125만7461호로 전체 주택 중 8.2%를 차지했다. 지역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경기(24.6%)와 서울(18.7%)이 높았다. 그 외의 지역은 평균 3.8% 수준에 불과했다. 면적별로 보면 대형보다는 소형과 중소형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98만7646호로 공공임대주택 중 88.5%를 점유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최근 5년간 최저임금 미만율**




**고용형태별 최저임금 미만율** (단위: %, 2016년 기준) ※출처: 통계청




# '사드' 사실상 봉합하고 '經協' 복원

### 文대통령 訪中 결산

### 北核 해결 '4대 원칙' 첫 합의
### 경제협력 채널 전면 재가동

### 야당·일부 언론 '홀대론'에
### 靑 "형식 아닌 내용을 보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마지막 날인 16일 문 대통령 방중 소식을 1면에 싣고 문 대통령이 충칭에서 '뿌리 찾기 여정'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철회를 사실상 이끌어내고 실질적 경제협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특히 한반도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국과 '4대 원칙'을 처음으로 합의한 점도 큰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 '굴욕적 외교', '중국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적극 반박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방중 성과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77개 국장급 이상 정부 부처 간 협의채널의 전면 재가동,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등을 통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에 합의했다"며 "양 정상은 양국 간 교류협력의 회복은 물론, 새로운 25년을 향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양국 간 유사한 국가비전, 성장전략의 교집합을 토대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협력을 추진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함께 마련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윤 수석은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보건, 교육·과학, 에너지, 지방정부 협력과 빅데이터·인공지능·5G·드론·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며 "우리의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간 연계를 통해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 슈퍼그리드 등 역내 거대협력사업의 적극 추진에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사드(보복)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1일 3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한국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자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 탄핵으로 잃어버렸던 6개월간의 외교 공백은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방중도 그동안 가로막혔던 중국 사드 갈등으로 인한 경제보복 해결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한·중 경제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은 사드 해빙 무드에 아직 풀리지 않은 한·중 경제협력 회복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14일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행사에서 현대차가 개발한 차세대 수소전지차 직접 탑승과 16일 중국 충칭 현대차 제5공장의 문 대통령 방문은 사드 보복으로 인한 중국 국민의 현대차 불신을 털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홀대론'에 대해 청와대는 형식이 아닌 내용을 볼 필요가 있다고 적극 해명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전후해 5시간을 함께 보낸 것은 이례적이며 그만큼 개인적 신뢰와 우의를 다진 것이다"며 "'혼밥론' 제기는 국민 감정선을 건드리는 것으로 그런 프레임을 설정해 공격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 12월 '빈손 국회' 현실화…'1월 국회' 또 소집?

### 3당 원내대표 오늘 만찬 …'법사위 보이콧' 이견 좁힐지 관심

종료일을 일주일 앞둔 1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월 국회 소집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각 당이 내세운 민생·개혁 법안에서 여야 간 견해 차이를 좁히지 않는 데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면서 1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11일 시작된 12월 임시국회는 23일 막을 내린다. 22일에 열리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는 인사청문회 일정 차질과 여야 대립 등이 없다면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와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상정된다.

다만 각 당이 중점 법안으로 내세운 민생·개혁 법안들은 현재로서는 본회의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국가정보원 개혁법 통과에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한국당의 강한 반대로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꼭 처리하겠다고 나섰으나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하면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방송법 등의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쟁점 법안들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법사위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당이 내년 예산안 공조 처리에 반발한 이후 강경투쟁 기조를 내세우면서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가 멈춰 섰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다만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할지는 아직 결단하지 못한 상태다. 계속된 국회 일정으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의원들이 많은 데다, 새해 들어 지역구 행사 및 해외방문 일정 등으로 의원들의 이탈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부정적인 야당의 태도를 고려할 때 1월 임시국회 역시 개점휴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민주당의 고려 요소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의 우원식(민주당)·김성태(한국당)·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8일 만찬을 하기로 하면서 쟁점 법안과 한국당의 '법사위 보이콧' 문제에서 이견이 좁혀질지 주목된다. 김하늬 기자 honey@

# '정우택 후임' 운영위원장 누가 승계?

### 한국당 "UAE特使 의혹" 소집 요구에 민주당 "반대" 논란 일어
### 관례상 집권여당 원내대표가…본회의 거쳐야 해 쉽지 않을 수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방문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여야 간 운영위원장 승계 논란이 국회 전체로 확전될 전망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 운영위원장 승계'와 관련해 서로 우선권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문제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겸직하는 관례에서 출발한다. 지난해 상반기 국회를 구성하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내년 5월까지 운영위원장직을 맡았다. 하지만 올해 정권이 교체되면서 한국당이 야당으로 처지가 바뀌자 임기가 남았음에도 관례상 운영위원장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전개됐다.

아직은 한국당이 유리하다. 상임위원장 교체는 국회 본회의를 거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직 임기가 남은 한국당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교체는 어려운 셈이다. 이와 관련, 정 전 원내대표는 여당의 운영위원장 승계 여부와 관련해 "(승계 여부는) 여야 협상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고 국회법에 따라서 운영위원장이 선출되면 그만두는 것은 당연하다"며 "본회의에서 운영위장이 뽑힐 때까지는 제가 위원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 국회나 외부의견"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임 실장의 UAE 방문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그 진상을 국민께 솔직하게 밝힐 곳이 운영위다. 이를 막으려고 (여당이) '김성태 위원장' 못 시켜 준다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의 운영위 불출석은) 위기를 은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운영위 소집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국회 운영위 소집에 대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 통보에 나선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당은 여야 간사 간 합의되지 않은 운영위 소집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카더라' 수준의 의혹을 논의하기 위한 운영위 소집은 더더욱 안 될 말"이라고 단언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종교인 課稅 '조세평등' 위배" 시민단체 "특혜 없애라" 주장

### "종교활동비 등 비과세 범위 너무 포괄적"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 수정 촉구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소득 과세를 놓고 시민단체들이 특혜 가능성을 제기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앞서 14일 종료된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을 토대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일부 종교계가 강력히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종교인 과세에서 종교 활동에 사용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법률상 문제가 많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관련, "종교인만 누리는 특혜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연맹은 의견서에서 "소득세법에서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피복비, 출장비 등 소액의 실비는 비과세로 인정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데 종교활동비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종교인에게 영수증 없는 기밀비나 특수활동비를 비과세로 규정, 소득세법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맹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중 하나로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에서 정한 종교활동비 지급기준에 근거한다는 조항이 실제로는 과세소득을 줄일 여지가 클 뿐만 아니라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맹은 종교활동비 조항을 삭제하거나 일반 근로자처럼 월정액의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은 일반근로자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피복비, 숙직비, 여비교통비를, 교사의 경우에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기자의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취재수당을 각각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연맹은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의 범위를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 한정했다"며 "이 조항에 따라 종교인이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각종 명목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단체'라는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합회도 성명서를 통해 "종교활동비는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한 자의적 항목으로 종교인 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인정해 남용될 수 있다"며 "종교인에 대한 월급 중 과세하는 사례금을 매우 적게 하고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의 비중을 매우 많게 하면 낼 세금이 거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지나친 특혜"라고 지적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종교인 소득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 법원 "웨딩플래너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돕는 웨딩플래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웨딩플래너 강모 씨 등 23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을 상대로 낸 '체당금 지급 대상 부적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 씨 등에게 소정의 퇴직금이 지급된다.

'체당금'이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못 받을 경우 국가가 4대 보험 기금으로 체불임금, 퇴직금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강 씨 등이 체당금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 회사 '플래너 근무규정'에서 정한 업무 특성, 보수 지급 방식 등을 들어 "강 씨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웨딩상품 판매금액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거래업체와 납품가를 정하면 국장이나 실장이 납품가에 이윤을 붙여 기준금액을 정했다"며 "이런 기준금액을 토대로 금액표를 만들어 웨딩플래너들이 금액을 더 높이거나 할인하는 방식으로 결정됐고, 강 씨 등은 할인금액이 클 경우 팀장 및 실장 등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웨딩플래너들과 달리 운영팀 직원들과는 연봉 및 퇴직금을 정해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수당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주민세만을 공제해온 점 △4대 보험 직장 근로자로 가입돼있지 않았던 점 등은 웨딩플래너 업무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거나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모든 웨딩플래너를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개별 근로계약을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강 씨 등은 2014년 12월 회사가 폐업하자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하지만 강 씨 등이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회사는 이듬해 7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강 씨 등은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면 국가라도 이를 대신 지급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 'KB, 현대증권 高價인수' 의혹 檢, 구체적 증거 부족 수사종결

검찰이 KB금융의 현대증권 고가 인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KB금융이 현대증권을 비싸게 사들여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윤종규 회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최근 이를 취소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KB금융이 지난해 3월 현대증권의 지분 22.5%를 인수할 당시 시중 가격보다 비싼 1조2500억 원에 사들여 주주들에게 70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해 6월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고발장을 접수할 때부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등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나찬기 부장검사)는 투기자본센터의 윤영대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으나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 등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투기자본감시센터의 대표가 고발인 조사를 받은 이후 고발을 취소했다"며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 한솔제지·전주페이퍼·아세아제지 '廢紙가격 담합' 혐의 벌금刑 받아

5년 동안 백판지 원료인 폐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지업체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이강호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솔제지와 전주페이퍼에 각각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제지와 신풍제지, 페이퍼코리아는 벌금 4000만 원, 아세아제지는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이들 업체는) 국내 인쇄 고지 구매 시장에서 약 47%, 신문 고지 구매 시장에서 약 81%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며 "매출액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장기간에 걸쳐 가격을 담합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솔제지 등은 2008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골판지와 백판지 등 원료인 인쇄·신문 고지 구매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총 143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 휘발유값 20週 연속 상승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이 전주 대비 2.3원 오른 1539.2원/ℓ를 기록하며 20주 연속 상승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북해 지역 공급 차질 가능성, 중국 원유 수입 증가 등으로 국내유가는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66원을 나타내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 타워크레인 작업영상장치 의무화 자격취득 교육, 36시간→144시간

앞으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작업의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개 법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11월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 후속 조치다.

원청이 직접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안전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임대업체, 설치·해체 업체팀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유해·위험기계 임대업체가 해당 기계 등의 설치·해체 작업 전에 대여받는 곳이 함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해당 기계 등의 설치·해체 작업자에게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안전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도록 했다. 원청 건설사 등 타워크레인을 대여 받은 곳은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충돌방지 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작업 시 안전관리와 작업자의 안전작업 절차 준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원청이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작업과 높이는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해 대여 기간 보관하도록 했다.

타워크레인 자격취득 교육 과정도 강화한다. 교육시간을 현행 36시간(현장실습 6시간 포함)에서 144시간으로 연장하고, 실습 위주(실습 3주·108시간, 이론 1주)로 개편했다.

이와 함께 설치·해체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5년마다 보수교육(36시간)을 다시 받도록 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후속 입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은평 기자 pepe@

Truly, Global Leading University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
성균관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전통과 혁신으로 만들어진 성대의 오늘,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새로운 내일을 만듭니다.

2020 성대, 미래를 이끌다
아시아 TOP 10, 세계 50권 대학 진입
국내 최고라는 이름에 만족하지 않고
글로벌 리딩대학으로 나아갑니다.

2017 성대, 최초에 최고를 더하다
2017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사립대 1위
전국 4년제 대학 취업률 2년 연속 1위
국가고객만족도(NCSI) 10년 연속 종합 대학 1위
한국 최초(最初)의 대학에서
최고(最高)의 대학으로 비상합니다.

1398 성대, 전통을 품다
조선시대, 국가 최고의 국립대학이었던
성균관의 역사와 정통을 계승한
뿌리깊은 대학입니다.

(우)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2018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2018.1.6 ~ 2018.1.9
입학안내 | TEL 02.760.1000 홈페이지 http://admission.skku.edu

성균관대학교 SUNGKYUNKWAN UNIVERSITY SKKU

# 産銀, 금호타이어 'P플랜' 검토

〈단기 회생절차〉

### 삼일PwC 실사 결과 좋지 않아 8개 채권기관 내일 회의 예정

### 우리銀, 보유 채권 모두 無擔保 평가손실 올해 결산 반영에 부담

금호타이어가 자율협약 유지와 P플랜(단기 회생절차)의 기로에 놓인 가운데 채권기관이 보유한 담보가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KDB산업은행 등 담보를 충분히 보유한 기관이 P플랜 신청에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P플랜이 진행되면 법원의 자산(담보) 재평가를 통해 담보를 보유한 채권기관은 최우선순위로 원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수출입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광주은행·신용보증기금 등 8개 채권기관은 이번주 금호타이어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9일이 될 전망이다. 회의를 주재하는 산은은 안건의 보안 유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채권단 금호타이어 담보 확보 현황**

| 담보제공처 | 규모 |
|---|---|
| 산업은행 | 3466억 원 |
| | 8억5832만 달러 |
| | 25억3200만 엔 |
| | 22억2651만 위안 |
| 국민은행 | 1788억 원 |
| ICBC 외 | 3억 위안 |
| UBS 외 | 9000만 위안 |
| 총합계 | **1조9260억 원** |

**금호타이어 차입금 현황** (단위: 억 원)

| 유형 | 기관 | 규모 |
|---|---|---|
| 단기차입금 | 산업은행 | 5104 |
| | 뱅크오브아메리카 | 2946 |
| | 토론토도미니언뱅크 | 605 |
| | 기타 | 7005 |
| 장기차입금 | 산업은행 | 8113 |
| | 하나은행 | 351 |
| | 수출입은행 | 296 |
| | 동부증권(사채) | 1200 |
| | 기타 | 2556 |
| 총합계 | | **28176** |

※ 2017년 3분기 연결기준

현재 채권단은 P플랜을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다. 삼일PwC의 금호타이어 실사 결과가 예상보다 좋지 않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 중국사업 부문의 부실을 끊기 위해서는 법원의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채권단의 시각이 적지 않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2010년 이후 이 회사에 신규 자금만 1조1000억 원을 지원했다. 채권단이 추가 자금 투입을 꺼리는 이유다.

이 때문에 P플랜이 아니고서는 채권단의 신규자금을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채권단의 담보 상황도 금호타이어 처리 방향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금호타이어는 채권단에 국내외 자산 1조9260억 원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 중 산은이 확보한 담보 규모는 1조6800억 원이다. 국민은행 역시 1788억 원 규모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확보하고 있다.

다른 채권기관은 확보한 담보가 적거나 없지만 대부분 산은의 결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 수출입은행은 같은 국책은행인 데다 농협·하나·광주은행 등의 채권은 소규모다.

다만 우리은행은 변수다. 우리은행은 금호타이어 지분 14.15%와 6000억 원 규모의 여신을 보유하고 있다. 막대한 여신 규모와 달리 해당 은행이 보유한 채권은 모두 무담보다. 이 때문에 P플랜을 통해 기존 주식의 감자와 채권 재평가가 이뤄지면 우리은행은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우리은행은 금호타이어 지분과 관련, 1000억 원 규모의 평가손실을 올해 결산 때 반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출자전환이 이뤄져 충당금까지 쌓게 되면 우리은행은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다. 지주사 전환을 고려하는 해당 기관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우리은행은 P플랜보다는 산은 책임론을 부각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며 "채권단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정다운 기자 gamja@

# '조선·해운 불황' 損保社에 직격탄

### 3분기까지 누적보험료 총 4233억… 21개월 새 37% 급감

조선·해운업에 불어닥친 불황이 보험 시장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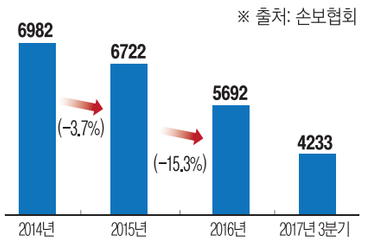
1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국내 10개 손보사의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4233억 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손보사의 연간 원수보험료는 총 5692억 원이이었다. 2015년 6722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15.3% 감소했다. 2014년에는 6982억 원이었는데 이를 기준으로는 2년 만에 18.5% 줄어든 셈이다.

손보업계는 해상보험의 실적 악화가 조선·해운업의 불황 때문으로 분석한다. 해상보험이란 선박의 운항과 화물 운송 등에 따르는 위험에 대비해 드는 보험이다. 해상보험에는 적하보험, 선박보험, 운임보험 등이 있다.

실제로 최근 조선업과 해운업의 실적은 해상보험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 영국계 조선·해운 분석 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조선사들의 선박 수주량은 220만 CGT였다. CGT란 '표준화물선 환산톤수'로 선박의 부가가치와 작업 난이도 등을 반영한 무게 단위다. 2015년 수주량은 1070만 CGT이었다. 1년 새 80%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수상운송업 매출도 같은 기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상운송업 매출액은 31조2000억 원이었다. 2015년 37조9000억 원이었던 것이 1년 만에 17.8% 감소한 것이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해상보험 실적 감소는 중소형보다 대형 손보사가 컸다. 중·소형사의 경우 오히려 원수보험료가 늘어난 곳도 있었다.

**손보사 해상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등 빅4의 실적은 일제히 하락했다. 삼성화재의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2015년 1612억 원에서 2016년 988억 원으로 38.6% 감소했다. 이밖에 현대해상 6%, KB손보 17%, DB손보 15% 각각 감소세를 보였다. 중소형사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컸다.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농협손보는 같은 기간 해상보험 원수보험료가 감소했지만 롯데손보 같은 경우 223억1900만 원에서 241억1100만 원으로 오히려 20억 원 가까이 늘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조선·해운사는 주로 대형 손보사들의 해상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조선·해운 업황에 따라 대형사들이 입는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중소형사는 상대적으로 이런 경향성이 덜 드러난다"고 전했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 최종구 "은행, 구조조정 채권 보유 최선 아니다"

〈금융위원장〉

### 기업구조혁신 지원방안 추진 간담회 "캠코 구조조정 기능 미진" 쓴소리도

### 캠코·성장금융·은행 5000억 출자 생산·취업유발 '中企 재기' 기회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채권을 은행이 계속 보유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새로운 기업구조혁신 지원방안 추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업과 자본을 연계하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존 채권은행들의 보수적 채권관리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는 비판이다.

최 위원장은 캠코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구조조정기금이 정리된 2015년 이후로는 캠코의 기업구조조정 기능이 미진했다는 것이다. 특히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구조조정채권이 결집되지 못하고 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보증기관에 흩어져 부실채권(NPL)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매각·정리되는 사례를 적시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새로 출범해 유암코 등 기존 구조조정 주체들과 경쟁체제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날 캠코와 한국성장금융, 은행 8곳은 기업구조혁신펀드의 모펀드에 5000억 원을 출자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정부가 4월 발표한 8조 원 규모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 목표의 첫 수행 절차다. 이번 5000억 원 투자에 이어 민간투자자들의 투자금액까지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1조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회생기업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기업과 채권은행, 회생법원을 연계하는 경영정상화 지원 프로그램을 내년 3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서울회생법원과 인프라를 구축해 채무자회생법상 사전계획안 제도(P플랜)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P플랜은 9월 유암코 주도로 성우엔지니어링 인수에서 처음 적용됐을 뿐 채권은행이 주도한 사례는 없다.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모델이 제시됐지만 아직 P플랜에 대한 채권단 인식은 부정적이다. 이에 법원(법관·관리위원)과 금융당국·캠코·국책금융기관 간 정례 협의회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늘려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캠코 지역본부 내 27곳의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요자(자본시장)과 공급자(기업) 간 매칭을 돕고 정보비대칭을 완화한다. 자율협약 또는 워크아웃 단계(신용위험평가 B~C등급) 기업이나 회생절차기업(D등급) 각각에 맞는 적격투자자를 연계한다.

최 위원장은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을 통해 생산유발 2조 원, 취업유발 1.1만 명 효과가 기대된다"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 재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 사학연금 여의도회관, 40층 건물로 탈바꿈

### 4600억 투입 내년 말부터 재건축

사학연금이 내년 12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여의도 회관의 재건축을 시작한다. 4600억 원을 투입해 2022년 40층 고층건물을 탈바꿈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15일 여의도회관 입주 기관에 내년 12월까지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통보했다. 이달 초 사학연금 여의도회관 재건축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 조처다.

사학연금은 내년 말 여의도회관의 재건축에 들어가 2021~2022년 해당 건물을 완공할 예정이다. 1982년 지어진 여의도회관은 현재 지상 20층, 지하 3층 구조이며 건물면적은 4만1608㎡다. 사학연금은 재건축을 통해 40층 고층건물로 해당 회관을 탈바꿈할 계획이다.

사학연금의 서울 여의도회관 재건축이 완료되면 인근에 위치한 교직원공제회의 27층 신사옥, 우정사업본부의 33층 빌딩 등과 함께 연금·공제회 기관들이 여의도 스카이 라인을 형성하게 된다. 사학연금은 내년 초 재건축을 담당할 설계 및 시공자를 정할 예정이다.

사학연금의 여의도회관 재건축 사업비는 4600억 원가량이다. 이 중 일부 자금은 부동산 전문투자 펀드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사학연금은 2018년 예산안에 여의도회관 재건축 비용 129억1100만 원을 반영했다. 여의도회관 재건축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 비용은 13억 원 안팎이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한양사이버대학교
www.hycu.ac.kr
당신에게도
배우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2018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모집기간 2017년 12월 8일(금) ~ 2018년 1월 12일(금)
한양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 go.hycu.ac.kr
문의전화 : 02)2290-0082
인문사회 계열
상담심리학부(상담심리학과, 미술치료학과, 청소년상담학과), 아동학과, 교육공학과, 영어학과, 일본어학과, 부동산학과,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시설경영전공, 사회복지서비스전공, 사회복지상담전공), 보건행정학과, 법학과, 경영학부(경영정보학과, 글로벌경영학과, 마케팅학과, 서비스생산물류학과, 인사조직·전략벤처학과, 재무회계세무학과), 경제금융학과, 광고미디어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관광호텔경영학과, 호텔조리외식경영학과), 실버산업학과
공학계열
컴퓨터·정보보호공학부(컴퓨터공학과, 해킹보안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부(전기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기계자동차공학부(기계제어공학전공, 자동차IT융합공학전공),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디자인 계열
디자인학부 (공간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뉴미디어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디자인기획전공)

D&G는 올해 기아차 슈퍼볼 광고인 '영웅의 여정'을 제작해 광고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 사진제공 기아자동차

# 기아 '슈퍼볼 감동' 이노션이 맡는다

〈현대차그룹 글로벌 광고 담당사〉

**기아차 광고 대행사 'D&G' 인수**
**스포츠 이벤트 신차 마케팅 활용**
**M&A로 사업영토 대폭 확장**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광고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노션이 인수합병(M&A)을 진행하며 사업영역을 키우고 있다. 그동안 기아자동차의 북미 크리에이티브 마케팅을 대행하던 '데이비드&골리앗(D&G)' 인수를 통해 기아차의 광고 수요와 함께 외부 일감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8일 현대차그룹과 광고업계 등에 따르면 이노션이 이번에 인수한 D&G는 기아차뿐 아니라 유니버셜 스튜디오, HBO, 잭인더박스 등 굵직한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다. D&G의 실적이 내년부터 이노션의 연결 수익으로 인식되면서 이노션의 실적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지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이노션의 내년 매출총이익 내 미주 비중은 55%로 추정돼 전년 대비 8% 오를 전망"이라며 "2019년부터는 미국 세제 개편안에 따라 법인세가 기존 35%에서 2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돼 해당 수혜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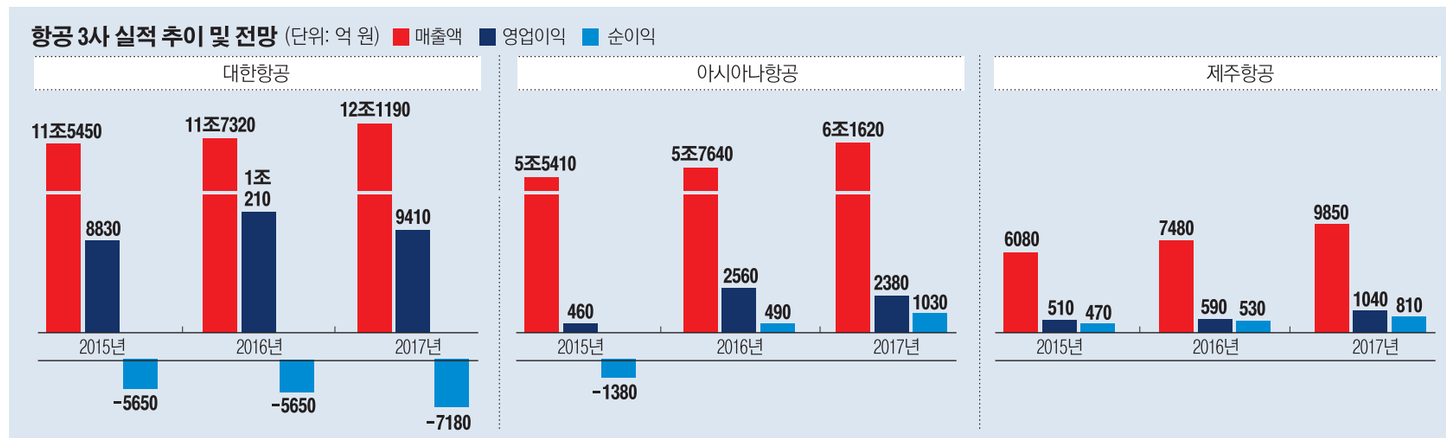
D&G는 18년 동안 기아차의 광고를 대행해 왔다. 특히 기아차 '쏘울'의 햄스터 광고는 세계적인 권위의 '에피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다. 올해 초 슈퍼볼에서 선보인 '니로' 광고 '영웅의 여정(Hero's Journey)'은 광고선호도 조사에서 1위, 칸 국제광고제 본상을 기록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기아차는 내년에도 9년 연속으로 슈퍼볼 광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간 D&G가 기아차의 슈퍼볼 광고를 담당해온 만큼 인수 후에는 이노션이 이 광고를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슈퍼볼은 미국프로풋볼(NFL)의 결승전으로 미국 최대의 스포츠 행사다. 광고 단가도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슈퍼볼 광고는 30초에 60억 원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광고로 유명하다. 현대차의 경우 내년에 광고를 진행하면 총 10번째 광고를 집행하게 된다.

문 연구원은 "광고주인 현대차와 기아차의 신차 출시는 내년에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라며 "미국 슈퍼볼, 호주 테니스 오픈, PGA 제네시스 오픈 등의 스포츠 이벤트들도 신차 마케팅을 위한 무대로 활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 4분기 실적에 쏠린 항공업계, 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1년 경영 성적표' 가름 관심 집중**
**2년 연속 영업익 1조·당기순이익 5년 만의 흑자 여부 촉각**
**경영악화 아시아나 불안 여전…제주항공 年매출 1조 기대**

지난 3분기 성수기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항공업계가 4분기 실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역대 최장이었던 10월 추석 황금연휴로 인해 성수기 이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각 회사별 실적 이슈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올해 실적이 조원태 사장 취임 1년의 경영성적을 가름할 수 있는 만큼 마지막 성적표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경영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실적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입장이다. 제주항공은 올해 매출 1조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 항공3사, 4분기 실적 컨센서스 13% 늘어 = 18일 항공업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4분기 항공3사(대한·아시아나·제주항공)의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8월 이후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2% 감소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금액으로는 3분기 컨센서스가 817억 원 줄어든 반면 4분기는 338억 원 늘었다. 기대에 못 미친 3분기 실적 부진의 41%가 4분기로 이연된 셈이다.

3분기 성수기 효과가 4분기로 분산되면서 항공사들은 3분기 실적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2년 연속 1조 원대 영업이익, 5년 만에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경우 4분기 실적에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만약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될 경우 올해 초 취임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1년 성적표도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사장은 취임 이후 한진그룹 주력사업인 항공 부문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어왔다. 이에 조 사장은 안정적인 이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국발 사드 보복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8.5%는 172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3분기에는 22.7% 감소한 355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환차손, 고유가 리스크에도 선방했다는 평가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10월 추석연휴 수혜와 화물 성수기 효과에 힘입어 4분기 실적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며 "여기에 원·달러 환율하락은 항공기 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이익으로 이어져 대한항공의 흑자전환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는 여전히 '불안'… 제주항공은 '기대 만발' = 아시아나항공도 올해 4분기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8.6%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경영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으로서는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실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기대에 못 미치는 영업실적과 함께 과중한 재무 부담으로 유동성 위험성이 커지면서 신용등급까지 낮아졌다.

이에 반해 제주항공은 LCC 최초 연간 매출 1조 원 달성을 위해 4분기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 3분기 매출 2666억 원, 영업이익 404억 원을 거두며 회사 설립 12년 만에 분기 기준 사상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4분기 실적까지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경우 제주항공은 올해 업계 최초로 매출 1조 원, 영업이익 10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선영 기자 moon@

# '슈퍼 호황' 올라탄 화학社 내년 배당 축제 이어갈까

**LG화학, 역대 최고 규모 약속**
**롯데케미칼도 배당 기대감 커져**
**올해 인상 한화케마칼 동결할 듯**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석유화학업계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LG화학이 역대 최고 규모의 배당금을 약속하면서 국내 화학사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LG화학은 지난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내년 총 4600억 원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공시했다. LG화학은 올해 결산 배당을 작년보다 20% 내외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각각 5000원, 5050원이던 보통주와 우선주가 내년 6000원, 6050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LG화학의 올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9조2658억 원, 영업이익은 2조31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4%, 33.9% 상승했다. 증권업계는 올해 LG화학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2조9928억 원으로 보고 창사 이래 최초로 영업익 3조 원을 전망했다.

LG화학이 이 같은 실적을 거둔 배경으로는 석유화학 부문의 시황 호조와 LG화학의 전지부문, 정보전자소재, 생명과학, 팜한농 등의 고른 실적 개선 때문이다. 올해 화학업계는 '석유화학업계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이 미국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미 지역 설비 가동이 중단되면서 반등한 제품가격으로 호실적을 이어갔다. 또한, 벤젠, 파라자일렌(PX), 부타디엔(BD) 등의 수요 증가로 인한 제품 가격 상승세가 실적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정호영 LG화학 CFO 사장은 "올해 3분기 기초소재부문에서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전지부문에서도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등 정보전자소재부문, 생명과학부문 등 전 부문이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기록한 롯데케미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롯데케미칼의 3분기 매출액은 3조9902억 원, 영업이익은 7662억 원이다. 증권업계는 롯데케미칼이 LG화학과 마찬가지로 3조 원대 영업이익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롯데케미칼의 배당금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소재부문이 비수기로 진입하는 4분기에도 화학업계의 높은 실적 창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롯데케미칼은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갈 전망이다.

롯데케미칼은 현재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유화단지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 폴리에틸렌(PE) 생산 공장의 원료 안정화를 위해 부근에 추가로 에틸렌을 생산하는 NCC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화케미칼은 PVC를 기반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 고부가 화학제품인 염소화폴리염화비닐(CPVC) 등에 대한 수요를 넓히고 있다. 다만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으로 배당금을 350원 늘렸던 한화케미칼은 내년 배당금을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류정훈 기자 jungh216@

〈LG유플러스 부회장〉

# 권영수 "네이버와 AI 동맹…홈 미디어 선도할 것"

**LG U+, 네이버 클로바 탑재한 AI 스마트홈 서비스 'U+ 우리집 AI' 출시**

"인공지능(AI) 분야 최고 기술력을 가진 네이버와 함께 홈 미디어 사업을 선도하겠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18일 용산 사옥에서 네이버와 공동으로 AI 서비스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부회장은 "우리가 가진 IPTV, 사물인터넷(IoT)과 네이버 AI 플랫폼 '클로바'를 접목해 국내 최고 수준의 AI 스마트홈을 공동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자사 홈 IoT, IPTV 등 다양한 제휴 콘텐츠를 네이버 AI플랫폼인 클로바와 접목한 AI 스마트홈 서비스 'U+우리집AI'를 선보였다. 당초 자체적으로 AI 스피커를 개발하려 했지만 내부 사정으로 관련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네이버의 AI 플랫폼 클로바와 제휴하는 쪽으로 계획을 선회했다. 클로바를 탑재한 네이버 AI 스피커 '프렌즈+'로 U+우리집AI를 구동하는 방식이다.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국내 최고 수준의 음성인식률 및 자연어 처리 성능을 갖춘 클로바에 자사 IoT와 IPTV 등을 결합해 단기간 내 AI 스마트홈 시장을 장악하겠단 전략이다. 현재 LG유플러스 홈 IoT 가입자는 100만 명, 시장 점유율 71%로 업계 1위다.

LG유플러스 모델들이 프렌즈+ 및 이와 연동된 U+tv, 홈IoT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U+우리집AI는 네이버 AI 스피커 프렌즈를 개량한 '프렌즈+'를 통해 음성검색을 지원한다. 예컨대 VOD 제목을 몰라도 '눈물 쏙 빼는 영화', '브래드 피트 나온 90년대 영화'처럼 장르, 배우, 감독, 출시 시기 등의 키워드를 말하면 원하는 영화나 TV 콘텐츠를 쉽게 찾아낸다.

U+우리집AI는 또 다양한 종류의 홈 IoT 제품을 동시 제어할 수 있다. 40여 종의 LG유플러스 IoT 기기 중 조명, 스위치, 플러그, 에어컨, 가습기, 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 등 집 안에서 자주 사용되는 제품이 스피커와 연동해 말 한마디로 여러 개의 기기가 동시에 작동된다.

U+우리집AI는 네이버의 인공지능 통·번역 서비스인 '파파고' 엔진을 탑재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국어 번역 기능과 영어 회화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내년 1월까지 U+인터넷 가입고객 중 U+tv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과 IoT 패키지 상품 5종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 한해 U+우리집AI 스피커 프렌즈+를 무료로 제공한다. 더불어 LG유플러스와 제휴를 쇼핑숍에서 주문과 결제를 말로 하는 '음성쇼핑'도 지원한다.

김범근 기자 nova@

# SK디앤디, 산업용 ESS 신흥강자로

**사업진출 5개월 만에 급부상**
**대성산업가스와 통합구축 계약**

SK디앤디가 산업용 가스 제조 및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인 대성산업가스와 110MWh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통합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ESS 사업에 진출한 지 5개월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산업용 ESS 시장의 신흥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SK디앤디는 18일 대성산업가스 4개 사업장에 ESS 통합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 대성산업가스 대전공장의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구미, 여천, 울산공장에 순차적으로 ESS를 구축할 계획이다.

SK디앤디는 7월 ESS 사업에 진출한 뒤 ESS 운영의 핵심기술인 전력관리시스템(PMS)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춘 그리드위즈와 ESS 공동사업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차별화된 ESS 운영 기술을 확보한 바 있다.

대성산업가스는 당초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해 자체 투자 방식의 ESS 도입을 검토했으나, SK디앤디의 'ESS 토털 솔루션(Total Solution)' 제공 사업 제안을 받아들여 재원 조달부터 설치, 운영, 유지보수까지 ESS 사업 전반을 SK디앤디가 수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성산업가스는 일체의 투자 및 운영 부담 없이 전기요금을 절감하게 돼 손익구조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요금 절감액은 15년의 사업기간 약 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SK디앤디와 대성산업가스가 절감액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게 된다. 이번 계약을 토대로 SK디앤디는 산업용 ESS 분야의 확고한 선도 회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수의 사업장에서 산업용 ESS를 직접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와 PMS 기술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내년 말까지 700MWh 규모의 ESS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 롯데면세점, 海外에서 '길'을 찾다

**국내 업계 첫 베트남 다낭공항 진출**

**115개 브랜드 입점… 年매출 300억 무난**

**태국 시내면세점 연계 東南亞 마케팅 교두보**

**日 도쿄 긴자면세점 하루 매출 1억3000만원**

**事前·事後면세점 한 곳서 동시운영 특징**

**현지인 매출 작년의 2배 중국 보따리商도 늘어**

롯데면세점이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왕성하게 구사하면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11월 1일 그랜드 오픈한 베트남 다낭공항점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면세점, 태국 방콕 시내면세점, 일본 긴자 시내면세점 등 해외 6곳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면세점은 사드의 영향으로 급감한 매출 타격을 동남아 시장에서 만회하겠다는 구상이다.

롯데면세점은 국내 업계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해 5월 연간 400만 명의 여행객을 수용하는 다낭국제공항 신터미널에 다낭공항점을 1차 오픈한 데 이어 11월 1일 그랜드 오픈했다. 베트남 다낭공항점은 총 1091㎡(330평) 규모로 출국장 면세점(974㎡)과 입국장 면세점(117㎡)을 함께 운영한다.

입국장 면세점은 주류, 담배, 화장품, 비치웨어 브랜드 등을, 출국장 면세점에는 주류, 담배, 화장품, 시계, 액세서리 , 아이웨어 매장 등을 운영한다. 115개의 브랜드가 입점한 가운데 정관장, 라인프렌즈 등 14개의 국산 브랜드도 동반 진출했다.

롯데면세점은 다낭공항점이 연간 300억 원의 매출 목표를 어렵지 않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을 감안해 다낭 시내면세점 오픈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하노이, 나트랑, 호찌민 등 베트남 내 주요 지역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베트남 나트랑 국제공항 신터미널 면세점 단독 운영권도 획득해 내년 상반기에 개장할 예정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다낭공항점 오픈으로 동남아 시장 공략이 더욱 견고해졌으며 6월 오픈한 태국 시내면세점과 연계한 동남아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이 지난해 3월 일본 도쿄 긴자의 도큐플라자 2개 층에 오픈한 시내면세점도 오픈 초기부터 지난해 말까지는 일평균 매출이 7000만 원 선에 그친 데 비해 올해 1~11월에는 일평균 매출 1억3000만 원을 달성해 전년 대비 80%의 성장세를 보였다. 화장품, 시계 등 170여 개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긴자 시내면세점은 소비세뿐 아니라 관세까지 면제받는 제품을 판매하는 사전 면세점(Duty Free)과 구매 후 소비세를 환급받는 사후 면세점(Tax Free)이 한 곳에서 운영되는 게 특징이다. 비중을 살펴보면 사전 면세점 80%, 사후 면세점 20%가량이다.

김보준 롯데면세점 일본법인장은 "일본 긴자 시내면세점은 일본을 찾는 외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본인 고객이 많이 찾고 있다. 일본인 고객의 매출은 올 들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면세점의 큰손인 중국과 홍콩 보따리상의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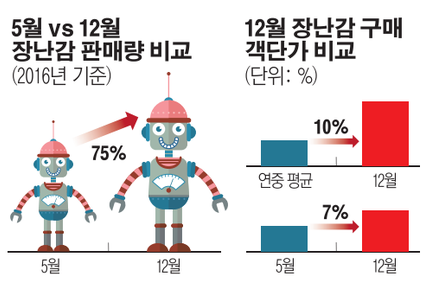
롯데면세점은 해외 시장에서 현지화 전략이 진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 한국 대신 일본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까지 고객으로 영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판단 아래 해외 면세점을 꾸준히 확대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동남아 시장은 연 7%에 달하는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 시장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운 면세점들이 신흥시장 공략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장난감 판매로 본 '어린이 명절'은 크리스마스

**12월, '어린이날' 있는 5월보다 75% 더 팔려… 평균 구매價도 7% 높아**




"산타가 아빠를 이겼다!" 연중 장난감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가 '어린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 5월이 아니라 12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G마켓은 지난해 장난감의 월별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12월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12월은 어린이날이 있는 5월보다 판매량이 무려 75%가량 많았다.

장난감 월별 판매 비중도 12월이 14%로 연중 가장 높았다. 어린이날을 앞둔 4월이 10%로 뒤를 이었다. 5월은 8%를 차지하며 평균 수준에 머물렀다.

가장 비싼 장난감을 사는 시기 역시 12월로 나타났다. 작년 월별 장난감 판매 건수에 따른 평균 구매액(객단가)을 살펴본 결과 12월 장난감 구매 단가는 연평균보다 10%가량, 가정의 달인 5월에 비해서도 7%가량 높았다.

12월 인기 장난감으로는 '캐릭터·패션 인형'이 전체 판매량의 23%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팔렸다. 이외에 '작동완구'(21%), '국내 브랜드 완구'(21%)가 뒤를 이었다. '캐릭터 완구'와 '봉제인형', '프라모델·모형조립'이 각각 18%를 차지하며 인기 장난감으로 꼽혔다.

백민석 G마켓 마트실장은 "산타의 선물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아이들의 동심을 생각해 가족은 물론 주변 친인척들이 어린이날보다 크리스마스에 좀 더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며 "선물 품목도 어른들이 선호하는 교구류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작놀이나 작동 완구 등이 더 인기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G마켓은 연말 시즌을 맞아 24일까지 다양한 완구를 할인 판매하는 '해피 메리 TOY'S MAS' 기획전을 진행한다. 매일 다른 완구를 특가로 추천하는 '토이 딜'을 통해 인기 완구를 파격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브랜드별 추천 장난감' 코너에서는 영실업, 레고, 미미월드, 헤즈브로 등 인기 브랜드 완구를 최대 43%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건담이나 피규어, 보드게임을 즐기는 아이를 위한 '당신을 위한 장난감 #키덜트' 코너도 준비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 인공지능이 찾아낸 슈퍼푸드 '카카오닙스'

**1000만개 소비자 반응·정보 빅데이터 분석**

**노화방지 식품 관심 높아… 업체들 제품화**

**빼빼로 카카오닙스·茶음료도 출시**

롯데제과 '빼빼로 카카오닙스'와 일동후디스 '후디스 카카오닙스차'.

식음료업계가 노화 방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슈퍼푸드를 활용한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슈퍼푸드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체내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이다. 그동안 알려진 대표적인 슈퍼푸드로는 아몬드와 블루베리, 브로콜리, 연어 등이 있다.

최근 들어 식음료업계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슈퍼푸드는 카카오닙스다. 카카오닙스는 카카오 열매를 원물 그대로 발효해 로스팅한 알갱이로, 폴리페놀 성분이 다량 함유돼 인기가 높다. 폴리페놀의 경우 체내의 유해산소를 무해한 물질로 바꿔 주는 기능이 있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닙스는 또한 식이섬유와 칼슘, 마그네슘 등의 영양소가 풍부한 것으로 유명하다.

롯데제과는 최근 인공지능(AI)을 통해 소비자 트렌드를 분석, '빼빼로 카카오닙스'를 출시했다. IBM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롯데제과는 AI 왓슨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된 1000만여 개의 소비자 반응 및 정보를 수집한 결과 과자와 초콜릿 부문에서 카카오닙스, 깔라만시 등이 앞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분석했다. 롯데제과 측은 "이번 분석을 통해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향후 카카오닙스 등이 식품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일동후디스는 '후디스 카카오닙스차'를 선보였다. 일동후디스는 녹차와 홍차 대비 최대 16배의 폴리페놀이 함유된 카카오닙스를 액상차 형태로 출시해 인기를 얻고 있다. 기존에 출시된 카카오닙스는 그 자체로 씹어 먹어도 되지만 특유의 씁쓸한 맛이 있기에 요거트 등을 함께 먹어야 했다. 이번에 출시된 카카오닙스차의 경우 풍미는 강하지만 맛은 물과 유사해 소비자 입맛을 배려했다는 평가다.

일본에서는 이미 2년 전부터 슈퍼푸드가 식품 시장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오사카 무역관에 따르면 이러한 흐름은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한 결과다.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내 역시 카카오닙스 등을 활용한 식품시장 공략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노화 방지 역할을 하는 카카오닙스 활용 제품의 인기도 점차 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 "실패도 자산이 되는 시대…SOC보다 디지털·휴먼 투자 시급"

김성식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은 13일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4차산업혁명을 "익숙한 기득권과 과거의 성공 방식으로부터의 결별, 헤어짐"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다리, 도로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휴먼 투자가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 초대석

## 김성식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

국회 의원회관 844호.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의 방에 놓인 큼직한 화이트보드엔 깨알 같은 메모들이 가득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게 된 김 의원이 특위 운영과 관련한 구상 등을 빼곡히 적어놓은 것이다. 김 의원은 '영업비밀'이 노출됐다면서 너스레를 떨었지만, 드러난 내용은 특위를 이끌 위원장으로서 그가 품은 열의와 설렘이었다.

김 위원장은 13일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4차산업혁명특위가 다른 특위와 달리 국가 미래를 좌우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위 활동기한이 우선 6개월인 점을 감안, 핵심 어젠다를 꼽아 집중적인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각오다. 특위 본격 가동 전 영화 'HER', '블레이드 러너' 등 대중문화를 섭렵하고 '4차산업혁명의 충격', '한국형 4차산업혁명의 미래', '한국의 경제생태계' 등 전문서적을 읽으면서 국민 눈높이에서부터 단계를 높여가며 특유의 학구열로 4차산업혁명에 접근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민간 주도로 혁신하되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 김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을 익숙한 기득권과 과거의 성공방식으로부터의 결별, 헤어짐" 이라고 정의내렸다. 그는 "과거처럼 정부가 '10대 과제'를 꼽고 민간은 정부 예산에 기대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면서 "그간의 배타적 혁신 구조를 개방적으로, 혁신 자체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에는 어떤 기술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 정부가 선구안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해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간이 선도하면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가 입법적인 틀을 마련하는 개방적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기업 생태계 혁신, 인적자원 확보,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대기업은 물론 창업과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이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인적자원을 어떻게 확보해 양성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실패 없는 성공 자체를 성공으로 인정했다면, 이제는 실패가 자산이 돼 성공하는 시대"라면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 간 공정한 생태계를 이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엔 정부 주도 대기업 위주로 성장**
**4차 산업혁명, 민간주도로 혁신하되**
**위험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필요**
**미래 핵심 인적자원 투자 예산 확보를**
**27일 공청회 시작…민간 목소리 경청**

◇"'노키아' 가고 '앵그리버드' 와 … 고용보험 강화 통한 인재 재교육 필요" = 김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데 있어 사회 시스템 혁신과 동시에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제대로 실행돼야 한다"면서 "미래의 핵심은 사람인 만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핀란드 경제의 4분의 1을 주도했던 노키아의 붕괴에서 수백 개의 스타트업이 탄생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앵그리버드' 모바일 게임을 세계적으로 히트시킨 로비오와 '클래시오브클랜' 모바일 게임을 만든 슈퍼셀이 대표적이다. 핀란드 경제의 거목(노키아)이 쓰러진 자리에 오히려 건강한 씨앗(스타트업)이 살아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노키아가 망했다고 노동자들이 공장 점거했단 뉴스를 본 적 있나"라면서 튼튼한 고용보험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가 예상되지만 자본주의 경쟁 체제에서는 잃는 일자리만큼 새로운 일자리도 탄생할 것"이라면서 "이런 일자리 변화에 맞는 직업 재교육, 창의훈련 등의 직업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공무원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인적자본을 키우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다리, 도로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휴먼(human) 투자가 더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공청회 시작, 민간 목소리 경청 "정부와는 생산적 경쟁관계" = 김 위원장은 특위 운영에 있어 우선 민간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위원 한 명당 하나의 어젠다를 세워 향후 입법 작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를 넘기기 전인 27일 공청회부터 시작한다.

김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관련 의제들을 모두 다루는 건 불가능하다. 위원 한 명당 하나씩 의제를 책임지고 비공개 간담회도 자주 여는 등 4차산업혁명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첫 공청회를 두고는 "대한상공회의소, 혁신벤처협의회, 엔젤투자협회, 스타트업 및 관련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혁신 창업에 대해 들어보려고 한다"면서 "실질적으로 입법화할 것은 무엇인지, 규제 해소와 기타 혁신을 위해 지원할 부분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특위 외에도 타 상임위별로도 같이 논의하면서 다양한 입법 시도를 할 것"이라면서도 "법안 이름에 4차산업혁명을 넣고 안 넣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땜질, 생색내기, 구색 갖추기 식의 특위 운영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한편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와는 '생산적 경쟁관계'라고 규정했다. 그는 "업무를 분담하는 진행형 단계이지만 실질적 예산작업을 하는 정부와 입법 의지를 모으는 국회의 역할은 다르다"며 "과거 산업혁명과 다른 오픈 이노베이션 시대에 맞게 제도와 시스템을 혁신 친화적으로 바꾸는 데는 협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늬 기자 honey@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 법인세 인상時 '증세 사각지대' 꼬집은 政策通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인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국회에서 손꼽히는 정책통이다. 소속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정책 관련 입장을 밝힐 때에 "김성식 의원도 마찬가지", "김성식이한테 물어보라"면서 자주 김 의원을 '끌어다쓰기'도 한다. 여야 모두에게서 식견을 인정 받고 있다는 의미다.

당 복지및조세재정개혁TF 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달 5일 내년도 예산안 및 법인·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법안 처리 전 반대토론에 나서 법안 통과를 '위태롭게' 만들기도 했다.

김 의원은 1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법인세 인상 자체에 반대했던 게 아니라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서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구간을 증세 사각지대로 만든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이 표계산을 해 법인세를 누더기로 만들면 '지속가능한 복지'는 허구가 되고, 미래세대에 부채를 넘기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시 우리 당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온 것도 제 의견에 동조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세입기반을 튼튼히 해야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데, 답답하고 걱정된다"며 "앞으로 조세, 복지 체계 역사에서 두고두고 짚어질 부분으로 정부의 성찰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 준비와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엔 "최소한의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경청할 만하나, 아직은 논의를 쌓아가야 할 때"라고 평했다. 그는 "로봇세, CPU(중앙처리장치)세 등 노동 전략적인 곳을 골라 특별세금을 거두자는 주장이 있는데 결국 제도 도입 시엔 조세를 어디서 구할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1958년 부산 출신으로, 서울 관악갑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이다.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에서 정치를 시작해 손학규 경기도지사 시절 도 정무부지사를 지냈고, 18대 총선에서 첫 금배지를 달았다.

김미영 기자 bomnal@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데이타시스템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 신한금융그룹

# 서울 '供給 절벽'… '로또 請約' 부추기나

## 내년 1월 분양물량 '0'…분양가 상승 '뚝' 거래가는 '쑥'

## 재건축·신혼희망타운 시세차익 기대 '쏠림 현상' 예상

내년 초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바닥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로또 청약' 열풍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분양가는 같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또 내년 서울 분양아파트에 재건축 단지와 신혼희망타운 등이 포함돼 유망 지역으로의 청약시장 쏠림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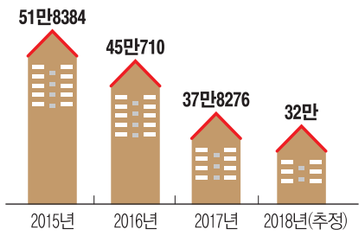
18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내년 1월 서울 분양아파트 단지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아파트 16개 단지, 6375가구가 분양된다. 수도권에는 9개 단지, 386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32만여 가구로 추정된다.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15년 51만8000여 가구, 2016년 45만여 가구, 2017년 37만8000여 가구였던 것과 비교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는 셈이다.

분양 물량이 이처럼 감소하는 배경에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건설사가 분양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대출 한도를 줄인 8·2 대책과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아파트 집단대출 강화 등 건설사의 분양 위험성이 커지면서 공급도 자연히 줄게 된 것이다.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도 재건축 아파트 분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공급이 줄어드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은 큰 폭으로 빠지고 있다. 부동산인포가 '부동산114 서울 아파트 분양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5%였던 서울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률이 올해(12월 1주까지 집계)는 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 추이** (단위 : 가구)




내년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 서울 분양가는 앞으로도 상승률을 더 키우기 어렵다.

반면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2월 4일 기준 전년 말 대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5.09%를 기록했다. 분양가와 일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자연히 분양받아 낮은 가격으로 신축 아파트를 사고 시세차익을 보려는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때문에 낮은 분양가로 인한 수요와 줄어든 공급이 맞물려 '로또' 청약 광풍이 불어올 것이란 관측이 이어진다. 또한 내년 서울 분양시장에는 투자 수익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들이 나올 예정이어서 이 열기에 기름을 붓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내년 서울은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 일반 분양 물량들이 포진해 있고 신혼부부희망타운 같은 물량도 일부 포함돼 나올 예정"이라며 "분양가상한제가 현실화돼 건설사도 무분별이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 등 일부 유망 지역은 청약시장 쏠림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혼부부희망타운 아파트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수준을 형성할 예정이라 분양받을 시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이명박 정부 당시 도입된 강남 보금자리주택도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간 경우가 있었다"며 "반값 아파트로 불리면서 그때도 당첨되면 '로또'란 말이 나왔다"고 말했다.

반면 유망지역이 아닌 경우 미분양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대출 규제로 한정된 자원이 유망 투자처로 쏠리면서 청약시장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신철 기자 camus16@

---

**주목! 이곳** 현대산업개발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 3042가구…운정新都市 최대 랜드마크 단지

## GTX A노선 연장 서울역 10분대

## 3.3㎡당 1120만원 예상보단 높아

파주 운정신도시 내에 최대 규모로 공급하는 대형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현대산업개발이 15일 파주시 미래로 396에 개관한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견본주택에는 이날 오전 11시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족히 100명은 넘어 보이는 대기열이 늘어섰다.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공공택지인 파주운정택지개발지구 A26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30개동, 전용면적 59~109㎡ 총 3042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이 중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인 2505가구는 국민주택으로, 전용 85㎡ 초과 537가구는 민영주택으로 공급된다. 3042가구는 운정신도시 내 전체 아파트 단지 중 최대 규모다.

단지가 가장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개발 호재는 단연 GTX A노선 연장이다. 예정대로 2023년에 GTX A노선이 개통되면 서울역까지는 10분대, 강남까지도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어 서울 내 주요 업무지구까지의 접근성이 부쩍 높아질 예정이다.

GTX A노선이 인근 아파트 단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사실은 이전에 분양한 단지들의 분양 추이에서도 드러난다. 운정신도시에서 현대건설이 2015년 11월 분양한 2998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운정'은 분양 초기 2700여 가구에 달하는 대형 미분양이 발생했지만 GTX 연장 호재가 발표된 이후 급속도로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기 시작해 현재는 4000만~5000만 원의 프리미엄까지 붙었을 정도로 GTX 개통 호재가 인근 단지에 미친 영향은 막대하다.

15일 개관한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견본주택에는 오전 11시께 긴 대기열이 늘어서 있었다. 김정웅 기자 cogito@

다만 단 한 가지 방문객들의 아쉬움을 자아낸 요소는 가격이었다. '운정신도시 아이파크'의 3.3㎡당 분양가는 1120만 원이며 공공분양 주택인 전용 85㎡ 이하 가구의 경우 59㎡는 2억6000만~2억8300만 원, 84㎡는 3억6100만~3억87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서울에서라면 대단히 저렴한 가격이겠지만, 이곳은 파주인 데다, 그중에서도 공공분양주택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욱 저렴할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이 파주·일산 등에서 찾아온 방문객들의 반응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단지가 들어설 파주시 동패동 아파트의 현재 3.3㎡당 매매가는 831만 원이다.

청약일정은 18일~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22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9일이며 민영주택 계약은 내년 1월 9일~11일, 국민주택 계약은 같은 달 17~19일까지 진행한다. 입주는 2020년 7월로 예정돼 있다.

김정웅 기자 cogito@

## 광명 뉴타운 지정 10년 만에

## GS·두산 '에코자이위브' 첫 분양

'광명 에코 자이위브'가 경기권의 대표적 재개발 사업지인 광명뉴타운 분양의 포문을 연다. 광명시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나오는 첫 단지이기도 하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GS건설·두산건설이 경기도 광명시 광명뉴타운 16R구역에 지어올리는 '광명 에코 자이위브' 단지가 이번주 분양시장에 나온다. 광명뉴타운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일대 11개 재개발구역, 114만6000여㎡ 규모로 2007년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이번 단지는 10년 만에 나오는 첫 분양단지다. 모든 개발이 완료되면 총 2만5000여 가구가 들어선 신주거 타운으로 조성된다.

이번 단지는 총 2104가구 규모로 일반 물량이 914가구에 달한다. 모든 가구가 84㎡ 이하 중소형으로, 이 중 소형은 전체의 80%가량을 차지한다.

평균분양가는 3.3㎡당 1750만 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59㎡는 약 4억3000만 원, 84㎡는 6억 원이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

##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엔지니어링

# 합병설 다시 모락모락…인력 감축이 변수

최근 건설업계의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형건설사들의 계열사 간 합병설이 다시 솔솔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건설사들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건설 계열사 합병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관련 업계의 관심 역시 높은 상황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당시 주문한 시한이 다가오면서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장설과 현대건설과의 합병설이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 위원장은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5대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청사진을 요구한 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 3사의 인적분할 및 합병을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보고 있는데 이 경우 정의선 부회장의 그룹 승계를 위해서 지주사의 지분 확보는 필수적이다.

현재 정 부회장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지분 11.72%를 보유하고 있고 현대글로비스 지분 23.2%를 가지고 있다. 두 회사의 지분 평가액만 1조7000억 원대에 달한다. 만약 현대엔지니어링이 상장할 경우 정 부회장의 지분 가치는 수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장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대건설과 합병할 것이라는 전망 역시 오래 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차그룹으로 편입된 후 사옥을 서울 목동에서 현대건설 본사가 있는 계동으로 옮겼다. 현대차 그룹 건설사인 현대엠코와 합병 역시 이 시기에 이뤄졌다. 이후 현대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인 '힐스테이트'를 같이 사용하며 한 집안 식구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내년 초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삼성엔지니어링 본사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두 회사의 합병설 역시 제기되고 있다. 회사 측은 월세를 아끼는 등 경영 효율화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현재 사옥인 판교로 이전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았고 서울 접근성을 고려하더라도 판교와 강동이 큰 차이가 없다.

때문에 두 회사의 합병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삼성물산 내 사업을 정리하면서 업종이 겹치는 건설 부문을 떼어내 삼성엔지니어링과 합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실제 이미 이들 회사는 최근 1~2년여 동안 각종 구설에도 꿋꿋하게 구조조정과 조직 개편을 진행하면서 조직 슬림화를 상당부분 진행시켰다.

합병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후폭풍 역시 적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창사 43년 만에 노조가 설립되며 투쟁을 예고하고 있고 삼성물산도 이미 이로 인한 홍역을 겪은 바 있다. 또한 현 정부가 '일자리'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만큼 이 역시 부담이 될 전망이다.

구성헌 기자 carlove@

---

# 0.31% 0.62% 0.71%…어느 게 맞죠?

## 최영진의 현안진단

**동일 지역 아파트 값 상승률**
**감정원·은행·민간기관 제각각**
**조사대상 차이 어쩔 수 없지만**
**좀더 공신력 있는 지수 만들어야**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커졌다고 한다. 강도 높은 규제책과 금리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는 집을 팔려는 입장에서는 계속 보유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런데 말이다. 주식시장이 그렇듯 주택도 매각 시기를 놓치면 팔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집을 팔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상승세가 가시지 않을 때 처분하는 게 현명한 판단인지 모른다. 갑자기 매기가 약화되면 구매자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최근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발표한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 수치를 보고 난감해 하는 수요자가 적지 않을 것 같아서다.

부동산114는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지난주보다 0.02%포인트 오른 0.28%라고 발표했다. 상승폭이 커졌다는 말이다. 이런 상승세가 이어지면 한 달간 오름폭은 1%가 넘는다. 지금 같은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수치다. 정말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바뀐다면 빨리 집을 사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앞으로의 경기상황은 부동산114가 조사한 것과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그렇다고 부동산114 분석 수치가 맞는다는 보장도 없다. 정부 공인 주택가격 조사업체가 아니어서 신뢰성도 떨어진다. 부동산114 조사 수치는 공식적인 주택가격 조사기관인 한국감정원과 금융업체들의 담보대출 심사 기준으로 활용되는 국민은행 자료와도 차이가 난다.

먼저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가격 자료만 봐도 그렇다. 국민은행은 0.18%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으나 감정원은 0.26%, 부동산114는 0.28%라고 각각 발표했다.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다. 재건축 호재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양천구 아파트 상승률 현황을 보면 국민은행 0.31%, 감정원 0.62%, 부동산114 0.71%로 제각각이다. 국민은행이 조사한 상승률은 감정원·부동산114 수치와 비교해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각 업체마다 조사 대상 수나 방법이 달라서다. 더욱이 가격 조사 대상이 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여서 정확한 상승폭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국가공식 통계자료가 아닌 부동산114 수치를 보고 이달 들어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물론 국가통계자료로 활용되는 한국감정원 수치가 정확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감정원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조사한 호가(매도자가 원하는 가격) 등을 가격 지수화 작업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잘 맞지도 않는 지금의 가격지수보다 실제 거래가격을 수치화하는 게 더 공신력이 있을 것 같다. 이참에 정확도가 높은 새로운 지수를 만들자는 얘기다. 부동산 대기자 choibak14@

---

## 금주의 분양캘린더

이달 셋째 주 전국에 1만7996가구가 공급된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롯데캐슬' 등 1만125가구가 분양한다. 지방에서는 세종시 나성동 '한신더휴리저브' 등 총 7871가구가 청약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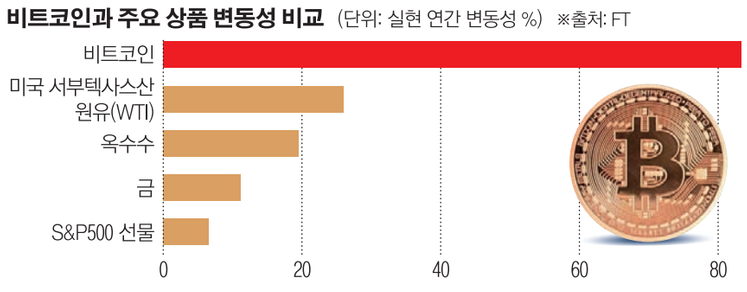
| 날짜 | 구분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아파트명 |
|---|---|---|---|---|---|
| 12/18(월) | 접수 | 인천 | 연수구 | 송도동 | 송도아메리칸타운아이파크♣ |
| | | 경남 | 김해시 | 무계동 | 김해장유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
| 12/19(화) | 접수 | 대구 | 북구 | 연경동 | 연경지구동화아이위시 1순위 |
| | | 제주 | 서귀포시 | 동홍동 | 동홍동동호아트리움 1순위 |
| 12/20(수) | 접수 | 서울 | 구로구 | 항동 | 서울항동지우남퍼스트빌(6BL) 1순위 |
| | | 경기 | 광명시 | 광명동 | 광명에코자이위브 1순위 (당해지역) |
| | | 경기 | 화성시 | 오산동 | 동탄역롯데캐슬 1순위 |
| | | 대구 | 북구 | 연경동 | 연경지구동화아이위시 2순위 |
| | | 대전 | 동구 | 용운동 | e편한세상대전에코포레 1순위 |
| | | 전남 | 무안군 | 일로읍 | 오룡에듀포레푸르지오(34BL) 1순위 |
| | | 전남 | 무안군 | 일로읍 | 오룡에듀포레푸르지오(35BL) 1순위 |
| | | 전북 | 익산시 | 어양동 | 어양3차오투그랜드시티 1순위 |
| | | 제주 | 서귀포시 | 동홍동 | 동홍동동호아트리움 2순위 |
| 12/21(목) | 접수 | 서울 | 구로구 | 항동 | 서울항동지우남퍼스트빌(6BL) 2순위 |
| | | 경기 | 고양시 | 식사동 | 일산자이2차 1순위 |
| | | 경기 | 광명시 | 광명동 | 광명에코자이위브 1순위 (기타지역) |
| | | 경기 | 성남시 | 고등동 | 성남고등지구제일풍경채(민간임대) |
| | | 경기 | 시흥시 | 장곡동 | 시흥장현호반베르디움(B8) 1순위 |
| | | 경기 | 양주시 | 옥정동 | 양주옥정A20(2)공공임대 1순위 |
| | | 경기 | 양주시 | 옥정동 | 양주옥정A20(3)공공임대 1순위 |
| | | 경기 | 파주시 | 동패동 | 운정신도시IPARK(A26)공공분양 1순위 |
| | | 경기 | 파주시 | 동패동 | 운정신도시IPARK(A26)민간분양 1순위 |
| | | 경기 | 화성시 | 오산동 | 동탄역롯데캐슬 2순위 |
| | | 대전 | 동구 | 용운동 | e편한세상대전에코포레 2순위 |
| | | 울산 | 남구 | 두왕동 | 울산테크노호반베르디움(1B-1) 1순위 |
| | | 울산 | 남구 | 두왕동 | 울산테크노호반베르디움(2B-2) 1순위 |
| | | 경남 | 창원시 | 동읍 | 동창원서희스타힐스 1순위 |
| | | 전남 | 무안군 | 일로읍 | 오룡에듀포레푸르지오(35BL) 2순위 |
| | | 전남 | 무안군 | 일로읍 | 오룡에듀포레푸르지오(35BL) 2순위 |
| | | 전북 | 익산시 | 어양동 | 어양3차오투그랜드시티 2순위 |
| | | 세종 | 세종시 | 나성동 | 세종한신더휴리저브(HO1) 1순위 |
| | | 세종 | 세종시 | 나성동 | 세종한신더휴리저브(HO2) 1순위 |
| | | 세종 | 세종시 | 어진동 | 세종시중흥S-클래스센텀뷰(H9) 1순위 |
| 12/22(금) | 오픈 | 경기 | 용인시 | 풍덕천동 | 수지광교산IPARK |
| | | 강원 | 강릉시 | 교동 | KTX강릉역오피스텔♣ |
| | | 강원 | 속초시 | 조양동 | 속초양우내안애오션스카이 |
| | 접수 | 경기 | 고양시 | 식사동 | 일산자이2차 2순위 |
| | | 경기 | 광명시 | 광명동 | 광명에코자이위브 2순위 |
| | | 경기 | 시흥시 | 장곡동 | 시흥장현호반베르디움(B8) 2순위 |
| | | 경기 | 양주시 | 옥정동 | 양주옥정A20(2)공공임대 2순위 |
| | | 경기 | 양주시 | 옥정동 | 양주옥정A20(3)공공임대 2순위 |
| | | 경기 | 파주시 | 동패동 | 운정신도시IPARK(A26)공공분양 2순위 |
| | | 경기 | 파주시 | 동패동 | 운정신도시IPARK(A26)민간분양 2순위 |
| | | 울산 | 남구 | 두왕동 | 울산테크노호반베르디움(1B-1) 2순위 |
| | | 울산 | 남구 | 두왕동 | 울산테크노호반베르디움(2B-2) 2순위 |
| | | 경남 | 창원시 | 동읍 | 동창원서희스타힐스 2순위 |
| | | 세종 | 세종시 | 나성동 | 세종한신더휴리저브(HO1) 2순위 |
| | | 세종 | 세종시 | 나성동 | 세종한신더휴리저브(HO2) 2순위 |
| | | 세종 | 세종시 | 어진동 | 세종시중흥S-클래스센텀뷰(H9) 2순위 |

(주1) "♣"=오피스텔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 "늦어도 내년 비트코인 ETF 나올 것"

〈상장지수펀드〉

### 美 펀드 승인 신청 잇따라
### 제도권 진입 후 규제 자신감
### 선물기반 상품 앞다퉈 추진
### 안전장치 없는 현물 거래소
### 펀드 출시에 가장 큰 걸림돌




가상화폐의 제도권 시장 진입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세계 파생상품 시장을 좌우하는 양대 거래소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비트코인 선물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비트코인과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기대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앞서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로 유명한 쌍둥이 재벌 캐머런과 타일러 윙클보스 형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ETF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SEC는 '비트코인 주요 시장이 아직 규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월 퇴짜를 놨다.

그러나 CBOE와 CME가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하면서 ETF 출범을 추진하는 업체들이 다시 당국의 승인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앞서 3월 '윙클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당국의 승인을 얻는 데 실패하면서 계획을 보류했던 밴엑(VanEck)과 렉스 등 2개 ETF 업체가 이달 새롭게 비트코인 관련 상품 출시를 신청했다. 디렉션인베스트먼츠도 15일 SEC에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

3월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들 업체가 비트코인 현물시장이 아니라 세계 양대 거래소인 CBOE와 CME의 선물거래에 기반한 ETF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토드 로젠블루스 CFRA ETF·뮤추얼펀드 리서치 담당 이사는 "현재 선물시장의 존재는 비트코인 ETF가 당국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많은 펀드가 비트코인 ETF 선점 효과를 얻으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펀드정보업체 모닝스타의 벤 존슨 ETF 리서치 대표는 "선물시장은 확실하고 규제된 금융수단"이라며 "SEC가 비트코인에 대해 품었던 우려 대부분을 해소하고 있다. ETF가 아직 유일하게 남은 주요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옥타곤스트래티지의 데이브 채프먼 매니징디렉터는 "미국 금융당국이 이달 CBOE와 CME, 내년 나스닥의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모두 승인했다"며 "늦어도 내년 비트코인 ETF의 등장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트코인에 대한 투기적 관심이 계속해서 커져 가는 가운데 ETF는 그동안 규제되지 않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것을 꺼렸던 많은 미국 투자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TF는 투자자들이 번거롭게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거나 개인적으로 저장할 필요가 없이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어서 가상화폐 투자에 편리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웨덴 비트코인 ETF인 '비트코인 트랙커 원(Bitcoin Tracker One)'은 현재 그 규모가 50억 크로나(약 6403억 원)로, 9월 출범 이후 수개월 만에 다섯 배나 성장했다.

세계 최초로 10일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한 CBOE는 ETF가 벤치마크로 설정할 수 있는 비트코인 지수도 창출했다. 크리스 콘캐논 CBOE 사장은 "특정 자산에 대한 규제된 선물시장은 ETF를 도입할 기회로 이어지고 있다"며 "비트코인 ETF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개시한 CME도 많은 투자자로부터 ETF 도입 문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비트코인 ETF가 당국의 승인을 얻으려면 아직 넘어야 할 난관은 많다. 특히 전문가들은 "선물시장 출범에도 비트코인 현물은 여전히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기존 거래소를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EC의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은 지난주 비트코인 현상에 대해 다소 모호한 발언을 했다. 그는 "주류 투자자들은 가상화폐가 주는 기회에 열려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 투자할 때는 상식에 입각해 좋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美 애틀랜타 공항 停電…수천명 악몽의 크리스마스 휴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 17일(현지시간) 전력 공급이 끊겨 항공기 탑승이 지연되자 망연자실한 승객들이 공항 터미널에 아예 자리를 깔고 눕거나 앉아 전력이 복구되길 기다리고 있다. 이 공항은 하루 2500여 편의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27만5000여 명을 수송하는 세계 최대 공항이다. 이날 정전으로 승객 수천 명의 발이 묶이고 인근 공항과 다른 국내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공항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회사 조지아파워는 정전 원인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틀랜타/EPA연합뉴스

# 트럼프 감세, 최대 승자는 '주식회사 미국'…"상장사 순익 10% 늘 듯"

### 이번주 美의회 표결 통과 예상
### 해외 비중 적은 정유·항공·금융
### 개선 효과 커, 실적 최대 30%↑

약 30년 만에 이뤄지는 미국 세제개혁의 최대 승자는 현지 기업들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 상·하원이 이번 주 표결을 거쳐 감세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가운데 기업 실적이 내년에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연방 법인세 최고세율이 내년부터 35%에서 21%로 낮아지면서 기업 순이익이 평균 10% 증가하고 일부 기업은 그 증가폭이 30%에 이를 전망이라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나선 골럽 크레디트스위스 수석 미국 주식 투자전략가는 "감세가 미국 증시 상장사들의 내년 순이익을 8~10%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유와 철도, 항공, 은행 등 현재 비교적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해외시장 매출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델타항공은 감세 효과로 내년 주당순이익(EPS)이 18~19% 추가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도 산하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적 개선 효과가 클 전망이다. 투자은행 KBW는 감세로 버크셔의 순이익이 올해보다 약 15%, 금액상으로는 26억 달러(약 2조834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먼스&컴퍼니의 가이 바버 애널리스트는 "발레로에너지와 앤데버 등 정유업체들의 내년 주당순이익(EPS)이 감세 효과에 15~32%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스와 허니웰 등 설비기업과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들은 약 20%의 감세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는 15일 이견 조율 끝에 단일안을 도출한 것은 물론 당내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의원들을 설득하고 나서 503페이지에 달하는 최종 법안을 발표했다. 델타항공 주가는 세제개혁 기대로 15일까지 1개월간 상승폭이 약 13%에 달한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훌륭한 우리의 세금 법안이 이번 주 의회를 통과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국세청이 이미 새 법안에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 내년 2월부터 감세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세제안 최종 통과까지 고작 며칠 남았다"며 "세제개혁은 중산층을 위한 가장 훌륭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FT는 세제개혁에 대한 기대는 뉴욕증시 S&P500지수가 올해 18% 오르는 주요 원동력이 됐다고 전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테슬라 넘보는 中 스타트업 군단

### 니오 'SUV 전기차' 이어
### 퓨처모빌리티·WM모토
### 내년 출시 후 美 진출 계획

니오의 SUV 전기차 ES8.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년 전부터 테슬라의 아성을 넘보는 중국 스타트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의 패드마스리 워리어 미국 법인 최고경영자(CEO)는 "테슬라가 길을 열었다"며 "우리는 그 길을 더 단단히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차 산업을 변화시키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니오는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자사의 첫 번째 전기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S8'을 출시했다. 니오는 지난달 중국 IT 업체 텐센트로부터 10억 달러(약 1조890억 원)를 투자받으며 장밋빛 전망을 예고했다. 그전에는 또 다른 중국 IT 거물 바이두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니오의 윌리엄 리 회장은 "ES8의 경쟁 차는 테슬라의 모델X"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퓨처모빌리티는 '바이튼'이라는 브랜드의 전기차 출시를 앞두고 있다. 바이튼은 BMW와 닛산 임원 출신이 주도해 만들었으며 테슬라와 애플 출신도 근무하고 있다. 바이튼은 미국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예정이지만 제품 출시는 2019년까지 중국에서 할 계획이다.

WM모토는 9월 중국 동부에 전기차 제조공장을 완공했다. 내년 초부터 생산을 시작한다. WM모토는 테슬라, 니오와 비교해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출시할 제품의 가격은 3만 달러 미만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중국 신생 자동차 기업은 내년께 중국에서 먼저 전기차를 출시하고, 2020년께 유럽과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에 대해 WSJ는 이들 기업의 생각처럼 중국 시장에서 외의로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테슬라는 3년 내에 중국 SUV 시장에 크게 베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중국 전기차 시장에 주목하는 상황도 중국 스타트업들에는 걸림돌이다.

최근 포드는 중국의 전기차 육성 정책에 발맞춰 2025년까지 중국에서 전기차 15종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포드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와 손잡고 첨단 기술 개발에 나섰다.

컨설팅업체 던오토모티브의 마이클 던 운영 이사는 "테슬라의 제품은 엘론 머스크 CEO가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아우라를 풍긴다"며 테슬라가 주도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신생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동시에 그는 전기차 사업이 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군인 만큼 신생업체 중 이미 나가떨어지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가 러에코다. 중국 IT 기업 러에코는 테슬라를 따라잡겠다며 호기를 부렸으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러에코가 투자한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패러데이퓨처는 미국 네바다 주에 10억 달러 규모의 공장 건설을 포기했다. 러에코의 창업자 자웨팅은 최근 중국 악질 채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CEO 라운지 '양날의 검' 기업공익활동

# 자산운용사 SSGA, 왜 소녀상 세우고 욕먹었나

### 성평등 캠페인…뒤에선 성차별
### 기업공익활동 진정성 논쟁 격화
### 펩시 광고도 흑인정신 훼손 비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심을 기울이는 기업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포브스는 CSR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내년에 기업이 집중해야 할 트렌드를 최근 정리했다.

리서치업체인 콘커뮤니케이션이 얼마 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CSR의 첫 번째 특징은 CSR에 적극적인 기업이 많아져 실수하는 기업도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홍보대행사 퍼블릭의 필 하이드 대표는 "내년에는 펩시의 켄달 제너 광고만큼 엄청난 실수는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실수를 하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4월 펩시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을 소재로 광고를 만들었다. 그런데 숭고한 시위 정신을 가볍게 취급하고, 이를 광고로 만들어 돈을 벌려 한다는 비판을 받자 광고를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방영을 중지했다. 광고를 내리고 나서도 펩시와 해당 광고에 출연한 TV 스타 제너를 향한 비난은 계속됐다.

두 번째는 사회 이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사회운동을 독려하는 단체 펜턴의 펜스콧 브루도인 회장은 "기업은 점점 사업의 일환으로 CSR를 생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 화장품 브랜드 더바디샵이다. 더바디샵은 오래전부터 동물실험 반대, 지구환경 보호, 공정 무역 등을 표방하며 이것이 브랜드 파워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세 번째는 CSR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마케팅일 뿐이라고 해도 어찌됐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그것으로 문제없다는 입장과 CSR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공존한다. 흑인 인권 운동을 소재로 한 펩시 광고도 이 논란에 속한다.

최근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스테이트스트리트글로벌어드바이저(SSGA)도 비슷한 모순을 보였다. SSGA는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뉴욕 월가에 있는 황소 동상 맞은편에 소녀상〈사진〉을 세웠다. 대다수 기업 임원에 여성이 드물다는 점과 남녀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 활동에 앞장서는 것처럼 보였던 SSGA는 10월 노동부 조사 결과 여성과 흑인 직원에게 더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SSGA는 합의금으로 500만 달러(약 54억4350만 원)를 내고서 간신히 소송을 면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노사 화합·相生 힘 쓰고 사회와 소통"

## 이동용 SK인천석유화학 노조위원장 '산업포상'

###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 노사 상생 동반성장 크게 기여
### 기업 첫 '행복 나눔' 협약 체결

SK인천석유화학 이동용(오른쪽) 노조위원장이 '산업포장'을 수상한 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SK이노베이션

이동용 SK인천석유화학 노조위원장이 노사상생 협력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사문화 유공 정부포상'에서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이 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2017년 노사문화 유공 정부 포상 시상식'에서 산업포장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수상자와 가족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노사문화 유공 정부포상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산업현장에서 대화와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구축 및 확산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정부포상 제도로 2008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올해 노동부 주관 노동문화 유공 정부 포상에서는 산업훈장 6명, 산업포장 7명, 대통령표창 12명, 국무총리표창 14명, 고용노동부장관표창 22명 등 모두 61명이 수상했다.

이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이 사회적 화두인 최근 노사상생 협력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SK인천석유화학은 6월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기업 최초로 '행복 나눔' 협약을 체결했다. 행복 나눔 협약은 SK인천석유화학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나누고 회사가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해 지속적으로 협력사를 지원하는 '임금공유' 상생모델이다. 이 모델은 이 위원장이 4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방안을 고민하던 중 사측에 전격 제안하면서 결실을 맺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임금피크제의 안정적 정착 및 조합원 과제그룹 운영 지원 등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의 상생협약,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 착한 기업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이 회사 노조는 2006년 이후 3차례 임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회사에 위임하는 등 그동안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노사문화 기반을 다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노사가 화합과 상생의 동반자로 함께 활동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나눔활동을 통한 따뜻한 노사문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유진 기자 eugene@

# 포스코, 色다른 평창올림픽 TV광고

## '철·인간·자연의 조화' 콘셉트

포스코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철'과 '인간', '자연'의 세 가지 키워드로 구성한 TV 광고를 게재한다. 사진제공 포스코

포스코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색다른 TV 광고를 선보였다. 광고는 '철'과 '인간', '자연'의 세 가지 키워드로 구성했다.

포스코는 17일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15일부터 철과 인간, 그리고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감하는 내용의 광고를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동계올림픽과 철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광고를 통해 동계스포츠의 생동감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표현 기법이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보다 실감나는 화면을 전달하기 위해 스포츠 시설을 직접 제작하기도 했다. 피겨스케이팅, 스피드스케이팅, 장애인 아이스하키, 봅슬레이 장면을 위해 남양주에 빙상장을 만들었다.

포스코 관계자는 "봅슬레이 경기장의 배경인 노르웨이 전나무 숲, 스피드스케이팅장으로 사용된 러시아 시베리아 빙판 등은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고에서 포스코의 대표 상품인 철은 스포츠의 '열정'으로 표현됐다. 회사 측은 대부분의 동계올림픽 종목에 철이 사용된다는 점을 착안했다. 철의 열기가 열정으로 승화되고 다시 그 열정이 세상에 퍼지는 모습을 박진감 넘치는 영상에 담았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21개 동계올림픽 종목(패럴림픽 포함) 중 20개 종목의 장비에 철이 사용된다.

영상의 생동감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이미지 표현 기법이 사용됐다. 사실적인 장면을 위해 해외 촬영도 이뤄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스케이트나 썰매의 날에서 발생한 열기가 선수의 몸으로 번지고, 다시 자연으로 확산하는 모습은 열화상 이미지 표현기법으로 구현해 생동감을 높였다"며 "바이애슬론과 프리스타일 스키 종목은 눈이 아름다운 이탈리아 알프스 스텔비오에서 직접 촬영해 웅장하고 사실적인 장면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광고는 3월 중순까지 방영된다. 광고는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영화관에서도 공개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당 대 당' 통합 추진 안철수 강원도 방문, 의견 듣는다

안철수〈사진〉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당 대 당' 통합을 모색하는 가운데 18일 강원도를 방문해 당내 통합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선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곧장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강원도당으로 이동했다. 이 자리에서 안 대표는 당원간담회를 열고 중도통합 의지를 밝히고 당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현재까지 안 대표는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전북을 찾아 당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원에 이어 다음 날 열리는 대전·충남·충북 당원간담회를 끝으로 당원 의견 청취를 마무리한다. 안 대표는 통합과 관련한 당원들의 의견청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당 내외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조만간 통합과 관련해 공식 선언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용욱 기자 dragon@

# "금리인상, 실물경제 도움… 미래 차입자 예방 효과"

## 이성태 前 한은총재 '채권포럼' 강연… "생산-분배-지출 잘 맞아야"

"내년에도 경제가 나쁜 편은 아니다. 금리인상에 따른 효과가 실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성태〈사진〉 전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교보증권 주최 '2018 채권포럼'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 2차원 세계에서는 물가와 생산만을 놓고 금리결정을 내렸다. 개방사회와 자본시장이 발달한 지금의 4차원 세계에서 2차원적 결정만을 하다 보니 금리인하를 해도 효과가 없었다. 풀린 돈이 실물경제로 가지 않고 자본시장에만 쏠렸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부채가 금리인상의 걸림돌이긴 하나 그렇다고 인상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전 총재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차입자는 부담이나 미래 차입자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저금리를 내버려 두면 부채가 커질 수밖에 없다. 견딜 만한 수준인지 점검하면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좋은 금리정책은 중립적인 금리 정책이다. 그 수준이 어딘지는 모르나 너무 높다는 인식이 퍼지면 내리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낮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연준(Fed)이 금리인상을 하면서 내외금리차가 같아지면서 자본유출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봤다. 이 전 총재는 "우리 경제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외국인이 얼마나 믿어주느냐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그는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생산과 분배, 지출의 3박자가 잘 맞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과거 경제 역사를 보면 기술 발전이나 시장 확대 등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 진단했다. 다만 현재 4차산업 발전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뚜렷치 않은데다 과거처럼 고용을 유발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또 시장확대 역시 아프리카와 중동 등이 있지만 아직 시장경제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분배 문제에 치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 전 총재는 "패자에게 적응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도 승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남현 기자 kimnh21c@

# 최경주재단, 김해 안명초교 전교생에 성탄 선물

최경주재단이 열악한 환경의 초등학교를 방문해 온정을 베풀었다.

최경주재단은 경남 김해시 안명초등학교 학생들과 '성탄 나눔 산타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산타프로젝트는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을 위해 최경주 장학꿈나무 봉사단이 일일 산타클로스가 돼 찾아가는 문화행사다.

이 재단은 2009년부터 산타프로젝트를 시작해 성탄절을 풍성히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5일 실시한 올해 행사는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이 열렸던 경남 김해 지역에서 열렸다. 최경주재단은 김해시 안명초등학교를 찾아 전교생의 소망을 반영한 성탄 선물을 나눠주는 시간을 가졌다.

최경주재단은 또 김해 지역 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골프를 통한 지역 작은 학교 살리기' 활동을 안명초등학교와 지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다. 최경주 재단은 "주변에 농공단지, 축사 입지로 열악한 환경에 위치한 김해시 안명초등학교를 찾아 전교생의 '위시리스트'를 반영한 성탄선물로 풍성한 크리스마스를 선사했다"고 설명했다.

최경주〈사진〉 이사장은 "이번 행사로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경남 김해 지역 어린이들과 교육계가 함께 나누게 돼 기쁘다"며 "어린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꿈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 이채원 한투밸류운용 새 대표

무거운 과제가 산적한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이사에 이채원〈사진〉 부사장이 내정됐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그룹은 이르면 이날 정기 임원인사에서 이 부사장을 밸류운용 대표로 공식 선임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현 대표이사인 송상엽 전무가 한국투자증권 인도네시아법인 추진단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사장은 한국 1세대 가치투자가로 평가받는다. 이번 인사에서도 가치투자에 대한 그의 평소 철학과 소신을 지켜온 점 등이 회사 내부의 높은 신뢰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이 부사장은 2005년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냈으며, 2006년 밸류운용 출범과 함께 창립 멤버로 합류했다.

업계에서는 이 부사장이 밸류운용의 과거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대형주 중심 상승장에서 가치주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만큼 저조한 수익률이 회사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 화재현장서 산소마스크 내준 한의섭 소방교 'LG의인상'

화재현장 유독가스 속에서 자신의 산소마스크를 요구조자에게 내줬던 살신성인 소방관이 LG의인상의 주인공이 됐다.

LG복지재단은 인천 서부소방서에서 근무하는 한의섭〈사진〉 소방교에게 'LG의인상'을 수여한다고 17일 밝혔다.

한 소방교는 13일 인천 가정동 신축 건물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고립된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쓰고 있던 산소마스크를 내주는 희생정신을 몸소 보여줬다. 하지만 그는 구조 과정에서 유독 가스를 마시는 바람에 결국 쓰러졌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 관계자는 "한 소방교는 화재 현장에서 자신의 산소 마스크까지 내주며 생명을 구했으면서도 '소방관으로서 당연한 임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겸손해 했다"며 "이런 숭고한 사명감을 우리 사회가 함께 기리자는 의미에서 의인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11월에도 현직 소방관이 LG의인상의 주인공이었다. LG측은 지난달 23일 인천시 다세대주택 화재 현장 3층에서 떨어지는 어린 남매를 맨손으로 받아 구조한 정인근 소방경에게 'LG 의인상'을 전달한 바 있다.

LG복지재단은 2015년부터 '국가와 사회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한다'라는 구본무 LG 회장의 뜻을 반영해 'LG 의인상'을 제정했다. 현재까지 총 58명이 수상했다.

이광호 기자 khlee@

## 대한항공 '하늘천사', 어려운 이웃에 김장 나눔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 봉사단체인 '하늘천사'가 16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김장나눔 행사를 펼쳤다. 사진제공 대한항공

## 샤롯데봉사단, 인천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

롯데홈쇼핑의 샤롯데봉사단이 15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 '유기견의 수호천사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홈쇼핑

## 인사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원장 전경목 △한국학대학원장 이길상 △기획처장 권오영

◆**동양생명** 〈승진〉 △총무팀 이정훈 △재무회계팀 김성중 △언더라이팅팀 이정관 〈전보〉 △GA사업팀장 정승호 △경영기획팀장 류재웅 △채널전략팀장 황문경 △FC영업팀장 박판용 △고객서비스팀장 이호태 △소비자보호팀장 유년근

◆**CBS** 〈승진〉 △보도국장 성기명 〈전보〉 △부산본부장 김규완 △논설위원 문영기

## 부음

▲**김병욱**(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병훈**(해양수산부 사무관)씨 모친상, **서밀가**(해양수산부 사무관)씨 시모상 = 16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19일 오전 7시, 031-787-1503

▲**김재실**(삼표시멘트 상임감사·전 산은캐피탈 사장)·**재우**(연세피부비뇨기과원장)·**재균**(중소기업진흥공단 팀장)씨 모친상 = 1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9일 오전 7시 30분, 02-3410-6914

▲**김승기**(매경닷컴·MK스포츠 대표)·**승진**(MBN스타 팀장)씨 모친상 = 17일, 한양대병원, 발인 19일 오전 6시, 02-2290-94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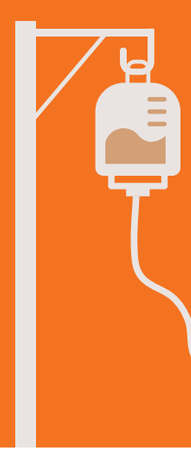
▲**박찬준**(신한카드 차장)씨 부친상, **김동규**(드림팩토리스튜디오 부사장)·**이종승**(다이와증권 전무)·**김영준**(하몬코리아 이사)씨 장인상 = 1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9일 오전 8시, 02-3010-2252

▲**변동국**씨 별세, **성현**(ABL생명 마켓전략실장)씨 부친상 = 1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9일 오전 9시, 02-3410-3151

▲**장형팔**(전 후지필름 상무)씨 별세, **문기**(한국 드론협동조합 이사장)·**경아**·**준기**(기아자동차 부장)씨 부친상, **이동훈**(충북대 교수)씨 장인상 = 17일, 서울대병원, 발인 19일 오전 11시, 02-2072-2022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7-5057호(2017.11.7)
준법감시인 확인필 CS 17-11-02

# 작은병은 큰병이 되지 않도록



# 큰병은 큰일이 되지 않도록

경증과 중증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 한화생명 내가찾던 건강종신보험 무배당

## [보증비용 부과형]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1588-6363
www.hanwhalife.com

한화생명

공병호의 **독서산책**

최인수 外 4인 '2018 대한민국 트렌드'

# 統計調査로 내다본 내년 한국사회

"2018년엔 일자리 문제와 미래 사회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해에도 사람들의 체감 경제는 녹녹지 않을 것임을 알려준다. 최인수 외 4인이 내놓은 '2018 대한민국 트렌드'의 미래 전망은 화려한 문장들을 배제한 채 엄밀한 통계 조사에 바탕을 둔 트렌드 분석 결과이다. 통계 분석에 기초한 점이 여타의 트렌드 서적들과의 차이점인데, 다섯 개 장의 주장들이 이 책의 전망이자 결론에 해당한다.

1장 '자기 주도 경험'은 새해뿐만 아니라 미래의 한국을 내다보는 데 매우 중요한 전망이다. "늙어서 잘살겠다고 오늘 먹고 싶은 라테를 참지 않겠다. 여행도 하고 선물도 하며 나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가치 있게 쓰고 싶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트렌드만으로 보면 장기 투자의 인기는 확실히 시들해지고 있다. 자기계발에 대한 열기는 식었으며, 자기계발의 자리를 취미활동이 대체해 버렸다.

2013년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던 자기계발의 열기는 꺾이고 있음을 조사 결과가 확인시켜 준다. 장기적 투자보다는 단기적 즐거움에 비중을 두는 추세에 힘을 더하는 것은 무엇보다 한국 경제에 대한 장기적 어려움이다. 저자들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욜로(YOLO) 현상이 지속할 것임을 예상한다. 구매 효과나 경험 자체를 즉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만족도는 더욱더 커질 것이며, 체험을 강조하는 여행상품에 대한 관심 또한 더 커질 것이다.

2장 '뉴 프로패셔널리즘의 등장'은 전문가 집단처럼 누군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결정하는 추세가 힘을 얻는 것을 말한다. "나도 너희들만큼 안다"는 소비자들의 확신은 전문가 집단에 대해 낮은 신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소비자 리뷰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쇼핑공간으로서 균일가 생활용품점이나 유니클로 같은 SPA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장 '1인 가구를 넘어 1인 체제를 향한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다. 커피시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고가 벌써 수년째 반복 중인 데도 불구하고 커피시장의 성장은 꾸준하다. 커피가 자발적 '나 홀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사회의 소비자들은 타인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1인 체제에 살고 있다.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SNS로 소통하고 쇼핑하고 혼자 커피도 마시고 전문적인 정보도 스스로 검색하면서 지내고 있다. 이런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가져올 빛과 그림자에서 사업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

4장 '더 강화된 공정성'은 부당한 것에 대한 관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공정성에 대한 관심은 기업과 같은 조직으로 하여금 과거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이런 문제에 대처해야 함을 말해준다. 저자들은 공정성과 관련해 요즘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공유경제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다. 낮은 공동체 의식과 높은 사회적 갈등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유경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5장 '미래 리스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혹은 "우리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고민은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성 교육은 현재의 교육 시스템으로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더욱더 깊어질 것이다. 요컨대 통계에 바탕을 둔 트렌드 분석은 더 넓은 시각에서 시대 변화를 읽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김성회의 인문경영

CEO리더십연구소장

# "나쁜 일은 땡, 좋은 일은 큐"

땡-큐. "나쁜 일은 땡, 좋은 일은 큐", 송년회에서 들은 인상적 건배사다. '땡큐'(Thank you), 좋은 일은 불러들이고, 나쁜 일은 마감하는 데 감사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나름의 해설이었다.

집에 돌아와 올해 감사한 일, 감사드릴 분들을 떠올려 보니 어려운 매듭이 풀린 것은 모두 내가 잘난 덕분이 아니라 남의 도움 덕분이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 넘긴 분, 위로부터 받기만 하고 아래로 베푼 게 부족해 '감사의 순환 법칙'을 실행하지 못해 찔리는 일도 많았다. 처음엔 '무탈한 한 해였는데 감사할 일이 뭐 그리 있을까' 하고 시작했다. 되새김질할수록 감사할 일과 감사 리스트, 감사 빚이 불어났다.

감사는 인연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마음이다.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려면 생각을 해야 한다. 감사할 거리가 없다는 것은 생각 부족과 동의어다. 생각 사(思)와 은혜 은(恩)은 한 계통이다. 恩은 인연(因)을 잊지 않는 마음(心)이다. 영어에서도 think와 thank는 한 뿌리다. 'thank'는 '감사함을 전하다'라는 뜻의 고대 영어 'pancian'에서 비롯됐다. 'pancian'의 어근인 'panc'는 '생각하다'라는 뜻을 지닌 'think'의 어원으로 'thank'와 같은 계통이다.

국어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말 '고맙다'의 어원 '고마'는 신(神), 신령(神靈)을 뜻한다. 즉 '고맙다'는 인간 이상의 존재에 대한 외경(畏敬)의 표현이다. 영어 thank, 한자 '은(恩)', 우리말 '고맙습니다' 모두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담고 있다.

감사는 이타적일 뿐 아니라 이기적 행위다. 캘리포니아 하트매스 연구소 연구진은 30명의 사람에게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마다 사랑과 감사에 집중하도록 주문했다. 한 달 뒤 이들의 노화방지 호르몬 수치는 100%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 수치는 20% 감소했다. 신뢰 제고 효과도 있다. 연구에 의하면 "감사 표시를 더 많이 한 사람일수록 파트너와 다음 관계를 맺을 확률이 높아졌다.

감사는 개인 간 관계 증진뿐 아니라 조직의 연대 강화, 성과 제고에도 기여한다. 신규 조직이라도 감사 표현을 나누면 연대감이 높아진다.

와튼스쿨의 애덤 그랜트 교수는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관리자일수록 부하 직원들이 더 참여적이고 생산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NBA 농구팀들을 살펴본 결과, 머리를 두들기거나, 힘차게 포옹하거나, 엉덩이나 가슴을 서로 부딪치는 등 신체를 이용해 고마움을 표현하는 선수들이 팀 동료들로 하여금 경기를 더 잘하게 격려하고, 시즌당 2경기 이상 더 승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캠벨 수프의 전 CEO 더글러스 코넌트는 회사 내에서 서로 감사하는 문화를 강조했다. 10년 재임 기간에 매일 10통씩 감사편지를 써서 보냈다.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백세를 살아 보니 잘 산 삶의 증표는 박수갈채가 아니라 감사를 받는 것"이라고 회고한 바 있다. 감사를 받는 삶은 감사를 하는 삶과도 통한다.

얼마 전 일본의 원로 기업인 안자키 사토루(安崎曉) 전 고마쓰 사장이 암선고를 받고 '감사의 모임'이라는 생전 장례식을 주최했다고 한다. 친구와 전 직장 동료 및 직원 등 1000여 명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생전 인연에 감사를 표했다고 한다.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 옛날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이긴 장군의 개선행진 때 행렬 뒤에서 노예가 큰 소리로 이 말을 외치게 했다. 우쭐대지 말고 겸손하란 뜻이다. 한 해의 의미를 되새기는 연말, '메멘토 모리'까진 아니라도 '감사를 기억하라'를 되뇌어 보는 것은 어떨까. 오늘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 인연을 통한 '감사의 축적' 덕분 아니겠는가. '감사를 기억하라!' 땡-큐!

알쏭語 달쏭思

## 결시해리(決習解李)? ①

어느 언론매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두고 "우리 측 전략은 문 대통령이 중국에서 자주 사용한 4자 성어식으로 '결시해리(決習解李)'라 표현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과 결단하고 리커창 총리와 푼다는 뜻이다"라는 보도한 후, 이 말도 안 되는 4자 성어가 날아다니고 있다. 적잖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읽힐 습'이라고 훈독하는 '習'의 우리 발음은 엄연히 '습'인데 중국어 발음인 '시[xi]'를 우리 한자 발음과 섞어 쓰고 있다. '李'야 중국어에서나 한국어에서 다 비슷한 발음 '리[li]'로 읽는 글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습'을 '시'로 읽어 당연하다는 듯이 '결시해리(決習解李)'라고 쓰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중국의 인명과 지명을 현지의 원음으로 읽고 쓰라고 강제하는 국어기본법의 '원음주의' 규정이 야기한 문제이다.

전에는 인명도 '모택동(毛澤東)', '등소평(鄧小平)'처럼 우리 발음으로 읽었고, 지명도 북경(北京), 남경(南京)으로 읽었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마오쩌둥', '베이징'으로 바뀌면서 뜻도 모르는 채 발음만 적는 사대주의 표기법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중국은 우리 대통령을 '문재인'이라고 읽지 않고 다 그들의 발음으로 '원짜이인'이라고 읽고, 우리 지명도 제주도는 '지저우따오'로, 경주는 '칭저우'라고 읽는데 우리만 왜 우리 고유의 발음을 스스로 포기하고 정확하지도 않은 중국어 발음으로 읽고 쓰느라 그처럼 애를 쓰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에겐 중국에 대해 우리 고유명사를 다 '문재인', '송혜교', '제주도', '경주'라고 읽어 달라고 할 권리가 없다. 외국의 지명과 인명은 자국어의 편리대로 쓰는 것이 국제적인 상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편리하도록 우리 발음으로 읽어야 하지 않겠는가! 한류스타는 '리링아이'나 '송후이자오'가 아니라, '이영애', '송혜교'이지 않은가!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온라인 e모저모

## 이대목동병원서 신생아 4명 잇따라 사망 "이번엔 꼭 책임을 가려주세요"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미숙아 4명이 잇따라 사망했다.

미숙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한 사고는 전례가 없던 일이다. 이에 이대목동병원과 양천구보건소 등은 다각도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인 가운데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이 끝난 후에야 원인이 명확히 규명될 전망이다.

정혜원 이대목동병원장은 17일 기자브리핑을 열어 "16일 오후 5시 40분께부터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4명의 환아에서 심정지가 발생했고 의료진의 적극적인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사망했다"며 "매우 이례적인 불행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이른 시일 안에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신생아들이 배가 볼록했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족들은 이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15일 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 환자가 나왔다며 항의했다.

하지만 이대목동병원 측은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됐던 환아는 격리 조치돼 있었으므로 이번에 사망한 미숙아들과 다른 공간에 있었다며 감염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티즌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아이디 '@binm****'은 "이대목동병원에서 4명의 신생아가 사망했다. 이 병원은 얼마 전 신생아에게 벌레가 들어간 수액을 주사하다 발견되기도 했고, 결핵환자 간호사가 여러 명의 신생아와 다른 간호사에게 감염시킨 곳이기도 하다. 이번에야말로 책임자를 찾아 의료사고를 제대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 아이디 'ccvm****'은 "유가족들에게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기자브리핑이나 하고. 유가족들의 울분이 이해가 더 가더라"라고 강조했다.

이재영 기자 ljy0403@

## 존 리와 함께하는 주식투자

메리츠자산운용 CEO

# 休息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학원 버스 차량 뒤에 이런 글이 써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지금 자면 꿈은 꿀 수 있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잠을 자지 말라는 생각이 우스꽝스럽지 않은가? 실제로도 인간의 뇌 구조는 오랜 시간을 집중할 수 없다고 한다. 단순히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것보다는 잠을 충분히 자고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실제로 핀란드의 고등학교에서는 하루에 4시간 이상은 수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수면시간과 자살률이 연관이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고 하니 그동안 휴식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해온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교육은 우리 아이들을 시험점수에만 매몰되어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 이기적인 아이들로 만들고 있다. 실컷 놀아도 시간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이 선행학습 등 사교육에 내몰리는 현실은 슬픈 일이다. 수면이 부족한 아이는 짜증이 많고 공격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왕따 문화가 생기는 이유도 콘크리트 벽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우물 밖으로 나오기 힘들고 새로운 생각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시험 보는 것에만 익숙해져서 본인의 경쟁력과는 무관한 스펙 쌓기에 열중한다. 그 아이들은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오를지는 몰라도 사회에 진정한 도움을 주기는 힘들다.

어른이 되어도 생각이 변하지 않고, 결국은 불합리한 기업 문화로까지 이어진다. 아침에 출근해 저녁까지 일하고도 부족해 야근을 하고 각종 회식에 시달리는 것이다. 상급자가 퇴근하지 않으면 집에 가기가 눈치 보이는 문화가 한국의 기업 문화다.

심지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출근하는 것이 다반사다. 일을 중심으로 하지도 않고, 능률이 오르지도 않는데 근무시간만 늘리는 이상한 문화는 또 다른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가족과 되도록 많은 시간을 보내고 휴식을 해야 능률이 오르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행복하지 않은 직원이 많으면 그 회사는 성공하지 못한다. 국가적으로도 불행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문제점들에 직면해 있다. 노후 준비의 부족, 인구의 고령화, 저출산, 청년들의 취업난 등 어느 한 가지도 간단한 문제가 없다. 이들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문제들이 아니다. 오랜 기간 진행되어 왔지만 단기적인 것에만 집착하다 보니 미처 미래를 위해 준비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단기적인 해법은 없다.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해법을 고민하고, 법이나 규정 등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단기적인 사고를 장기적인 사고로 전환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생각의 전환을 통한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이 보다 높은 선진 단계로 도약하려면 이제부터라도 휴식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우선 잠을 많이 자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한다. 아이들도 실컷 자야 하고, 스포츠를 즐기며, 공부에만 돈과 열정을 쏟는 대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에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다양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이 옆의 아이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협력하며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를 갖는 아이들을 육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업의 문화도 변화해서 직원들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보낼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일하는 시간은 더 짧아져도 생산성은 오히려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출산율도 당연히 올라간다. 휴식이 많아질수록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된다.

## 조남호의 중구난방

산업2부 차장

# 혁신과 꼼수, 갈림길 선 '주 35시간'

'신세계의 주 35시간 근무, 과로 사회 탈출 마중물 돼야', '주목되는 신세계의 주 35시간 근무제 실험',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한 신세계의 파격 행보'….

8일 재계 순위 10위인 신세계그룹이 전격 발표한 주 35시간 근무제로의 전환이 재계와 사회에 미친 파문은 엄청났다. 언론은 기사와 사설 등을 통해 신세계의 파격적인 근무제 전환에 대해 호평을 쏟아냈다. 재계의 자발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앞서 기술한 것처럼 과로 사회 탈출의 마중물이 될 것이란 기대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이러한 호평의 근간이 된 것은 신세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임금 하락'이 없다는 전제를 뒀기 때문이다.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함에도 종전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다룸에 있어 임금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지가 항상 쟁점이 돼 왔음을 고려하면 신세계의 결정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의 수혜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혁신은 꼼수로 전락했다. 신세계가 내세운 '일과 가정의 양립', '저녁이 있는 삶' 등 거창한 목표와는 거리가 먼 '인건비 절감'에 근로시간 단축의 진짜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심야수당 절감, 업무강도 강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마트에서 계산과 판매, 진열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현재 평균 월급은 145만 원이다. 시급으로는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500원 많은 6940원가량 된다.

문제는 주 35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2020년 최저 시급 1만 원 시대에 주 40시간 일할 때보다 월급 26만 원, 연봉으로 312만 원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종전처럼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면 마트 노동자들은 2020년에는 월 209시간을 일하고 209만 원의 월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 주당 35시간으로 줄면 최저임금 1만 원을 적용해도 월급 183만 원 이상을 받기가 힘들어진다. 이렇게 발생하는 월급 격차가 26만 원이다. 이를 두고 마트노조는 신세계가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마트 폐점 시간이 오후 12시에서 11시로 1시간 앞당겨지면서 발생할 심야수당 축소와 인력 충원 없는 시간 단축으로 높아질 노동강도에 대해 우려한다. 사실상 현재도 생계를 유지하기에 임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미명(美名)하에 포기해야 하는 임금 손실분이 더욱 크게 여겨지는 것이다.

마트노조의 주장에 대해 신세계 측은 2020년의 일을 속단해선 안 되고 임금은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럼에도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최근 한 포럼에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부작용으로 신세계를 예로 들어 근로자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한 것을 보면, 마트노조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치부하기도 어렵다.

아직 오지 않은 2020년의 일이다. 신세계와 마트노조 어느 쪽의 말이 맞을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세계가 앞장서겠다"는 정용진 부회장의 약속이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spdran@

## 객석

임 준 우 비타민하우스 이비즈본부 본부장

# 연말연시 슬기로운 건강관리 팁

매서운 추위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겨울은 급격한 온도차와 건조한 날씨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게 된다. 게다가 연말연시 각종 모임과 회식으로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건강에 대한 걱정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 연말연시 회식 자리에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술과 칼로리 높은 음식들이다. 밀크씨슬은 간의 피로를 덜어 주어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준다. 특히 음주 전이나 후에 섭취하면 숙취 해소와 간 기능 보호에 도움을 준다. 또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추출물은 잦은 회식으로 인해 늘어난 술살과 뱃살을 관리하는 데 효과가 있다.

겨울철은 피부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지는 시기이다. 낮은 기온과 차가운 바람 때문에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기 쉽다. 노화를 막고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가꾸기 위해서는 바르는 피부 케어 화장품도 중요하지만, 먹는 이너뷰티 제품도 중요하다. 대표적인 이너뷰티 소재가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이다.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히알루론산은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겨울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호흡기 질환이다. 이에 더해서 요즘엔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건강을 위협하는 상시적인 위험에 대비해 면역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인삼이나 홍삼을 많이 섭취해 왔지만, 최근에는 소재가 다양화되고 있는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차가버섯이다. 차가버섯은 베타글루칸이 풍부해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베타글루칸은 다당류의 일종으로, 면역세포인 T세포·B세포를 활성화해 면역 증강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미리 예방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운동과 함께 알맞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야말로 연말연시를 건강하게 나는 지름길이라 본다. 다들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철을 보내길 바란다.

## 기자수첩

고 대 영 산업2부/ kodae0@

# 치킨집 사장님들

오후 5시. 유리 창 너머로 보이는 가게는 텅 비어 있었다. 물어보기 적당했다. 부부가 운영하는 치킨 가게였다.

내가 해야 할 질문은 "조류인플루엔자(AI)가 터졌는데 생닭 수급이 잘 되고 있는가"였다. 돌아올 답은 뻔했다. 그래도 물었다.

앞선 세 점포와 달리 날카로움이 날아왔다. "그걸 왜 당신이 묻느냐." 답변은 같았지만 차가웠다. 그저 내가 나가길 바라는 눈치였다. 그래서 마음을 접고 다른 점포로 가려고 했다. 다른 점포도 많으니까.

나가려는 내게 "좀 전에 본사에서 다녀갔다"는 한마디를 해줬다. 알겠다고 대답하고 나왔다. 내 뒷모습을 향해 혼잣말로 "그냥 알아보러 오신 거구나"라고 했다. 나름의 미안함의 표현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7~8개 브랜드를 확인하고 집 앞 치킨 집에 들어갔다. 마지막 가게였다. 사장님은 내가 이웃 주민이란 걸 알고 있다. 이곳 역시 문제가 없었다. 사장님은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난감해 했다. 난 수급에 문제없으면 된 거 아니겠나 싶어 "괜찮다"고 했다. 그래도 미안해했다.

그들에게 난 그저 자신들의 힘든 모습을 담아가야 하는 기자였다. 자신들의 무난하고 조용한 삶을 내가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에게 난 마치 '하이에나'와 같았다.

만약 그날 마지막 가게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난 즐겁게 보고를 올릴 수 있었을까. 내일 쓸거리가 생겨서 홀가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날이 따뜻할 땐 사람이 말썽을 피우더니 추워지니 가축들이 말썽을 일으킨다. 정확히 말하면 가축들을 관리하는 자들의 몫이겠다. 그렇게 안팎에서 치인 자신들의 지친 냄새를 맡고 찾아온 기자가 당연히 반가울 리 없다.

그래서 "괜찮다, 괜찮다", 이런 말이 습관이 된 것은 아닐까. 혹여나 아파도, 괜찮냐고 물어볼까 싶어 아픈 내색을 안 하는 것은 아닐까.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려 시작한 생활이었는데, 쉽지 않은 겨울을 보내고 있다. 그들도, 나도.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길정우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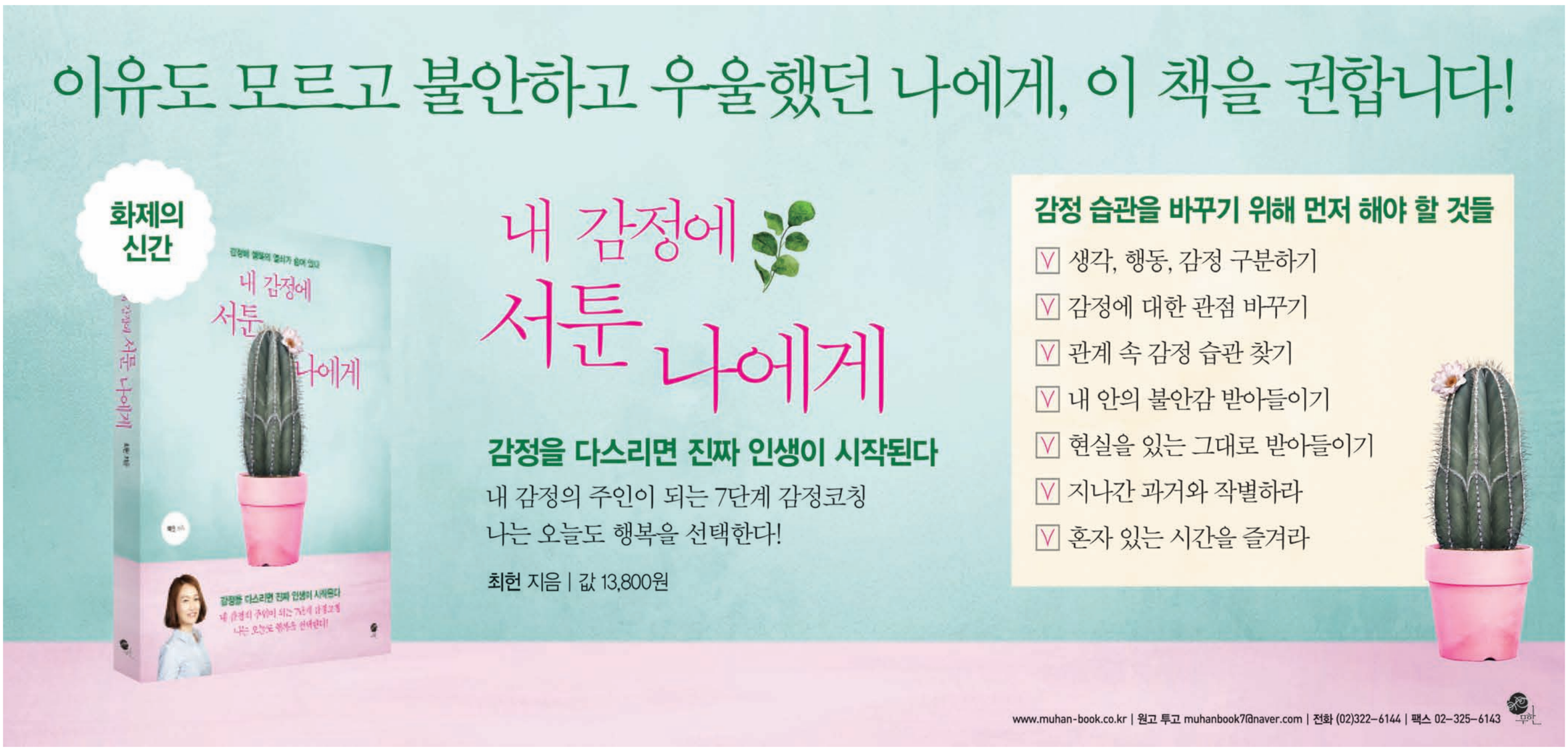
| | | | | | |
|---|---|---|---|---|---|
| 논설실 | (02)799-6701 | 정치경제부 | (02)799-2663 | 정책사회부 | (02)799-2612 |
| 기업금융부 | (02)799-2665 | 산업1부 | (02)799-2648 | 산업2부 | (02)799-2641 |
| 자본시장부 | (02)799-2664 | 국제경제부 | (02)799-2643 | 온라인뉴스부 | (02)799-6741 |
| 사진팀 | (02)799-2646 | | | | |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베트남리포트가 매년 발표하는 기업 자산·매출 순위〉

# ‘VNR 500대 기업’ 1위… 베트남 경제의 심장 “삼성이 뛴다!”

**1995년 법인 설립…TV 등 주력상품 생산**
**올해 현지 진출 22년만에 ‘자산·매출 1위’**
**2014년 호찌민에 6109억 규모 복합단지**
**계열사까지 진출… 16만명 현지인력 고용**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세운 동남아 B2B 전시관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베트남 진출 22년 만에 베트남 국영기업들을 모두 제치고 자산과 매출 기준 ‘1위 기업’이 된 삼성전자가 베트남 경제를 이끄는 주력 기업으로 부상했다.

최근 베트남 현지 언론 베트남넷과 베트남리포트(VNR)가 공동으로 발표한 500대 기업 리스트에 따르면 삼성전자 베트남(SEV)이 1위를 차지했다. 베트남 리포트는 2007년부터 매년 자본·매출·이익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00대 기업 리스트(VNR 500)를 발표하고 있다.

삼성전자 베트남이 VNR 500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 베트남은 2012년 4위를 기록하며 톱5 리스트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후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2위에 머물렀다. 특히 이번 순위가 더욱 특별한 것은 베트남 현지 기업을 제외한 해외 기업이 1위에 오른 최초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1995년 베트남 호찌민에 법인을 설립한 이후 20년 동안 휴대폰, TV, 세탁기 등 주력상품의 대부분을 생산해왔다. 2008년 박닌성 옌퐁공단에 휴대폰 공장을 지은 삼성전자는 현재 규모를 확대해 연간 1억 대 이상의 스마트폰과 피처폰을 생산하고 있다. 삼성전자 베트남은 주로 가전제품을 생산하며, 삼성전자 베트남 타이응우옌(SEVT)은 휴대폰을 만든다.

또 2014년 10월에는 호찌민에 위치한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에 TV 중심의 소비자 가전(CE) 복합 단지를 건설했다. 소비자 가전 복합 단지 규모는 70만㎡(약 21만 평)로 투자 금액만 5억 6000만 달러(약 6109억 원)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올해 3·4분기까지 누적 매출액 36조4191억 원을 달성했다. 같은 기간 SEV와 SEVT의 누적 매출액은 각각 14조5949억 원, 21조8242억 원이다. 지난해에는 두 법인이 합쳐 연간 누적 매출액 42조9900억 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베트남 수출 공장의 연간 수출액은 500억 달러(약 55조 원)에 달하는데, 이는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22%에 해당된다. 무역협회는 호찌민시와 베트남 북부 박닌, 타이응웬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해 삼성전자의 대(對)베트남 투자규모는 173억 달러(약 19조 원)로 현지 최대 투자기업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의 베트남 진출 이후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SDI 등 그룹 내 전자 계열사는 물론 협력 업체 수백 곳이 함께 진출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현재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SDI 등 전자 계열사들은 베트남에서 이미 16만 명의 인력을 고용했고, 간접 고용 인원(협력업체 직원 제외)까지 합치면 18만 명에 이른다. 삼성전자는 최근에도 베트남에서 2200여 명을 뽑기 위해 대졸 공채를 실시했다.

삼성전자는 동남아 시장에 특화된 제품을 선보이며 베트남에서 TV,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한류 콘텐츠와 접목한 TV플러스 서비스를 베트남에서 시작했다. TV플러스는 삼성전자가 선보인 가상채널 서비스로 스마트TV와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면 각종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TV플러스 서비스’ 고음질 K팝 음악 제공**
**휴대폰엔 바이커들을 위한 ‘S-바이크 모드’**
**동남아 겨냥 최첨단 B2B 체험 전시관 오픈**
**세미나·실습 교육장 가능… 거래처 지원도**

삼성전자는 CJ E&M의 ‘tving TV’ 채널 ‘엠카운트다운’, ‘가창력 끝판왕’, ‘HOT 보이그룹 특집’, ‘HOT 걸그룹 특집’ 등 K팝 채널 4개로 베트남에서 TV플러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한류스타 무대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봐야 했던 베트남 팬들은 삼성 스마트 TV의 TV플러스를 통해 고화질 영상으로 K팝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휴대폰의 경우 오토바이를 교통수단으로 많이 활용하는 베트남 특성을 반영해 갤럭시J 시리즈에 ‘S-바이크 모드‘를 탑재했다. 이는 오토바이 운전 중 전화가 오면 메시지가 자동 응답해주는 기능이 있다. 최근에는 갤럭시S8과 갤럭시노트8 등 프리미엄 폰도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최대 투자기업답게 지난달 동남아 최대 규모의 B2B(기업 간 비즈니스) 종합전시관을 베트남 호찌민시에 세웠다. 총 면적 700㎡(전시장 500㎡, 교육센터 200㎡) 규모의 전시관은 ‘스마트 도시로의 여행’을 주제로 관람객들이 B2B 환경에 맞는 다양한 제품군과 스마트 솔루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총 10개(레스토랑·학교·교통·게임·패션·호텔·오피스·공장·홈·시스템 에어컨)의 체험 공간으로 구성됐다.

삼성전자는 이 전시관을 통해 베트남뿐 아니라 동남아 전 지역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삼성전자의 최첨단 B2B 솔루션 관련 총체적 경험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상호 성장을 위한 삼성전자의 노력과 비전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 이 전시관은 주요 거래선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숍뿐 아니라 시스템 에어컨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제품의 실습 교육장으로 운영해 거래선들을 전방위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철기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장(상무)은 “B2B 사업은 삼성전자의 중요한 미래 사업으로 이번 종합전시관 개관을 통해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삼성전자의 혁신적인 B2B 솔루션과 미래 비전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최고의 B2B 솔루션과 제품을 제공해 B2B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AMSUNG 삼성전자

**사회공헌·복지 활동에도 앞장서는 삼성전자**

# 친환경 가방 사랑담고, SW교육하며 맞팔… 현지 언론도 “Xin đa ta”

〈씬 다 따: 베트남어로 ‘감사합니다’〉

**결연·소외계층 아동 위한 프로그램 마련**
**공책·색연필 등 담은 ‘친환경 가방’ 제작**
**국제구호단체와 ‘글로벌 핸즈온 전달식’**

**현지 학생 대상으로 한 IT 교육봉사 이슈**
**유력지 ‘노동신문’도 인터뷰로 관심 표명**

업사이클링 가방을 제작하고 있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왼쪽 사진)과, 컴퓨터 교육 중인 이지현(DMC연구소·가운데) 씨. 현지인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으로 일주일새 SNS 팔로워 수가 급증했다고 한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베트남 시장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베트남 현지에서 사회공헌 및 복지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은 11월 7일 베트남 타이응웬성 인민위원회에서 ‘글로벌 핸즈온 물품 전달식’을 열었다. 국내 6개 사업장의 임직원과 가족, 베트남 법인 직원들이 참여한 이번 활동은 베트남 결연아동과 타이응웬성 지역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자투리 천을 모아 친환경 업사이클링 가방을 만들었다. ‘LOVE’, ‘HOPE’, ‘Xin Chao(안녕하세요)’ 등의 문구와 함께 놓아진 색색의 수는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제작된 5000여 개의 업사이클링 가방은 베트남 현지 공책, 색연필, 펜 등 학용품 키트와 함께 아이들의 품에 안겼다.

박선종 기아대책 베트남지부장은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가방이 베트남 아동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했다. 전달식을 마친 봉사단은 삼성희망학교 아이들을 위해 급식 배식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며 보다 친밀한 교류를 이어갔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진출 이후 기아대책과 함께 베트남 아동들을 위한 글로벌 협력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사업장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글로벌 핸즈온’은 그런 활동 중 하나다.

같은 날 베트남 타이응우옌 소재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에서는 ‘환경안전이 경영 제1원칙’이라는 주제로 ‘제1회 삼성베트남법인 환경안전혁신대회’가 개최됐다. 삼성전자와 협력사 그리고 유관 기관 대표들이 모여 개최한 이번 행사는 베트남 최초로 근무환경에 대한 환경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 뚜언 년(Vo Tuan Nhan) 베트남 자원환경부 차관은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은 환경안전, 에너지 절약을 경영 최우선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환경안전을 위한 혁신적 전략과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심원환 삼성전자 부사장은 “삼성전자 베트남 관계사에서 일하는 베트남 국민이 16만 명에 달하며 베트남이 지닌 국가 규모와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해 온 글로벌 수준의 환경안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베트남 기업과 협력사에 다양한 혁신 성과를 나눔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구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7월 임직원 해외봉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임직원들은 베트남 현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봉사를 펼쳤다. 학생들은 생에 처음으로 파워포인트를 통해 프레젠테이션을 해보고, 엑셀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등 열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진지한 교실 분위기에서 벗어나 친구가 된 베트남 학생들과 임직원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이런 열렬한 환호는 태어나서 처음 받아 본다는 이지현(DMC연구소) 씨는 일주일 사이에 SNS 팔로워 수가 급증했다. 학생들이 너도나도 선생님의 SNS 주소를 알려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학생뿐만 아니라 인근 15개 학교에서 교사들과 교직원들이 엑셀 프로그램 활용법을 배우기 위해 모이기도 했다. 이들은 공부한 수업 내용을 각자 학교로 돌아가 전파할 예정이다.

아울러 베트남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이 큰 유력지 ‘LAO DONG(노동신문)’은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근로환경과 사원복지를 소개하는 기사를 11월 20일 게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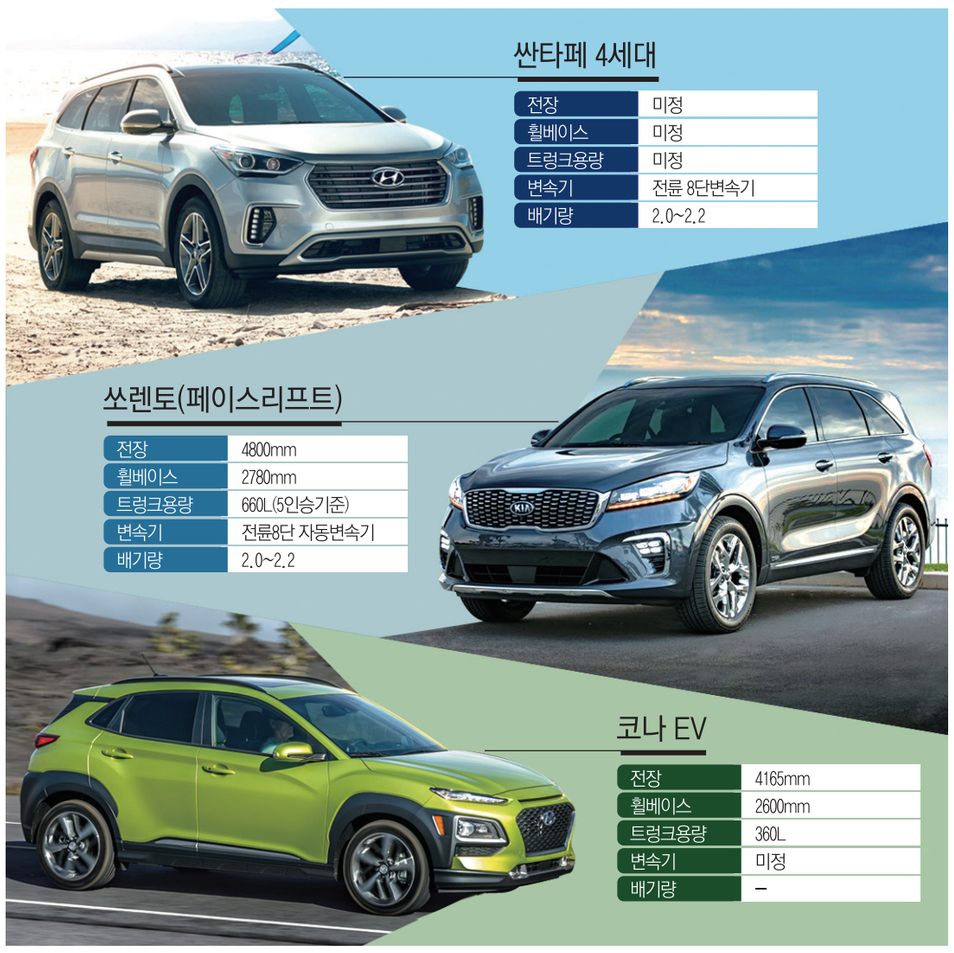
해당 기사에는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임직원 협의회와 함께 사원 복지 노력의 내용이 담겨 있다.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여성 임직원들은 임신을 하면 바로 임신·육아 지원을 신청, 임신부를 위한 업무 재배치, 업무·식사 시 (임신부를 위한) 특별 의자를 제공받으며, 언제든지 휴가를 쓸 수 있고, 필요하면 회사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2009년 4월 가동에 들어간, 베트남 법인은 현재 박닌 공장과 타이응우엔 공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만 10만 명 이상이다. 여성 직원 비율은 전체 임직원의 약 75%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 디자인·안전·편의사양 '풀체인지'… 戊戌年 '쾌속 질주' 예약

## 2018 자동차 시장 키워드 'SUV'




### 후발주자 '코나' 출시 4개월 만에 1위
### '스토닉' 月 판매 목표 1500대 '훌쩍'
### 내년 초 '4세대 싼타페' 출시 예고에
### 한국GM '에퀴녹스' 수입 판매 계획
### 르노삼성 'QM6' 가솔린 모델 주력

2018년 자동차 시장의 키워드는 'SUV'다. 현대차 코나, 기아차 스토닉을 중심으로 한 소형 SUV 시장의 약진이 중형 SUV, 대형 SUV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내년 국내 자동차 시장 규모가 180만 대 정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SUV 판매 비중은 40%에 육박할 전망이다. SUV의 단점으로 지적되던 소음 문제와 승차감 등이 개선되면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소형 SUV의 인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코나를 앞세워 소형 SUV 시장 1위에 올랐다. 7월부터 판매된 코나는 후발 주자로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럼에도 '티볼리'와 '트랙스' 'QM3' 등을 제치고 단숨에 판매 1위에 올랐다. 코나는 사전계약 대수는 5012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나는 7월부터 11월까지 총 2만904대 팔렸다.

기아차 스토닉도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 스토닉 역시 출시 이후 2주 만에 1342대 판매를 기록했다. 스토닉은 8월 1655대, 9월 1932대가 판매돼 월 목표 판매량인 1500대를 훌쩍 넘겼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코나의 출시로 쌍용차 티볼리의 경우 판매량이 줄 수도 있다고 봤으나 그렇지 않았다"며 "소비자들의 소형 SUV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만큼 시장은 향후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11월까지 소형 SUV 누적 판매대수는 11만5139대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33% 늘어난 수치다.

소형 SUV 시장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전기차 코나 EV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차는 저렴한 스토닉 가솔린 모델로 가격 경쟁에 나선다. 쌍용차의 티볼리도 소형 SUV 시장의 지위 수성을 위해 7월 전면부 디자인을 대폭 변경한 티볼리 아머를 선보였다.

중형 SUV 시장 경쟁도 점입가경이다. 완성차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신차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기아차 쏘렌토가 중형 SUV 시장 1위를 수성할 수 있느냐'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쏘렌토는 2년 연속 중형차 시장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쏘렌토의 11월까지 누적 판매대수는 7만6384대를 기록했다. 싼타페가 4만7519대로 뒤를 쫓았다. 쏘렌토의 독주 원인으로는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가 꼽힌다. 기아차 관계자는 "주행 성능과 내·외장 디자인, 안전·편의사양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됐고 사이즈도 늘렸다"며 "또한 국내 최초로 SUV 모델에 전륜 8단 자동변속기와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내년 초 4세대 중형 SUV 싼타페(코드명 TM)를 내놓을 예정이다. 2012년 3세대 이후 6년 만의 완전변경(풀체인지) 모델이라 눈길이 쏠린다. 4세대 싼타페는 기존의 6인승 모델 이외에도 7인승, 8인승 모델도 새롭게 출시된다. 싼타페 3세대 모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연속 중형 SUV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한국GM은 GM의 베스트 셀링 SUV 에퀴녹스를 수입 판매할 계획이다. 2005년 출시된 에퀴녹스는 전 세계에서 200만 대 이상 판매된 검증된 차량으로, 미국에서 매년 20만 대 이상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캡티바의 자리를 에퀴녹스가 대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르노삼성도 중형 시장에서 반등을 노린다. 르노삼성은 중형 SUV QM6의 가솔린 모델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QM6는 현재까지 누적 판매대수 2만4788대를 기록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QM6 가솔린 모델의 경우 디젤 모델에 비해 300만 원 이상 저렴하다"며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뛰어난 성숙성을 고객에게 어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타보니** BMW '3세대 뉴 X3'

# 오프로드도 거침없이 달리는 '카멜레온'

### 6기통 디젤 엔진 페달 밟자 가속도 붙어
### 모래·자갈길서도 안정적 승차감 유지
### 휴대폰 무선충전기 설치 편의성도 강화

BMW '3세대 뉴 X3'가 강물을 넘어 주행하고 있다. 사진제공BMW코리아

프리미엄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해 GLC 클래스를 출시하면서 준중형 SUV 시장을 이끌고 있고, 볼보도 올해 XC60의 신모델을 내놓으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BMW도 뜨거워진 준중형 SUV 전쟁에 참전을 선언했다. 개발 기간만 6년을 쏟아부으며 공을 들인 3세대 뉴 X3를 지난달 초 한국에 출시한 것이다.

3세대 뉴 X3를 마주한 때는 지난달 17일. 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 주행 성능을 시험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BMW는 주행 성능에 대한 자신감을 담아 X3를 SUV 대신 'SAV(스포츠액티비티차량)'로 명명했다. '다용도'로 해석되는 '유틸리티'보다 '활동'을 뜻하는 '액티비티'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행의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관은 SAV라는 단어에 맞게 다부진 모습이다. 3세대 뉴 X3는 앞뒤가 50대 50의 차체 비율을 지녀 비율 좋은 육상선수를 연상케 했다. 앞면의 키드니 그릴은 이전 세대보다 커졌고, 주간주행등도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했다. 뒷면의 LED 라이트, 루프스포일러, 트윈 배기 테일파이프 등도 달라졌다. 실내에는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휠베이스는 이전보다 5㎝ 길게 디자인했다.

3세대 뉴 X3는 '카멜레온'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모델이다. 고속도로, 자갈길, 모래사장, 강가 등 다양한 도로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 성능이 변하며 안정적인 승차감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날 시승한 차량은 6기통 디젤 엔진을 적용한 뉴 X3 xDrive30d다. 뉴 X3 xDrive30d의 3ℓ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은 최고출력 265마력, 2000~2500rpm에서 최대토크 63.3㎏·m의 힘을 발휘한다.

6기통 디젤 엔진을 탑재한 만큼 고속도로에서 가속페달을 밟자 단 한 번의 움찔거림 없이 가속도를 냈다. 속도를 높일수록 소음과 진동이 느껴졌지만 거슬리는 수준은 아니었고, 차체 흔들림은 거의 느끼지 못했다.

오프로드 성능도 일품이었다. BMW코리아 측은 이날 돌이 많은 자갈길, 헛바퀴가 도는 모래사장, 얕은 물을 넘어야 하는 도강 구간, 와인딩 구간 등 오프로드를 체험할 수 있는 시승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3세대 뉴 X3는 가장 먼저 접한 자갈길을 거침없이 헤쳐나갔다. 시트와 안전벨트는 몸이 튕기지 않도록 운전자의 몸을 감싸며 보호했다. 힘을 받지 못하는 차량이라면 헛바퀴만 돌며 모래 늪에 빠질 만한 모래사장과 도강 구간에서도 한 치의 망설임이나 '헛발질' 없이 통과했다. 뉴 X3는 최대 수심 50㎝까지 도강을 할 수 있다.

모래사장에서는 핸들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가속페달을 멈추지 않고 밟았다. X3는 BMW 사륜구동 시스템인 xDrive를 통해 위험상황 시 앞뒤 바퀴에 100대 0에서 0대 100까지 동력이 배분된다. 때문에 모래사장을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편의성이 한층 강화된 것도 인상적이었다. 차량의 앞 좌석에는 무선충전기가 설치돼 있어 안드로이드 휴대폰 사용자는 별도의 충천기 없이도 충전을 할 수 있다.

BMW코리아가 설명한 이 차량의 복합 연비는 11.3㎞/ℓ다. 그러나 시승을 마친 뒤 계기판에 기록된 최종 연비는 9.6㎞/ℓ로 그보다 못 미쳤다. 고속도로뿐 아니라 오프라인 주행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 연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뉴 X3의 가격은 △뉴 X3 x드라이브20d M 스포츠 패키지 6870만 원 △뉴 X3 x드라이브20d x라인 6580만 원 △뉴 X3 x드라이브30d M 스포츠 패키지 8360만 원 △뉴 X3 x드라이브30d x라인 8060만 원이다.

BMW 관계자는 "3세대 뉴 X3는 7년 만의 풀체인지 모델인 만큼 연 2000대 이상은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전경. SK인천석유화학은 50만 평 규모의 공장설비를 갖추고 있다. 사진제공 SK이노베이션

## '미운 오리 새끼'에서 '中 수출 첨병'으로

# 여의도 절반 크기 '파이프 정글' 단 4명이 컨트롤

〈50만 평〉

### SK인천석유화학 부두에 가다

**원유 정제부터 유조선 주입까지**
**27만 배럴 처리하는 韓석유수출 혈관**
**라인 자동화로 600명만 근무**
**지난해 사상 최대 3700억 영업익**

**봄엔 벚꽃 명소로 주민과 상생**

"거의 모든 것이 자동화돼 있습니다. 모든 파이프라인 관리는 모니터에서 가능하고 현장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50만 평 규모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600명뿐 입니다."

◇365일 24시간 쉬지 않는 현장 = 지난주 14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 공장을 방문했다. 여의도 전체 규모의 절반 수준인 50만 평의 SK인천석유화학 공장은 마치 '파이프 정글' 같았다. 그러나 점심을 먹으러 가는 직장인들로 빽빽한 여의도와는 달리 하루에 27만5000배럴의 초경질 원유기반 정제능력을 갖춘 SK인천석유화학 부지엔 어딜 가도 하얀색 파이프 라인들만 보였다.

SK인천석유화학의 파이프라인은 조종실에서 컨트롤된다. 조종실에서 아로마틱 공장 파이프라인을 담당하는 신광재 아로마틱3팀장은 "365일 24시간 이곳(조종실)에서 상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팀으로 구성된 조종실에선 4명이 모니터를 보고 현장을 관찰했다. 조종실 안 벽면은 크고 작은 모니터 화면들로 가득해 어느 것을 먼저 봐야 할지 모를 정도였다. 신 팀장은 "현장에서 생긴 문제도 바로 조종실에서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종실을 나와 버스를 타고 공장을 돌던 중 "이곳이 파라자일렌(PX) 생산 공장입니다"라는 말에 눈이 돌아갔다. PX는 SK인천석유화학이 흑자전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일등공신이다. SK인천석유화학은 2013년 SK에너지에서 독립해 출범한 뒤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의 늪에서 SK인천석유화학을 구해낸 것이 바로 PX 공정이다. 1조6000억 원의 투자액으로 PX 공장을 증설한 SK인천석유화학은 제품 생산 규모를 연간 130만 톤(t)으로 늘리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인 374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부두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김홍섭 운영2팀 총기술장(위)과 중국으로 수출하는 PX제품을 선적하는 모습. 사진제공 SK이노베이션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는 "PX 생산은 크게 두 체임버(Chamber)에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PX 공정 근처는 원통 모양의 탱크들과 성인 두 명이 안아도 손이 닿지 않을 만큼 굵은 파이프가 가득했다. 관계자는 "PX 생산의 시작은 원유정제부터 시작된다"며 "정제를 통해 나온 나프타, 그중 중질 나프타는 공장 내 BTX(벤젠·톨루엔·자일렌) 공정에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BTX 공정을 거쳐 나온 자일렌이 PX 체임버로 들어가서 최종 제품으로 탄생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약 3000억 원 규모로 '안전환경보건(SHE)'에 투자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포부를 지닌 SK인천석유화학은 봄철 인천 벚꽃 명소 베스트 5위로 선정됐다.

◇주력 제품 95% 이상 중국 수출= 정문에서 약 8km 떨어진 곳에 SK인천석유화학의 부두가 위치해 있다. SK인천석유화학에선 총 4개의 부두가 운영되고 있다. 기자가 설명을 들은 곳은 제2부두로 1992년 증설해 운영되고 있다. 당시 정박해 있던 배는 중국 다롄(大連)항으로 가는 PX 제품을 선적한 1만 톤급 '뉴 스타(New Star)' 호로 배의 끝에서 끝을 보기 위해선 부두를 따라 걸어가야 할 만큼 거대했다.

김홍섭 SK인천석유화학 운영2팀 총기술장은 "SK인천석유화학은 2013년 밸류업(V)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부두를 인수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평균 85만 배럴의 파라자일렌이 이곳 항구를 통해 수출되고 있다. 95%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나머지 5%는 SK에너지를 통해 다른 나라로 수출되고 있다.

부두에선 거대한 낚싯대처럼 생긴 설비를 볼 수 있었다. '로딩암(Loading arm)'이라고 불리는 이 설비는 육지의 석유제품 탱크에서 유조선으로 제품을 주입하는 역할로 시간당 약 5000배럴을 배에다 선적할 수 있다. 김 총기술장은 "고품질 99.6%의 순도를 유지하기 위해 파라자일렌과 벤젠은 단독으로 운영되며 부두 운전 45년 이래 한 번도 유출 사고가 없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인적이 드문 건 부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김 총기술장은 "부두별로 1명의 근무자가 배치되며 모든 시스템은 율도 탱크 기지에 위치한 헤드 오피스에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선적은 선원과 감독자가 관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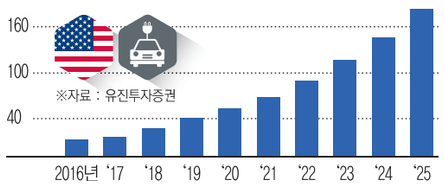
부두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부두를 "인간의 신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혈관'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PX 시황이 좋아지면서 SK인천석유화학 부두에는 하루 한 척꼴로 접안한다고 한다. 관계자는 "예전엔 6만 톤의 PX선박을 1, 2, 4부두(3부두는 접안이 불가했다고 한다)에서 접안했는데, 지금은 양이 늘어 3부두에서만도 30만 톤 선박을 접안할 수 있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부두를 둘러보고 공장 정문으로 돌아오는 길엔 기다란 파이프관이 버스를 따라 끊임없이 이어졌다. 굵은 관 중간중간엔 약 10개 정도의 밸브들이 설치돼 있었다. 부식 등 외부 위험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관계자는 "오히려 외부에 노출됐을 때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공장에서 부두, 해외 시장까지 SK인천석유화학의 파이프는 길게 이어졌다.

류정훈 기자 jungh216@

**미국 전기차 판매량 연평균 31% 증가 예상**

(단위 : 만 대) *2017~2025년은 전망치




# 美 전기차 보조금 유지 합의 한숨 돌린 국내 배터리 업계

글로벌 최대 전기차 시장 중 한 곳인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세제감면혜택)이 존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미국의 전기차 수요의 급락을 우려한 전기차 배터리 업계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18일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과 하원은 14일 전기차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배터리 크기에 따라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전기차(EV) 등을 구매 시 2500~7500달러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 보조금은 자동차 제조사별로 첫 20만 대의 전기차 판매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현재 1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한 업체는 GM, 테슬라, 닛산, 포드 4곳뿐이다. 하원은 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폐기하는 법안을, 상원은 이를 유지하는 법안을 각각 가결했으나 상원과 하원이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사업자들은 단기 수요 급감이라는 악재를 벗어나게 됐다.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은 전기차 구매 이유의 30%를 차지할 만큼 시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미국에서는 전기차 의무판매 제도가 10개 주에 도입됐고 의무 비율과 적용 대상이 내년부터 확대되기 때문에 연방정부 보조금 축소로 인한 전기차 판매의 감소 영향은 장기적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5년까지 미국 전기차 시장은 연평균 34%의 고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하지만 당장 보조금이 축소되면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전기차와 부품 납품사에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는 미국,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과 2020년대 초반까지 발표될 대부분의 전기차에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결국 미국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수록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덩달아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단기적인 악재는 해소됐다고 본다"며 "중국의 한국산 배터리 인증 이슈 등으로 유럽과 미국 쪽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9兆 규모 新시장 잡아라"… 불붙은 '달콤 경쟁'

## 식품업계 '디저트 시장' 군침

**디저트 시장, 남성들 소비 가세하며**
**2009년 4.9兆서 5년 만에 81.3%↑**
**식품업계, 디저트 신사업 잇단 진출**
**오리온, 현대百에 '초코파이 하우스'**
**빙그레는 '소프트 랩' 안테나 숍 열어**

# 30대 후반의 회사원 김모 씨. 점심 후 동료와 함께 디저트를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점심 한 끼 가격과 맞먹는 디저트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단 것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푸는 게 오히려 낫다는 생각에 이제는 맛있다고 이름난 디저트를 찾아다니는 경지에 이르렀다.

## 디저트 시장, 남성들 소비 가세하며

국내 디저트 시장이 고속 성장하고 있다. 식사 후 커피 한잔으로 티타임을 즐기던 일반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식사는 가볍게 하고 커피와 케이크 등 디저트를 즐기는 이들이 늘고 있는 데 힘입은 것이다.

특히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디저트가 남성들에게도 새로운 기호품으로 주목받으면서 시장 성장 속도가 더욱 가파르다. 트렌드모니터에 따르면 만 19~59세 사이의 남성 500명 중 디저트를 가장 많이 먹는 연령대는 30대로 나타났다. 특히 30대만 놓고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아이스크림 선호도가 3.2% 더 높았고 캔디 및 젤리는 2.4%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 국내외 디저트 외식시장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디저트 외식시장 규모는 8조9760억 원으로 전년 대비로는 13.9%, 2009년과 비교해서는 81.3%나 팽창했다. 그해 전체 외식시장 중에서는 10.7%를 차지했다. 일반 식품업체의 디저트 제품 판매량까지 더하면 전체 디저트 시장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디저트 시장이 고속 성장하는 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커피 전문점, 주스 전문점, 제과점 등 기존 사업자들을 비롯해 고급 디저트 카페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식품업계의 디저트 시장 진출이 활발하다. 디저트 사업과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본업의 성장 침체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오리온은 현대백화점과 손잡고 판교점 지하 1층에 '초코파이 하우스'를 열었다. '초코파이情'은 1974년 출시된 이후 국내에서만 연간 4억 5000만 개가 판매되는 국내 파이 1위 브랜드다. 초코파이 하우스는 초코파이情을 새롭게 재해석한 프리미엄 디저트 전문 매장이다. 초코파이 하우스에서는 파티셰들이 개발한 레시피와 엄선된 프리미엄 재료를 활용한 수제 초코파이, 푸딩·감자칩 등 초코파이를 활용한 이색 디저트를 선보인다.

빙그레도 디저트 시장 진출에 적극적이다. 빙그레는 7월 소프트 아이스크림 브랜드 '소프트랩(Soft Lab)'의 안테나 숍을 경의선 숲길 공원, 일명 '연트럴 파크' 근처에 열었다. 유제품사업과 빙과사업부문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빙그레가 디저트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저가형 소프트 아이스크림과의 차별점을 강조한 제품을 선보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보인 오프라인 매장이다.

빙그레는 앞서 지난해 3월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에 바나나맛우유를 주제로한 카페 형식의 매장 '옐로우 카페'를 열었다. 옐로우카페는 올 4월에는 제주도 중문단지에 동대문점보다 약 10배 큰 규모(660㎡, 약 200평)로 2호점을 열어 현재 하루 평균 600~700명이 방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황 속에 디저트 같은 작은 사치,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비 등을 추구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며 "디저트 시장의 성장세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이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늘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남호 기자 spdran@

# 디저트노마드족 잡은 '핫'한 디저트

**매그놀리아, 현대百서 긴 구매줄 화제**
**루시카토·에릭케제르 케이크 입소문**

2030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디저트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맛있고 예쁜 디저트를 찾아다니는 디저트노마드족이 늘고 있다. '디저트노마드'란 유목민을 뜻하는 노마드와 디저트가 결합된 합성어로, 이들은 먹고 즐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에 인증샷을 올리고 공유하는 즐거움도 중요시한다. '#디저트'로 태그된 게시물은 370만 건에 육박하고 '#디저트그램' 59만 건, '#디저트카페' 39만 건 등이 디저트의 인기를 보여주는 수치다. 디저트계의 스테디셀러로 꼽히는 제품이 즐비하고, 기존에 흔히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비주얼의 디저트 사진이 연이어 게재되며 방문 욕구를 자극한다. 유통업계도 '디저트노마드'족을 겨냥한 제품들을 잇달아 내놓으며 소비자의 발길을 붙잡기 위해 힘쓰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컵케이크로 유명한 '매그놀리아'다. 미국 드라마 '섹스 앤드 더 시티'를 통해 유명세를 탄 매그놀리아는 2015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첫선을 보였다. 오픈 당시 100여m에 이르는 구매 대기자 행렬로 큰 화제를 불러모았고 지금까지 꾸준히 인기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 현대백화점 4곳(압구정본점·판교·무역센터·대구)에 입점돼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4개 매장에서 매그놀리아가 올리는 월평균 매출은 약 7억 원에 달한다.

롯데백화점에 입점된 디저트전문 브랜드 루시카토도 다양한 모양의 케이크와 맛으로 소비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올해 크리스마스를 맞아 선보인 쇼콜라 스퀘어 케익과 스트로베리퀸 케이크가 인기"라며 "최근에는 기존의 원형케이크보다 독특한 모양의 형태나 조각 케이크, 타르트 형태 등이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호텔 부문에서 운영하는 프랑스 프리미엄 베이커리 에릭케제르는 케이크가 맛있기로 소문난 곳이다. 국내 에릭케제르 전 매장에서는 모든 케이크와 타르트 제품에 100% 동물성 생크림을 사용해 최고의 맛과 신선함을 자랑한다. 라즈베리·딸기·요거트로 만든 타르트에 마카롱·초콜릿을 얹어 맛이 일품인 '타르트 몽쥬'가 대표 케이크다.

커피전문점에도 케이크, 초콜릿, 마카롱 등 완성도 높은 디저트를 선보이며 차별화된 전략으로 꾸준히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제품들이 많다. 투썸플레이스의 스테디셀러 제품은 상큼한 딸기가 한가득 올라간 스트로베리초콜릿 생크림 케이크와 마스카포네 치즈, 진한 에스프레소 시럽을 층층이 올린 촉촉한 시트의 무스케이크인 '떠먹는 티라미수'다. 이 외에 올해 7월 출시한 중독성 강한 단짠단짠(단맛+짠맛) 맛이 매력적인 '더치솔티드카라멜'도 인기제품으로 꼽힌다.

투썸플레이스 '떠먹는 티라미수'.

할리스커피의 '고구마 치즈 케이크'는 달콤한 고구마와 마스카포네 치즈크림의 환상적인 조화와 사랑스러운 비주얼로 출시되자마자 고객의 취향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고구마 치즈 케이크의 11월 한 달간 매출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김민정 기자 mj@

# "세계적 디저트 브랜드 모십니다"

로이즈 초콜릿 매장

**백화점, 오프라인 매장 고객 유입 효과**
**신세계 '몽슈슈' 현대 '이즈니…' 등 입점**

백화점들이 국내 디저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디저트 브랜드 모시기에 한창이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트렌드에 민감한 한국 시장을 테스트보드로 활용하고, 백화점 입장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백화점의 글로벌 디저트 브랜드 유치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라뒤레, 라메종뒤 쇼콜라, 킷캣, 몽슈슈, 로이즈 등 다양한 글로벌 디저트 브랜드가 입점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들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인기에 힘입어 신세계백화점의 스위트 장르 매출은 전체점 기준 최근까지 전년 동기 대비 17.5% 신장했다.

현대백화점은 5월 무역센터점 식품관에 '이즈니 베이커리'를 론칭했다. 이즈니 버터가 베이커리 브랜드로 정식 매장을 선보인 것은 전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EU인증 제도인 AOP(원산지 보호 명칭)의 인증을 받은 버터는 전 세계적으로 단 3개(이즈니, 에쉬레, 브레스)뿐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4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만 6개의 식음료점을 운영하는 니나 구드코바 셰프의 디저트 카페 '컨버세이션'을 입점시켰다.

안진아 갤러리아백화점 F&B팀 차장은 "해외 유명 디저트 브랜드들이 국내 문턱을 넘기 시작했다"며 "30대를 중심으로 해외 유학과 여행이 잦아지면서 외국에서 맛봤던 유명 디저트 브랜드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디저트의 인기가 한몫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본격화하고 있는 글로벌 디저트 브랜드의 백화점 입점은 백화점과 디저트 브랜드 업체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한 관계자는 "유명 글로벌 디저트 업체가 백화점에 입점해 고객에게 인정받으면 백화점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글로벌 디저트 브랜드 입점이 백화점 고객 유입으로 연결된다고 강조한다.

또한 글로벌 디저트 브랜드 업체는 한국 백화점에서 인정받게 되면 아시아 시장 진출이 용이해진다고 분석한다. 글로벌 디저트 브랜드 업체 한 관계자는 "한국 소비자들의 경우 식재료 사용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고객층이 매우 넓다. 한국 백화점에 입점해 성공하면 아시아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시디즈 引受’ 팀스 75%·‘제2신라젠 期待’ 테라젠이텍스 75%↑

12월 둘째 주(11~15일) 코스피지수는 전주 종가(2464.00) 대비 18.07포인트(0.73%) 오른 2482.07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개장 첫날인 11일을 기점으로 5거래일간 등락을 반복하며, 전반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였다. 수급 주체별로는 기관투자자가 상승장을 주도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총 1조3946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베 스 트 & 워 스 트**
**12월 11~12월 15일**

코스닥지수는 전주 종가(744.06) 대비 27.76포인트(3.73%) 오른 771.82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개장 첫날인 11일 종가 기준 전주 대비 20포인트가량 뛰며, 출발부터 호조를 보였다. 이후 소폭 등락을 반복하며 770선을 굳히는 데 성공했다. 수급 주체별로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거래일간 코스닥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525억 원, 426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쌍끌이 매수에 나섰다.

## 금호타이어, SK그룹 등 대기업집단 被인수설에 반등
## 이엔쓰리 22%·BGF리테일 22%·KG케미칼 20%↑
## ‘실적우려’ BGF -47%… ‘매각무산’ AJ렌터카 -45%

금융투자업계(8001억)와 연기금(1303억 원)을 필두로 전 기관투자자가 ‘사자’를 외쳤다. 반면, 개인은 1조912억 원, 외국인은 4299억 원어치를 각각 내다팔았다.

◇팀스, 시디즈 인수 호재에 급등 =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200억 원 이상의 상장사 중 전주 대비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가구업체 팀스(75.06%)다. 팀스는 시디즈의 의자 영업 사업 양수 소식에 14일부터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도 갈아치웠다. 팀스는 이달 13일 시디즈의 의자 제조 및 유통 영업 전 부문을 325억2600만 원에 양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수 예정일은 내년 4월 1일이다.

법정관리 가능성이 점쳐졌던 금호타이어(31.61%)도 SK그룹 등 대기업집단 피인수설에 반등했다. 11일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의 새 인수자를 찾는 인수·합병(M&A)을 진행 중이란 소식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주가는 15일 SK그룹이 7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금호타이어 인수 자금을 마련한다는 소식에 급등했으나, SK그룹이 부인 공시를 내면서 얻은 급등분 일부를 반납했다.

이엔쓰리(22.05%)는 자회사 네오나노메딕스코리아가 개발 중인 새 항암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에 전주에 이어 계단식 상승세를 지속했다. 화학적 기전에 기반한 일반 항암치료제와 달리 발열성 나노소자를 활용한 신개념 치료법이란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임상 계획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BGF리테일(21.91%)은 분할·재상장 이슈로 8일에 이어 11일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 24만9000원으로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지주사로부터 분할된 후 이익 성장성이 더욱 부각된 것으로 관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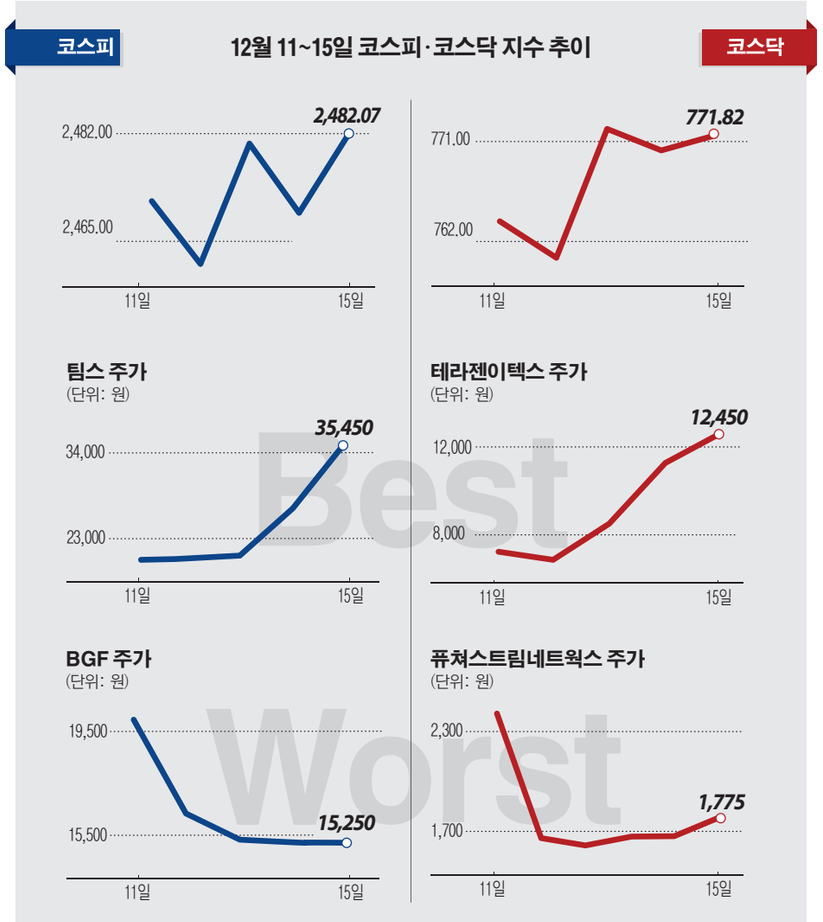
KG케미칼(19.95%)은 내년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에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 13일 신고가를 경신했다. KG케미칼은 국내 유일의 전기차 베터리 핵심 원료 제조업체인 에너켐을 산하에 두고 있다.

대웅제약(18.36%)은 ‘나보타’의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증권가 분석에 상승했다. 이외에도 아비스타(40.41%), 대동공업(27.36%), 인스코비(24.93%), 우리들제약(22.69%) 등이 뚜렷한 호재 없이 상승했다.

◇BGF, 사업회사 분할 후 실적 우려 = 반면 BGF(-46.58%)는 분할·재상장 이슈로 직격탄을 맞았다. 사업회사로 분리한 BGF리테일이 한 주 동안 22% 가량 급등한 것과 정반대 상황이다. 지주사 역할에 그치게 된 BGF의 실적 우려가 주가에 선반영된 결과다. 합병 전 순이익의 91%가 편의점 부문(사업회사)에서 발생했지만, 사업회사의 분할 비율이 35%에 불과해 주가 방향성이 반대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AJ렌터카(-44.61%)와 모회사인 AJ네트웍스(-12.88%)는 매각 무산 소식 여파로 동반 하락했다. AJ렌터카의 경우, 8일 2만2000원으로 52주 신고가까지 경신했던 터라 실망 매물이 출회했다.

한·중 공동 성명 채택 불발 소식은 온기가 확산하던 화장품주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한국화장품제조(-14.72%)와 한국화장품(-12.22%), 토니모리(-10.79%) 등의 낙폭이 컸다. 한·중 양국 정부는 사드 배치 관련 이견으로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교복업체 형지엘리트(-13.82%) 역시 중국 사업 타격 우려에 하락했다.




**코스피 상승 10종목**

| 종목명 | 15일 시가총액 | 종가 12월8일 | 종가 12월15일 | 주가등락률 |
|---|---|---|---|---|
| 팀스 | 71 | 20.250 | 35.450 | 75.06 |
| 아비스타 | 79 | 2.450 | 3.440 | 40.41 |
| 금호타이어 | 704 | 3.385 | 4.455 | 31.61 |
| 대동공업 | 224 | 7.420 | 9.450 | 27.36 |
| 인스코비 | 186 | 1.705 | 2.130 | 24.93 |
| 우리들제약 | 135 | 9.740 | 11.950 | 22.69 |
| 이엔쓰리 | 156 | 5.850 | 7.140 | 22.05 |
| BGF리테일 | 4,088 | 194.000 | 236.500 | 21.91 |
| KG케미칼 | 262 | 18.300 | 21.950 | 19.95 |
| 대웅제약 | 1,755 | 128.000 | 151.500 | 18.36 |

**코스피 하락 10종목**

| | | | | |
|---|---|---|---|---|
| BGF | 492 | 28.550 | 15.250 | -46.58 |
| AJ렌터카 | 245 | 19.950 | 11.050 | -44.61 |
| 한국화장품제조 | 228 | 59.100 | 50.400 | -14.72 |
| 형지엘리트 | 101 | 6.150 | 5.300 | -13.82 |
| AJ네트웍스 | 345 | 8.460 | 7.370 | -12.88 |
| 한국화장품 | 283 | 20.050 | 17.600 | -12.22 |
| 두산엔진 | 288 | 4.705 | 4.150 | -11.80 |
| 토니모리 | 357 | 22.700 | 20.250 | -10.79 |
| 제일약품 | 611 | 64.800 | 58.200 | -10.19 |
| 테이팩스 | 145 | 33.750 | 30.800 | -8.74 |

(시총:십억 원, 종가:원)

**코스닥 상승 10종목**

| 종목명 | 15일 시가총액 | 종가 12월8일 | 종가 12월15일 | 주가등락률 |
|---|---|---|---|---|
| 테라젠이텍스 | 372 | 7.120 | 12.450 | 74.86 |
| 삼보산업 | 61 | 10.317 | 14.900 | 44.42 |
| 시노펙스 | 355 | 3.820 | 5.420 | 41.88 |
| 와이오엠 | 33 | 2.070 | 2.835 | 36.96 |
| 위지트 | 119 | 1.275 | 1.690 | 32.55 |
| 옴니텔 | 166 | 6.110 | 7.990 | 30.77 |
| 비덴트 | 401 | 14.550 | 18.950 | 30.24 |
| 디지탈옵틱 | 72 | 1.690 | 2.160 | 27.81 |
| 웹젠 | 1,292 | 28.700 | 36.600 | 27.53 |
| 더블유에프엠 | 120 | 4.320 | 5.400 | 25.00 |

**코스닥 하락 10종목**

| | | | | |
|---|---|---|---|---|
| 퓨쳐스트림네트웍스 | 85 | 2.395 | 1.775 | -25.89 |
| KJ프리텍 | 32 | 1.975 | 1.515 | -23.29 |
| 미래테크놀로지 | 52 | 12.150 | 9.500 | -21.81 |
| CS | 34 | 2.280 | 1.820 | -20.18 |
| 경남제약 | 112 | 12.450 | 9.950 | -20.08 |
| 에너토크 | 65 | 8.100 | 6.630 | -18.15 |
| 엔알케이 | 59 | 2.925 | 2.400 | -17.95 |
| 토박스코리아 | 62 | 2.010 | 1.720 | -14.43 |
| 대성파인텍 | 62 | 2.295 | 1.985 | -13.51 |
| 제로투세븐 | 66 | 6.210 | 5.380 | -13.37 |

※자료 : 에프앤가이드

## 옴니텔·위지트 등 가상화폐 관련株, 규제 강화에도 ‘들썩’
## ‘권리락’ 삼보산업 44%… 시노펙스 42%·웹젠 28% 올라
## “가상화폐거래소 관련없다” 퓨쳐스트림네트웍스 -26%

특히 금융투자업계가 1700억 원 이상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개인은 홀로 1526억 원 상당의 주식을 처분했다.

◇테라젠이텍스, 제2의 신라젠 기대감 = 지난주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 200억 원 이상인 종목 중 주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종목은 테라젠이텍스(74.86%)다. 유전체 분석 서비스가 주업인 이 회사는 뚜렷한 호재 없이 기관 매집이 늘면서 급등했다. 5거래일간 기관은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며 약 1억200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주가도 15일 장중 1만40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단기 변동성이 과해지면서 한국거래소는 투자주의 경보를 울리고, 18일에는 단기 과열 완화장치도 발동키로 했다.

삼보산업(44.42%)은 무상 증자에 따른 단순 ‘권리락 효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삼보산업은 13일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이날(14일) 발생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기준 가격은 1만350원으로 15일 종가(1만5500원)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싸다는 착시 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가상화폐 열풍이 지속하면서 관련 테마주들도 상승세를 유지했다. 비트코인 거래소인 빗썸의 지분을 들고 있는 옴니텔(30.77%)을 필두로, 옴니텔의 최대 주주인 위지트(32.55)와 지분 5% 이상 주요 주주인 비덴트(30.24%)가 모두 올랐다. 한일진공과 함께 가상화폐거래소 KCX에 공동 투자한 디지탈옵틱(27.81%) 역시 혜택을 입었다.

게임주인 웹젠(27.53%)은 성수기인 겨울방학을 맞아 넷마블 등 다른 게임·엔터주들과 더불어 상승했다. 최근 에이원앤이 사명을 변경한 더블유에프엠(25.00%)은 음극재 사업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전주에 급락했던 시노펙스(41.88%)는 상승 반전했으며, 와이오엠(36.96%)이 상승 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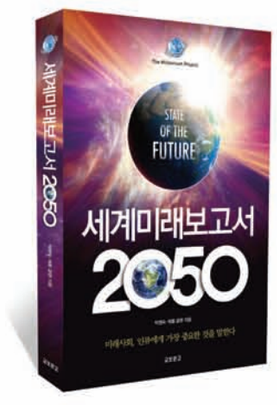
◇퓨쳐스트림네트웍스, 가상화폐주 부인 공시에 급락 = 앞서 가상화폐 테마주 편입 기대감에 급등했던 퓨쳐스트림네트웍스(-25.89%)는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한 데 따른 후폭풍을 맞았다. 회사는 11일 공시를 통해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과 직접적 지분 관계나 사업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급등분을 모조리 반납하고, 주가 하락을 예상한 공매도 집중포화를 맞았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후 낮아진 가격으로 주식을 되사서 갚는 투자방법이다. 한국거래소는 12일 퓨쳐스트림네트웍스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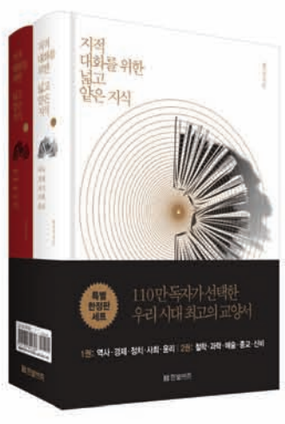
KJ프리텍(-23.29%)은 채권자에 의한 파산 신청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 우려로 급락세를 탔다. 이 회사는 8일 지엔씨파트너스가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에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남제약(-20.08%)은 이희철 전 회장에 대한 보유 지분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휘말렸다고 밝히면서 하락했다. 통상 경영권 분쟁 이슈가 발생할 경우 분쟁 당사자 간 주식 보유 경쟁이 발생하면서 주식 가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차익을 노린 단기 매매가 늘어난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도 미래테크놀로지(-21.81%)와 CS(-20.18%), 에너토크(-18.15%) 등이 하락 마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창조, 융합, 연결, 확장 등의 키워드로 살펴보는 2050년
STATE OF THE FUTURE
세계미래보고서 2050
미래사회,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한다

박영숙·제롬 글렌 지음 | 376쪽
교보문고 | 값 15,000원
현재의 가치관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미래
2050년을 읽으려면 먼저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세계미래보고서 2050》은 신기술과 변화하는 미래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가 바꿔야 할 사고방식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했다. 지금까지 《세계미래보고서》 시리즈는 에너지, 인공지능, 직업, 우주개발, 수명연장 기술 등 주로 소재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미래예측을 소개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키워드를 선택했다. 창조, 문제 해결, 융합과 연결, 확장 등이 그것이다. 변화는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며 각각 개별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변화는 이들 키워드로 수렴된다.
문의 : 02-3156-3824

리커버 특별한정판 출간
110만 독자가 선택한 우리 시대 최고의 인문교양서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리커버 특별한정판 출간
양장본 세트(전 2권)+에코백

채사장 지음 | 1권 376쪽 2권 372쪽
한빛비즈 | 값 32,000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이라는 콘셉트로 재해석한 표지와 한정판으로
제작된 ‘지대넓얕’ 에코백으로 소장 가치를 높인 특별한정판!
2017년을 맞아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지대넓얕〉을 선물하세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개별적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다. 세계가 어떻게 신자유주의 시대가 되었는지, 정부의 경제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보와 보수가 무엇인지, 사회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통시적으로 알려준다. 이 거칠고 거대한 흐름을 꿰다보면 세계사는 물론 경제 원리, 정치 이슈, 사회문제들이 한 방에 명쾌히 이해된다.
※ 한정 수량으로만 제작되었으며, 재고 소진 시 종료됩니다.
문의 : 02-325-5506
출판사 참여문의 ☏ 070-4333-0098

# 우정비에스씨 '감염방지 사업' 100% 신장

〈올 매출액 전망〉

##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예방 인식 높아져… 수요 급증
## 대학병원 20여곳·준종합·요양병원과도 '공간 멸균' 계약
## 천연물 살충제·기피제 개발… '토털 감염관리' 최종 목표

정밀의학 CRO(임상시험수탁기관) 및 환경감염관리 전문기업 우정비에스씨의 감염방지 사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15년 메르스(MERS) 사태 이후 감염병 예방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높아진 덕분이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우정비에스씨는 감염방지 사업 부문에서 올해 3분기 말 기준 매출액 59억88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감염방지 사업 부문 연매출액인 35억7400만 원보다 67.54% 증가한 실적이다. 4분기 실적까지 합하면 지난해 감염방지 사업 연매출액의 2배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정비에스씨는 1989년 창업한 바이오 기업으로 정밀의학 CRO와 환경감염관리를 양대 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멸균시설 구축 및 감염관리 기술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됐다. 우정비에스씨는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의료원 현장에 출동하면서 주목받았다. 최근에는 대학병원 20여 곳에 이어 준종합병원,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병원 내 감염병 예방 공간멸균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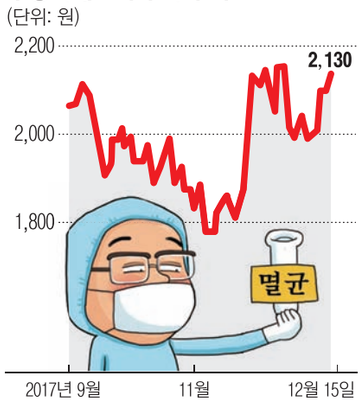
회사 측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다른 어떤 기술보다 빠르고 안전한 공간멸균기술로 진정시킨 실적을 기반으로 의료기관에 정기멸균 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그 결과 S병원 C병원 등 국내 유수의 대형병원 및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지방 준종합병원에 이어 요양병원까지 그 대상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우정비에스씨는 천연물 살충제와 기피제도 개발하고 있다. 이들 제품이 출시되면 감염예방 사업라인 전체가 완성되게 된다. 회사는 진단·예방·시설·장비·멸균·검증·관리로 연결된 순환고리가 작동하는 토털 감염관리 시스템 사업으로 외형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종경 BNK 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 "바이오제약 산업의 연구개발(R&D) 규모 증대 및 관련 시설투자 확대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국내 감염병에 대한 인지도 상승 및 감염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HPV 멸균기 국산화, 천연물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등 신규사업까지 본격화되며 감염방지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우정비에스씨는 멸균 처리가 필요한 연구시설 구축은 물론, 불특정 감염 사고에 대비한 긴급 대응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동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한 멸균 처리 사업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대두된다"고 평가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우정비에스씨 주가 추이**
(단위: 원)



하이즈항공과 BTC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김광엽 하이즈항공 생산본부장, 하상헌 하이즈항공 대표, Dan Park BTC 총경리, Ian Chang 미국 보잉 중국 총괄 부사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하이즈항공

# 하이즈항공, 보잉 中자회사 BTC와 맞손

##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공동 마케팅·공장 건설 협력

국내 항공기 종합부품기업 하이즈항공이 보잉의 중국 자회사 BTC(Boeing Tianjin Composites)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이즈항공은 보잉의 중국 자회사 BTC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형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MOU는 BTC와 2016년 8월에 맺었던 공장 설립에 대한 MOU에 이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이다.

하이즈항공은 BTC와 기술 및 인적 교류와 함께 공동 마케팅과 견적 참여, 현지공장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하이즈항공은 BTC가 중국 톈진에 구축 중인 신규 공장단지에 함께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중국 현지 생산을 통해 중국 내 보잉의 1차 협력업체들을 선점하고 이를 통해 중국 대형 고객사들의 조립 물량을 생산할 계획이다.

BTC는 글로벌 항공기 제조기업인 보잉이 중국의 AVIC(중국항공공업기업)과 설립한 합작회사로 보잉의 최신항공기 B737, 777, 787기의 복합재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하상헌 하이즈항공 대표는 "하이즈항공은 국내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 중 유일하게 중국의 모든 항공기 제조기업들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 며 "이번 MOU로 중국 현지 공장을 설립해 중국 항공기 제조시장에서 하이즈항공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안 창(Ian Chang) 미국 보잉사 중국 총괄 부사장은 "첨단 항공산업에서 기술력이 풍부한 한국의 하이즈항공과 보잉의 중국 자회사인 BTC가 중국 내에서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해 한·중합작의 좋은 사례를 만들 것"이라며 이번 MOU 체결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한편, 하 대표는 13일부터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의 경제사절단으로 중국을 방문 중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 40억 투입 영광군 대마산단 內 사업 부지 확보
# 캠시스 "超소형 전기차 씽씽 달린다"

## 'e-모빌리티 연구센터'와 협업 강화
## R&D센터 구축… 평가시설 완비

캠시스가 초소형 전기차 양산형 모델 개발을 위해 전남 영광군 대마산업단지 내 약 1만 평(약 3만3000㎡) 규모의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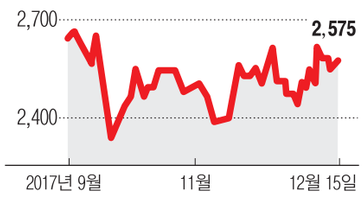
부지매입 금액은 약 40억 원으로, 캠시스는 이번에 확보한 부지에 자동차부품연구원의 'e-모빌리티 연구센터'와 협업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차 연구개발(R&D)센터를 먼저 구축한다. 이를 통해 캠시스는 'e-모빌리티 연구센터'의 개발시험 평가 인프라를 활용하며, 차량 개발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11월 대마산업단지 내 개소한 'e-모빌리티 연구센터'는 초소형 전기차(e-모빌리티)와 관련된 실내외 차량시험·인증·기업 지원·인력양성 시스템 등을 모두 갖춘 연구기관으로, 5만㎡ 규모의 초소형 전기차 전용 실외환경 평가시설까지 완비될 예정이다.

박영태 캠시스 대표이사는 "초소형 전기차와 관련된 국내 차량인증 관련 법제도가 공표되는 시기에 맞춰 완성도 있는 차량을 출시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영광군의 다양한 지원과 대마산업단지의 인프라를 활용해 차량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시스는 '2017 서울모터쇼'에서 최초 공개한 PM100(2인승 4륜 승용차)모델의 양산형 차량을 내년 6월 내 개발 완료한다. 이를 통해 영광군과 함께 '2018년 부산모터쇼'에 참가하여 마케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향후 PM100의 국내 판매를 위해 국토부 및 환경부 인증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우람 기자 hura@

**캠시스 주가 추이**
(단위: 원)




## 벤처기업 투자 집중 'DSC인베스트먼트'
# 가상화폐 거래소·블록체인 기술에 '베팅'

벤처캐피털 기업 DSC인베스트먼트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블록체인 기업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18일 DSC인베스트먼트는 최근 블록체인 관련 기술기업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으며, 관련 기업에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DSC인베스트먼트는 이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플러그에 엔젤투자 다음 투자에 참여한 시리즈A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국내 거래규모 2위로 알려진 코인원의 모기업인 데일리금융그룹에도 투자해 간접적 투자를 하고 있다.

DSC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블록체인 관련 유망 기업을 계속적으로 찾고 있다"며 "그중에 가상화폐 거래소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초기 단계로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거래소는 연간 수백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 사업으로 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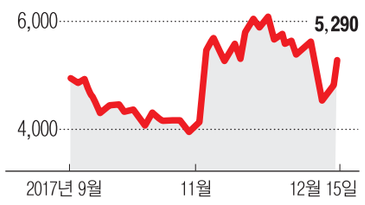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의 성장과 함께 531조 원을 돌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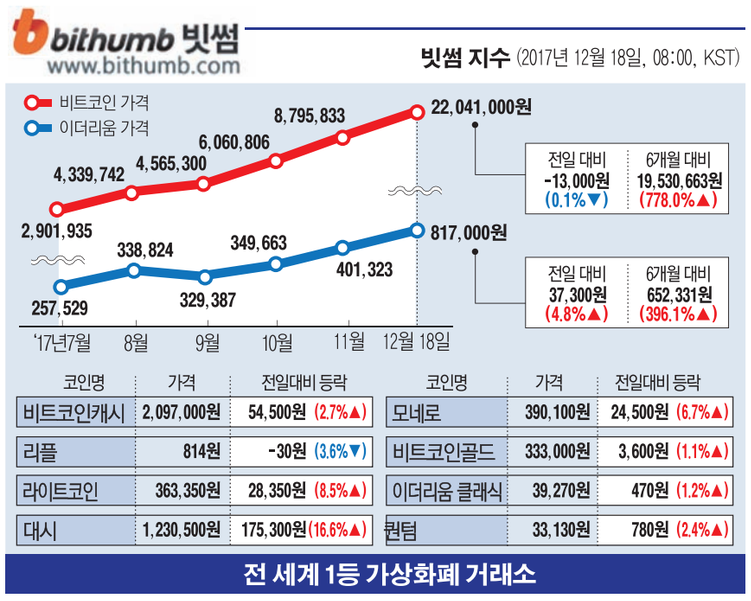
가상화폐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 중인 SCI평가정보, SBI인베스트먼트, 비덴트, 옴니텔 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DSC인베스트먼트는 벤처캐피털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투자조합 등의 결성을 통해 업무집행 조합원으로서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조합자금의 투자집행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회사의 설립부터 창업 초기 기업의 투자에 집중하고 있고, 벤처생태계 내 유망기업의 자금 지원이라는 역할과 이를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우람 기자 hura@

**DSC인베스트먼트 주가 추이**
(단위: 원)




| 코인명 | 가격 | 전일대비 등락 | 코인명 | 가격 | 전일대비 등락 |
|---|---|---|---|---|---|
| 비트코인캐시 | 2,097,000원 | 54,500원 (2.7%▲) | 모네로 | 390,100원 | 24,500원 (6.7%▲) |
| 리플 | 814원 | -30원 (3.6%▼) | 비트코인골드 | 333,000원 | 3,600원 (1.1%▲) |
| 라이트코인 | 363,350원 | 28,350원 (8.5%▲) | 이더리움 클래식 | 39,270원 | 470원 (1.2%▲) |
| 대시 | 1,230,500원 | 175,300원(16.6%▲) | 퀀텀 | 33,130원 | 780원 (2.4%▲) |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이투데이 Media는 브랜드다

젊다! Passion
다르다! Difference
뛰어나다! Premium

이투데이 미디어는 타 매체보다 앞서서 세상의 흐름을 읽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최선의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투데이 미디어 임직원은 항상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꿈꾸며, '빅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02)799-2600 구독문의 02)799-2684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일간 창간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마이라이프
2015년 1월 1일 창간

경제접목 연예뉴스
비즈엔터
2013년 10월 15일 오픈

SAMSUNG

크고 작은 어떤 먼지도
쉽고·빠르고·남김없이 흡입하고

손이 닿기 힘든 가구 위·아래도
손목·허리·무릎까지 편하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 청소력

**청소기의 절대기준**
**삼성 POWER Gun**

삼성 파워건
**독일 국제공인 시험기관 SLG**
미세먼지 차단 최고등급 5Stars 획득

**영국 알러지 협회 BAF**
알러지 차단 평가 5개 항목 모두 통과

QR코드로 자세한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당 5,000번 회전하는 2개의 터보 브러시와 토네이도보다 강력한 150W의 디지털 인버터 모터로 어떤 먼지든 쉽고 빠르고 남김없이 흡입하여 한번만 밀어도 빈틈없이 깨끗해집니다

50도까지 꺾이는 인체공학적 플렉스 핸들로 손이 닿기 힘든 가구 아래도 손목, 허리, 무릎 부담 없이 편하게 청소가 가능하며, 다양한 브러시로 손이 닿기 힘든 가구 위부터 천장 틈새까지 손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최고 등급을 획득한 5중 청정 헤파 시스템을 적용해 청소시 흡입한 미세먼지까지 99.999% 걸러내 배출을 차단하고, 알러지 걱정 없이 안심하고 청소할 수 있습니다

* 흡입력 측정은 IEC 60312-1 기준 터보모드 사용, 자사 실험치로 실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당사 인버터 모터 회전속도 190 m/s, Fujita Tornado Damage Scale F5142 m/s 기준 * 브러시 회전 수는 터보모드 사용/2개 브러시 기준 횟수, 자사 실험치로 실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독일 국제 공인시험 기관 SLG에서 미세먼지 차단 최고등급 5Stars 획득, 영국 알레르기 협회 BAF 알러지 차단 평가 5개 항목 모두 통과